

하키카트(진실) 서점 출판사 번: 1
Hakikat Kitâbevi Yayınları No: 1

믿음과 이슬람

(Îmân ve İslâm)

메블라나 할리드 바다디
Mevlânâ Hâlid-i Bağdâdî

준비자
후세인 힐미 으쓰크
Hüseyn Hilmi Işık

1판



하키카트 서점 출판사
다루세파카(Darüşşefeka) 거리, 번: 53
우편번호: 35 34083
파티- 이스탄불 (Fâtih-İSTANBUL)
전화번호: 0212 523 45 56-532 58 43
팩스: 0212 523 36 93
<http://www.hakikatkitabevi.com.tr>
이메일: bilgi@hakikatkitabevi.com.tr
사월-2025

Baskı: İhlâs Gazetecilik A.Ş.
Merkez Mah. 29 Ekim Cad. İhlâs Plaza No: 11 A/41
34197 Yenibosna-İSTANBUL Tel: 0.212.454 30 00

ISBN: 978-625-5560-03-2

수부하날라히 왜 비-함디히 수부하날라힐 아짐.

(Sübhânallahi ve bi-hamdihi sübhânallahil-azîm.) 이 칼리마이 텐지흐(kelime-i tenzîh)를 아침저녁으로 백 번 외우면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 받습니다. 이 기도는, 책 (Mektûbât Tercemesi)의 307번째 및 308번째 편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모든 문제를 제거하게 만듭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

믿음과 이슬람

머리말

베스멜레*로 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라의 이름은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측량할 수 없으나,

그분은 용서를 좋아하신, 매우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베스멜레: Besmele (비스밀라흐-Bismillah: 가장 자비로운 알라후 타알라께서의 이름으로)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존심, 나쁜 친구, 해로운 책과 외국 라디오에 속고 있으며 이 행복의 길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길을 잃은 자들 중에서는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재앙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호색하고 잔인한 자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불신의 길에 버려두십니다. 저승에서는 지옥에 갈 신자들 중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매 순간 모든 존재를 유지하시는 분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피신하여, 즉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알라후 타알라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의 순수한 가족 에흘리 바이트(Ehl-i beyt)에게 그리고 그의 정의롭고 충실한 동료 에스하브(Eshâb) 각자에게 좋은 기도들이 있기를 빕니다.

함드(Hamd)는 알라후 타알라가 모든 축복을 창조하며 보냈다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큐르(Şükr)는, 모든 축복이 이슬람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교의 신앙, 명령, 금지 사항을 설명하는 수천 권의 귀중한 책이 저술되었으며, 대부분은 외국어로 번역되어 모든 국가에 퍼졌습니다.

반면에, 부패하고 근시안적인 사람들 및 영국 스파이들에게 속은 무지한 성직자들과 무신론자들이 항상 이슬람의 유용하고 계몽적인 규칙, 즉 이슬람의 명령과 금지 사항을 공격하고 변색시키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무슬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에스하브 키람(Eshâb-ı kirâm: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의 동료들)으로부터 들고 그것을 책에 기록한 참된 길의 학자들을 에흘리 순네트(Ehl-i sünnet âlimleri)의 학자라고 부릅니다. 에흘리 순네트 학자들의 책을 읽지 않거나, 읽고 이해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꾸란 알카림과 하디스 셰리프(hadîs-i şerîf: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의 잘못된 의미를 해석하여 부적절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말과 글은 무슬림들의 확고한 신앙 앞에서 사라지고, 그 소유자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회중에서 살라트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이해됩니다. 근데, 그의 말, 글 또는 행동에서 에흘리 순네트의 학자들이 전달한 신앙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에 “이것이 신성 모독이거나

이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포기하고 회개하라는 지시를 말합니다. 만약 그가 짧은 마음과 부패한 생각으로 대답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변태요 배교자이거나 영국 이교도들에게 팔린 것을 이해됩니다. 기도하고, 순례하고, 온갖 예배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을 일으키는 원인을 포기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슬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불신을 일으키는 것들을 잘 배워 배교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교도, 무슬림을 사칭하는 이단자, 영국 스파이들을 잘 알고 그들의 피해를 피해야 합니다.

꾸란 알카림과 하디스 셰리프들에서 잘못되고 왜곡된 의미가 파생될 것이며, 따라서 72가지 유형의 이단적인 무슬림 종파가 발생할 것을,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sallallahü aleyhi ve sellem: 하나님 알라후 타알라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이 세상과 내세에서 모든 종류의 선함과 우월함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 기도, 존경과 헌신의 표현.)은 말해셨습니다. 책 **Berîka**과 **Hadîka**는, 책 **Buhârî**과 **Muslim**에서 가져온 하디스를 설명합니다. 위대한 이슬람 학자인 척 하고 및 종교 교수들 척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변태적인 종파들의 사람들의 책과 회의에 속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종교와 신앙의 도둑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이 무지한 무슬림들 외에도 공산주의자들, 석공들, 기독교 선교사들, 영국에 팔린 와하비족,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은 모두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무슬림 젊은이들을 속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작된 기사, 영화, 연극,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이슬람과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길에 수십억 돈을 소비합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rahime-hûmullahü teâlâ: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의미하는 기도와 존경의 표현.)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미리 필요한 답을 썼고 알라후 타알라께서 종교와 평화와 구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학자 중에서 위대한 이슬람 학자 Mevlânâ Hâlid-i Bağdâdî Osmânî ‘kuddise sirrüh’(쿤디세 실루: 알라께서 그의 비밀을 축복하게 해주시길, 의미하는, 존경과 기도의 표현.)의 책 **İ'tikâdnâme**를 선

택했습니다. 이 책은, 사망한 Kemâhî Hâcî Feyzullah 신사에 의해 터키어로 번역되어, (**Ferâid-ül-fevâid**)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히즈리 1312년에 이집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번역을 단순화하여, 이름을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믿음과 이슬람**)으로 명명했습니다. 첫 번째 판은 1966년에 나왔습니다. 설명들은, 책과 구분하기 위해 대괄호 [] 안에 넣었습니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알라후 타알라께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번역의 원본 페르시아어 버전은, 이스탄불 대학 도서관 (İbnül Emîn Mahmûd Kemâl beğ) 책선의 이름 (**İ'tikadnâme**) 아래, 번호 F.2639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키카트 서점 출판사 (**Hakikat Kitâbevi**)는, 터키어 번역본 (**Îmân ve İslâm**)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Dürr-ül-muhtâr 책의 저자이자 고결한 Alâuddîn-i Haskefî ‘라히 메홀라후 타알라’는, 불신자의 결혼에 관한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결혼한 무슬림 소녀가 사춘기 나이가 되었을 때 이슬람을 모른다면, 그녀의 결혼은 무효가 될 것이다. [즉, 그녀는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알라후 타알라의 속성을 알려야 한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나는 그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İbni Âbidîn은, 이를 설명했을 때 말했습니다: “소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무슬림이 된다. 사춘기에 도달하면 그는 더 이상 어머니나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지 않다. 이슬람을 모르고 사춘기에 이르면 배교자가 된다. 믿어야 할 여섯 가지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슬람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가 **Kelime-i tevhîd**을, 즉 **Lâ ilâhe illallah, Muhammedün resûlullah**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메둔 라수룰라: 알라후 타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예언자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의 이슬람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İbni Âbidîn의 이 진술을 통해, 불신자가 **Kelime-i tevhîd**를 말하고 그 의미를 믿는 순간 무슬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Âmentü billâhi ve Melâiketihî ve Kütübihî ve Rüsûlihî vel Yevmil-âhiri ve bil Kaderi hayrihi ve şerrihi minallahi teâlâ vel-ba’sü ba’delmevti hakkun, eşhedü en lâilâhe illallah ve eşhedü enne Muhammeden abdühü ve resûlühü**: 아멘투 빌라히 웨 멜라이케티히 웨 쿠투비히 웨 루수리히 웰 예위으밀 아

히리 웨 빌 카데리 하이리히 웨 세리히 민 알라히 따알라 웰 바수 바으델 메우투 학쿤, 예씨헤두 엔 라 일라헤 일랄라흐 웨 예씨헤두 엔 네 무함메덴 아부두후 웨 라수루후.) 이 아멘투 신조의 원리를 암기하고 그 의미와 필요한 이슬람 지식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무슬림 아이가 이 여섯 가지와 이슬람 지식을 배우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질 때 및 사춘기의 나이에 도달할 때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믿고 무슬림 되는 후에는, **이슬람 지식**들을, 즉 farz(파르즈:명령, 의무적인), haram(금지), abdest와 gusûl(일부 예배 행위, 특히 기도를 수행하기 전에 하는 종교적 청소들), nemâz(salât, 예배) 기도들 및 avret mahalli(사적인 부분)을 가리는 것에 대해 즉시들 묻고 배우는 것이 farz 즉 의무적이 됩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참된 종교 서적을 요청하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청 받는 사람에게도 파르즈 됩니다. 물어볼 사람이나 책을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불신자가 됩니다. 찾을 때까지 모른다는 것은 변명 됩니다. 의무적인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는 그리고 하람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섯 가지 기둥에 대해, 이 책에는 광범위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이 책을 잘 읽어야 하며, 자신의 자녀와 지인 모두가 이 책을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적인 부분의 주제(Avret mahalli)는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구절의 의미를 쓸 때는 (Meâlen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Meâlen)은 (tefsîr-타프시르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알라후 타알라의 메신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만이 구절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아스하브 동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타프시르 학자들은 이러한 하디스들, 위선자들과 영국 이교도들에게 팔린 이단자들, 즉 종파가 없는 사람들이 구성한 하디스와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찾을 수 없는 하디스들의 경우 타프시르의 과학에 따라 구절들 자체를 해석했습니다. 아랍어를 알지만 타프시르의 과학을 모르는 종교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꾸란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디스에는, “**꾸란알 케림을 자신의 이해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Ehl-i sünnet(올바른 길)의 학자들이 밝힌 올바른 길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이슬람 학자들과 같은 이름을 지닌 이슬람적으로 무지한 사람들과 비종파들 및 위선자들의 화려하고 교활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민.

Hakikat Kitâbevi 출판물가 출판한 모든 책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언어로 전 세계에 배포됩니다.

서기 (그레고리력) 년
2001

회교식 태양력
1380

회교식 음력
1422

누구에게도 먼저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 어디에서나 이슬람을 따르는 것이며,
물론 fikih*을 잘 배워야 한다.

또한, 성실함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야 한다,
즉, 결코 거만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것이 이슬람의 기초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실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는 없다,
타사우프*가 진심의 원천임을 아라야 한다!

*프크흐(Fikih: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기. 종교에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과학)

*타사우프(Tasavvuf: 알라후 타알라께서 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그리고 진정한 이슬람 즉 에흘리 순네트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서 강화하는)

서론

Mevlânâ Hâlid-i Bağdâdî ‘카떼살라후 타알라 시레홀 아지즈’(kaddesallahü teâlâ sirrehül’azîz: 알라께서 그의 비밀을 깨끗하고 거룩하며 축복받기를)는 자신의 책을 시작하기 전에, **İmâm-ı Rabbânî Ahmed Fârûkî Serhendî** ‘라히메 툴라히 알레이히’(rahmetullahi aleyh: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을 의미하는 기도와 존경의 표현)의 책(**Mektûbât**) 3번째 권의 17번째 편지를 썼고 자신의 책에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İmâm-ı Rabbânî** ‘kuddise sirruh’^[1] 쿤디세 실루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셨습니다:

우리 편지를 베스멜레(Besmele: Bismillah)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무슬림으로 만들어 우리를 존경했고, 우리를 무함마드 aleyhisselâm(알레이히셀람: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움마로 만들어신 그 가치를 높이신 알라후 타알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보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알라후 타알라뿐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매 순간 모든 존재를 항상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종들의 우월하고 좋은 자질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생각, 지식, 힘,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축복과 호의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항상 그분이십니다. 항상 셀 수 많은 축복과 선하심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람을 슬픔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근심과 재앙을 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영양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너무나 관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자양분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죄를 덮는게 너무 커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및 금지 사항을 피하지 않는 자들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관대하시고 자비로

[1] İmâm-ı Rabbânî, 1034 [서기 1624]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처벌과 고문(azâb)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적인 사람 모두에게 그분의 축복과 호의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은총 중 가장 높고 값진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모든 무한한 축복과, 끝나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에게 적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축복은 해처럼 명백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호의는, 사실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중개자로 만들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원함과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통해 축복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알라후 타알라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선함을 기대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참되고 적절하다는 것을, 학자 처럼 무식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잘 알겁니다. 왜냐하면, 말한 내용은 명백한 진실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보내주신 알라후 타알라께 가능한 한 많이 감사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명령하는 의무이자, 빛이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에 대한 이러한 감사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약하고 궁핍하고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항상 영원히 존재하며, 결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우월성은 그분께 속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그분과 어떤 유사성이나 근접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열등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알라후 타알라와 같은 최고의 존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많지만,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것들이 악한 것임을 아시고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존경이나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분께서 전혀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자신의 결함 있는 마음과 짧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알라후 타알라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는 방식

이 그분이 선언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칭찬으로 간주되는 행동은 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과 혀와 몸으로 알라후 타알라를 향해 이행하고 믿어야 하는 감사의 빛과 인간의 의무는, 알라후 타알라에 의해 정의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람’에 의해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사람의 의무를 이슬람(ﻟﯩﺴﻼﻡ)이라고 합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분의 예언자가 가르친 길을 따름으로써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난, 이 길에 따르지 않는 어떤 감사나, 예배도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슬람교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추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알라후 타알라께 감사하기 위해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길은 이슬람(İslâmiyyet)이라고 불립니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을 따르는 사람을 무슬림(Müslimân)이라고 불립니다. 알라후 타알라께 감사하는 것, 즉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배(İbâdet)라고 합니다. 이슬람 지식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종교 지식과 과학지식**. 종교개혁자들(종교를 바꾸고 타락시키려는)은, 종교지식을 (스콜라적 지식)라고, 과학지식을 (합리적 지식)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지식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 마음으로 믿어야 할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과학을 (Üsûl-i din) 또는 (Îmân) 지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Îmân)은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가 말한 여섯 가지 사항을 믿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며, 불신의 표시가 되는 말과 사용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무슬림은 불신의 징후를 배우고 피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슬림(Müslimân)이라고 합니다.

2 - 몸과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 및 피해야 할 예배 행위에 대한 정보입니다. 수행하라는 명령이 있는 정보를 파르즈(Farz)이라고 하고, 피하라고 명령하는 정보를 하람(Harâm)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Fürû-i din) 또는 (Ahkâm-ı islâmiyye) 또는 (İslâmiyyet)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켈리메이 테브히드(Kelime-i tevhîd)를 말하고 그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켈리메이 테

브히드는: 라 일라헤 일랄라흐 무함메둔 라수룰라흐(Lâ ilâhe illallah Muhammedün resûlullah) 그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존재하며, 하나이시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그의 예언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Îmân/이만: 믿음을 갖이다)과 (무슬림이 된다)이라 합니다. 믿는 사람을 무민(Mü'min)과 무슬림 및 무슬리만(Müslimân)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피하고, 불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고, 불신의 표시가 되는 일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꾸란알 케림은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이십니다. 알라후 타알라는 제브라일(Cebrâîl, 가브리엘) ‘알레이히살람’이라는 천사를 통해 꾸란알 케림을 무함마드 ‘알레이히살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꾸란의 말씀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란히 놓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꾸란알 케림의 아랍어 단어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정리한 구절 형태의, 문자와 단어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글자와 단어의 의미는 켈람의 일라히(kelâm-i ilâhî: 신성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자와 단어를 꾸란(Kur'ân)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말씀(kelâm-i ilâhî)을 가리키는 의미들도 꾸란입니다. 이 신성한 말씀인 꾸란은 나중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라후 타알라께서 다른 모든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은 일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순간까지 전해졌던 꾸란 알카림 전체를 Levh-il mahfûz(보존 판: 알라후 타알라께서 정한 모든 것,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기록된 판이며, 모든 종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판)의 순서대로 읽었고, 우리 예언자는 그것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가 세상을 떠난 해에,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은 두 번이나 와서 꾸란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와 그의 대부분의 동료들(Eshâb)은 꾸란알 카림 전체를 암기했습니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가 내세를 영예 하신 해에, 칼리프 Ebû Bekr-i Sîddîk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면으로 가져왔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꾸란 알 카림 전체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샤프(Mushaf)라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3만 3천 명의 동료들은, 이 무

샤프의 모든 편지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의 말씀을 하디스 세리프(Hadîs-i şerîf)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의미가 알라후 타알라에 의해 기록되고 단어가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에 의해 기록된 하디스를 하디스 쿤시(Hadîs-i kudsî)라고 합니다. 많은 하디스 책이 있습니다. 그 중 에 서 도 , 책 (Buhârî)과 (Müslim)이 유 명 합 니 다 .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믿어야 할 정보(Îmân), 해야 할 일(Farz), 피해야 할 일(Haram)이 있습니다. Farz와 haram은 (Ahkam-i islâmiyye)라고 불립니다. 이슬람 지식 중 단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을 이교도(Kâfir)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이해됩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고기 조각을 거의 모든 사람이 ‘심장’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물에게도 심장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물질적인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은 (마음)라고도 불린다. 이 마음은 종교서적에 쓰여진 마음입니다. 이슬람 지식의 자리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은 순수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더럽고 죽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노력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 нама즈(namâz: salât, 살라트 기도)를 행하고 용서(istigfâr)를 구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하람을 저지르는 것은 마음을 망칩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용서를 많이 낭송하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계속해서 낭송하는 사람을, 질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에게 생계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이스티그파르(istigfâr)은, 에스타그피룰라흐(Estagfirullah)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암송자는 무슬림이어야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istigfâr)의 의미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어두워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이스티그파르를 말하는, 맨날 다섯 번씩 예배 нама즈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정화되어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가 전달하는 종교적 지식은, 에흘리 순네트(Ehl-i sünnet)의 학자들의 책에 쓰여진 지식들입니다. 에흘리 순네트의 학자들이 전하는 신앙과 이슬람에 대한 지식 중에서 의미가 분명한 나스(Nass) 중 하나를, (즉 꾸란 구절과 하디스셰리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Kâfir)가 됩니다. 불신앙을 숨기면 위선자(Münâfık)라고 불립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숨기고 무슬림인 척하여 무슬림을 속이려고 한다면 이를 존드크(Zındık)라고 합니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Ehl-i sünnet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뜻이 분명하지 않는 나스를 착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에 머물지 않고, 지옥에서 끌어내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비다트의 사람들(Bid'at ehli) 또는 이단 종파(Dalâlet fırka들)라고 불립니다. 잘못된 종파에는 7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과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이, 행하는 예배와, 그들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한 행위와, 봉사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사후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진실한 무슬림들에게 에흘리 순네트 왈자마아트(Ehl-i sünnet vel-cemâ'at) 또는 순니(Sünnî)라고 합니다. 수니들은 예배 하기에 네개 종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네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가 에흘리 순네트가 되는 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네 가지 종파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에흘리 순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에흘리 순네트가 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이단자가 될 것이라고, İmâm-ı Rabbânî의 편지들에는, 특히 첫 권의 286번째 편지, (Dürr-ül-muhtâr)의 Tahtâvî 주석의 (Zebâyih) 섹션과, 책(El-besâir li-münkîr-it-tevessül-i bi-ehl-il-mekâbir)에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 책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1395[서기 1975]년에 및 그 이후에 이스탄불에 하키카트 서점 출판사가 차례로 오프셋 인쇄를 제작했습니다.

4종파 중 어느 한 종파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예배에 실수를 하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원하신다면, 결코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가 저지른 죄만큼 그 사

람을 벌하실 것이며, 그 벌 다음에 그 사람은 고통에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필수적으로 알려진, 즉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분명한 가르침 중 하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교도(불신자 / *Kâfir*) 또는 배교자(*Mürted*)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책임 있는 사람과 책임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슬림 어린이였지만, 나중에 종교를 버리고 불신자가 된 사람을 배교자(*Mürted*)라고 합니다. İbni Âbidîn ‘라히메올라후 타알라’는, 다신교로 인해 하람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배교자(*Mürted*), 물히드(*Mülhid*), 존드크(*Zındık*), 조로아스터교도, 우상 숭배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위선자(*Münâfık*), 72종파에서 이단 집단의 추종자로 불신자가 된 사람들, [바레만, 불교도], 바티니(*Bâtînî*), 이바히(*İbâhî*), 드루즈(*Dürzî*)는, 모두다 책임 없는 이교도들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석공들도 신성한 책을 갖지 않은 이교도들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계시된 천상의 책인 타우랏(*Tevrât*/토라)과 인질(*İncîl*/성경)을 믿는 자들에, 책임 있는 이단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이, 피조물에 울루히예트 호징(*Ülûhiyyet* 호징: 높은 호칭들, 신성의 호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무쉬릭(*Müşrik*, 다신론자, 회피의 사람)이가 됩니다. 알라후 타알라의 자티예 호칭들(*Sîfât-ı zâtîyye*) 및 수부티예 호칭들(*Sîfât-ı sübûtiyye*)을, 울루히예트 호징들(*Ülûhiyyet* 호징들)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책을 가진 이교도도, 어떤 책을 갖지 않은 이교도들이 무슬림이 된다면, 그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순수한 무슬림이 됩니다. 그러나, (*Sünnî*) 무슬림이어야 합니다. 순니가 된다는 것은, 에흘리 순네트의 학자들 ‘라히메후 물라후 테알라’ 중에 한 사람이 쓴 책을 읽고 배우고, 신앙, 말과 행동이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슬림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떤 필요나 강요 없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승으로 믿음니 있게 가는지 아닌지는, 그의 마지막 숨에서 분명해집니다. 큰 죄를 지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무슬림이,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고 깨끗해집니다. 회개(*Tevbe*)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는 요리문답서, 예를 들어 우리의 이 책에서 그리고 아랍어 책 (EL-Îmân vel-İslâm) 및 (Se'âdet-i ebediyye)에서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전파하려고 하고, 이스탄불에 있는 하키카트 서점 출판사는 이슬람교를 전파하려고 하며, 석공들은 종교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성, 지식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은 올바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파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이 현재와 내세에서 행복을 얻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무슬림은, 세 종파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파는, 에스하브 키람(Eshâb-ı kirâm:우리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의 동료들)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무슬림입니다. 이들은 에흘리 순네트(Ehl-i sünnet), 순니(Sünnî/수니파) 기리고 (Fırka-i nâciyye) 즉 지옥에서 구원받은 종파 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종파는, 에스하브 키람의 적입니다. 이들은 시이(Şîî/시아파)와 (Fırka-i dâlle) 이단 종파 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적입니다. 이를 와하비(Vehhâbî) 및 데즈디(Necdî/나지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으로 아라비아의 나지드 시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종파(Fırka-i mel'ûne)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슬림을 이교도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 책(Se'âdet-i Ebediyye) 및 (Kıyâmet ve Âhiret)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언자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무슬림을 이 세 종파로 나눈 자들은 유대인과 영국인입니다.

모든 무슬림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즉 자신의 창조물에 내재된 무지와 죄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항상, 라 일라헤 일랄라(Lâ ilâhe illallah)를 암송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즉 낮은 자아, 마귀, 나쁜 친구, 해롭고 부패한 책에서 비롯된 불신과 죄를 없애기 위해 아스타그피룰라(Estagfirullah)를 암송해야 합니다. 이슬람을 따르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нама즈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로우켓을 입는 여성에 보는 그리고 남들의 은밀한 부분에 보는 사람은, 하람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이슬람 ÎMÂN VE İSLÂM

이 **이티카드나메(İ'tikâdnâme)**: 하나님 알라후 타알라에 믿음의 대한 올바른 길) 책에서는, 라수룰라 (Resûlullah: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 (sallallahü aleyhi ve sellem: 알라의 축복의 있기를)’ **믿음과 이슬람**에 관한 하디스 세리프 (예언자의 말씀)를 설명합니다. 이 하디스 세리프의 축복으로, 무슬림들의 믿음이 완성될 것이고 독실해질 것이며, 그리하여 평온과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 이 죄 많은 할리드 (저자)도 ‘꾸디세 싘루’(Kuddise sirruh: 이슬람 성자에게 존경의 뜻으로 붙이는 호칭으로 -알라의 축복에 있기를- 뜻으로 사용한다) 구원받기를 애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로하지 않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종들을 안 타까워하시는 사랑의 알라후 타알라에 대한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 불쌍한, 가진 것이 없는 할리드의 잘못된 말들을 용서하시고, 오류 투성이의 의례를 받아들여주십시오! 거짓말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이슬람 적들의 거짓말과 글들에 속지 않도록 보호하며,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십시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은 알라후 타알라 뿐입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말한다: **뮈켈레프(Mükellef)**: 정상적인 정신 건강이 있고, 청소년에 도달한, 그래서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 성년) 된 여성과 남성 모든 무슬림들은, 알라후 타알라를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한다. 이러므로, 알라후 타알라의 자티예 호칭들(Sıfât-ı Zâtıyye: 단지 알라의 특성)와 수부티예 호칭들(Sıfât-ı Sübûtiyye: 다른 일부 창물들에게도 있는 특성) 잘 알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모두에게 첫 번째 조건이 의무다. 이것들을 모르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모르는 것은 죄 된다. 아흐마드의 아들 할리드 바다디가 쓴 이 책은, 사람들에게 우월함과 지식을 팔기와,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보를, 봉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는 그의 힘과, 라수룰라의 축복받은 정신으로, 힘

이 없는 할리드^[1]와 모든 무슬림들에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민.

[알라후 타알라의 자티에 호칭들이 6 개가 있다. 그것들은; **뷰주트 크뎀 베카 와흐다니예트 무할레페툼릴 하바디스 크얌 비 네피스흐**이다. 뷰주트(Vücûd), 스스로 존재하는 뜻이다. 크뎀(Kıdem), 알라후 타알라는 늘 존재하며, 알라의 존재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 베카(Bekâ), 그의 존재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와흐다니예트(Vahdâniyyet), 그의 같은 것은, 파트너와 예는 어떤 식으로도 없다는 뜻이다. 무할레페툼릴 하바디스(Muhâlefet-ün lil-havâdis), 알라후 타알라는, 결코 아무 면에서도, 아무 생물이나 피조물에도 닮지 않음을 뜻이다. 크얌 비 네피스흐(Kıyâm-ü bi-nefsihî), 알라후 타알라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시다, 늘 항상 존재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여섯 호칭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피조물에서 없습여, 어떤 식으로도 그것들과 결코 연관성이 없다. 어떤 이슬람 학자들은, 와흐다니예트와 무할레페툼릴 하바디스는 똑같은 의미라 하며, 이러므로 알라의 **자티에 호칭들**은 다섯가지라고도 한다.]

알라후 타알라 이외의 모든 것을 **마시바(Mâsivâ)** 아니면 **알렘(Âlem: 우주, 모든 피조물과 세상)** 라고 한다. 최근에 **타비아트(Tabî'at: 자연)** 이라고 한다. 최초에는 모든 알렘들이 없었다. 모든 것을 알라후 타알라께서 만드셨다. 알렘들은 모두다 묶인와 하디스다. 즉, 모든 알렘들이 없을 때 존재할 수도 있고, 있을 때 없을 수도 있다. 알렘은 없었고 나중에 생성되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디스 셰리프는, 이것을 보고되었다.

우주가 나중에 창조된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모든 피조물은 항상 부패하여 변한다. 모든걸 변하고 있다. 카뎀(Kadîm: 시작이 없고 늘 항상 존재해온 것) 이라는 것은 전혀 결코 변하지 않다. 그러므로 알라후 타알라 자신과 알라의 호칭들도 변화하지 않다. [반면에 세상의 물리 현상들에서는, 물질들의

[1] 할리드 바다디는, 124년 (서기 달력 1826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하였다.

상태가 변한다.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구조, 본질이 바뀐다. 물체들은 없어지면서 다른 물체로 변하는 것을 본다. 요즘에, 새롭게 알게 된 원자 변화와 핵 반응에서, 물질, 요소가 없어지고 에너지로 변한다.] 알렘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서로에게 존재는 것은, 무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시초가 있어야 하며, 무에서 창조된 최초의 물질들과 원소들로부터 생겨났어야 한다.

모든 세계이 **뭌킨**이라는 것은, 즉 없으면서 나중에 존재한다는 다른 증거도, 세계와 피조물이 **하디스(Hâdis)**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중에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뉘주드는, 존재 의미가 있다. 뉘주드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와집울 뉘주드(Vâcib-ül-vücûd)**이다. 즉, 존재가 필요한 뉘주드이다. 항상 존재한다. 과거에서도 영원한 미래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다. 오직 알라후 타알라만 와집울 뉘주드이시다. 두 번째는, **뭌테니울 뉘주드(Mümteni'-ul-vücûd)**이다.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 항상 없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세릭이 바리(Şerîk-i bârî) 이런다. 그건 뜻이, 알라후 타알라의 파트너가 있을 수 없으며, 알라후 타알라 같은 두 번째 신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뭌킨울 뉘주드(Mümkin-ül-vücûd)**이다. 즉,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모든 세계와 피조물은 항상 이와 같다. **뉘주드(Vücûd)** 단어의 반대말은 **아뎜(Adem)**이다. 아뎜, 결석 라는 뜻이다. 알렘, 세계와 피조물은 즉 모든 것을, 존재하기 이전에 아뎜 안에 있었다. 즉, 다 없었다.]

사용 가능한, 즉 존재하는 것은 둘 종류다. 하나는 **뭌킨(Mümkin)**: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라후 타알라 이외의 모든 것, 전 세계)이고, 두 번째는, **와집(Vâcib)**: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알라후 타알라)이다. 만약에 존재하는 것은, 뭌킨만 된다면, 그리고 와집울 뉘주드 없었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존재하지 않을때 존재하는 것은, 변화이고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물리학 지식에 따르면, 모든 물체에서 사건이 발생하려면, 이 물체에 외력이 작용해야 하고, 이 힘의 원천이 이 물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뭌킨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계속 존재할 수 없다. 그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그는 항상 결석했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자신을 창조 할 없는 것은, 물론 다른 뭌킨들을 만들 수 없

고, 창조 할 수 없다. 뭉킨을 창조하는 분은, 와집을 뷰जू드 되야한다. 세계를 존재는 것은, 이것을 없을 때 다 존재하는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시다시피, 하디스가 아닌, 뭉킨가 아닌 것으로, 즉 항상 존재하면서, 모든 뭉킨들의 유일한 창조자는, 오직 와집을 뷰जू드(Vâcib-ül-vücûd)이다. 알라후 타알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한 카딤(Kadîm)이다. 즉, 스스로 늘 존재하신다. 와집을 뷰जू드 라는게, 그의 존재는 다른 누구에서도 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자신에게서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라의 존재는, 그의 스스로 항상 존재한다. 알라는, 다른 무언가이로나 누군가의 힘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뭉킨와 하디스(이전에 없으면서, 나중에 생성되는) 존재였다면, 다른 누군가를 의해 창조 돼야 한다. 이것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페르시아어로 **휴다(Hudâ: 신)**는, 스스로의 힘으로 늘 존재한다는 즉, 카딤이다. [우리 책의 1부, 6번째 항목, 94페이지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든 우주가 놀라운 조직적인 되어 있음을 본다. 과학은, 매년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이 질서의 창조자는 **하이(Hay)**는 살아 있고, **알림(Âlim)**은 알고 있고, **카디르(Kâdir)**는 할 수있는 힘이 있고, **무리드(Mürîd)**는 소원이 있고, **세미(Semî)**는 들을수 있고, **바시르(Basîr)**는 모든 것을 보는, **뮤테켈림(Mütekellim)**은 말을 하는, 그리고 **칼리크(Hâlik)**는 창조하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죽는 것과 무지한 것, 능력이 없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 귀머거리와, 눈먼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 우주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소멸하지 않을 위해 보호하신 분에게, 이런 잘못된 속성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자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계산과 법칙으로 창조되었다. 물리학, 화학, 천문학 및 생물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칙과 이들 사이의 질서는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한다. 다윈도 결국에는, "눈의 구조와 질서, 세부사항을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에 미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기는, 78%의 질소, 21개의 산소 및 1개의 불활성 기체의 혼합물이다. 합성이 아니라 혼합물이다. 만약에 산소가 21% 이상이였으면, 폐를 태울 것이다. 21% 미만이었으면 혈액에 있는 물질들을 태울 수 없었다. 고로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었다. 이 21%의 양은, 모든 곳에서 그리고 비가

을 때에도 변하지 않다. 이것은 큰 축복이다. 알라후 타알라의 존재와, 능력과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나요? 이 경이로운 분에 비하면, 눈의 구조에 대한 경이로움은 아무 것도 아니다. 과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법칙과, 자세한 계산들과 공식들을 창조하신 분에게는, 결코 불완전한 형용사 있을 수 있나요?]

이것들 외에, 우리는 이미 언급했던 위대한 호칭들이 일부 피조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본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 호칭들을 피조물에게도 창조하셨다. 이러한 속성들이 알라후 타알라에게 있지 않았습면,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이 호칭들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호칭들이 알라에게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창조물들이 그분보다 우월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창조주에는 분에게, 모든 위대하고 성숙하고 우수한 속성이 있어야 하며, 결점이 있는 속성들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 불완전한, 결점이 있는 것들은, 후다 (Hudâ) 즉, 창조자가 될 수 없는 때문이다.

정신이 보여주는 이 증거들을 한쪽에 제쳐둔다 해도, 꾸란의 구절과 하디스 세리프에도, 알라후 타알라의 위대한 호칭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의심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며, 불신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위에 쓰여진 8가지 위대한 호칭들은 '**수부티에 호칭들**' 라고 한다. 즉, 알라후 타알라에 수부티에 호칭들은 8가지 있다. 알라후 타알라는 모든 위대한 호칭들 가지고 있다. 그의 자신과 호칭들과 모든 일들에서, 성과에는 아무 결점과 혼란과 변화가 없다. '자티에 호칭들'과 '**수부티에 호칭들**'은 **울루히예트 호칭들 (Ülûhiyyet sıfatları: 높은 호칭들)**이라고 불린다. 어떤 피조물에서도 높은 호칭들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신교**가 된다.

이슬람의 계명들

모든 알렘들을 항상 존재하게 하시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선량과 축복들을 주는 알라후 타알라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 예언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의 축복된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무슬림들의 영웅 이맘, 아스하브 키람(Eshâb-ı Kirâm: 우리 사

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 기간 동안 잠시라도 그에 보고 말했던 모든 무슬림들)에서 가장 높은 중 한 명으로, 항상 진실을 말하는 유명한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인 오마르 빈 칼탐 '라드알라후 안흐 으'(Radiyallahü anh: 알라의 만족이 있기를)은 말했다:

“그렇게 영예로운 날이었다, 아스하브 키람에서 중 우리 몇 명이, 우리의 예언자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을 모시고 있었다.” 그 날, 그 시간, 그토록 존귀하고, 소중하고, 다시 보기가 불가능한 날이었다. 그 날, 라수룰라의 담화에와 그분이란 한 자리에서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는, 영혼의 음식이와,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의 축복받은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이었다. 그 날의 영광과 고귀함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영예로운 날이었다...”라고 말했었다. 제브라일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알라의 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아주 잘, 명확하게 예언자 라수룰라의 축복받은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영예롭고 고귀한 시간은 또 있을까요?

그 때, 마치 달이 뜨면은 것처럼, 한 분이시니 우리에게 왔다. 그의 웃은 매우 하얗고 머리는 매우 검었다. 그에게는 먼지와 땀과 같은 여행의 흔적이 없었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의 교우들 아스하브 (우리) 중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즉, 그는 우리가 보고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그는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의 면전에서 앉았다. 그의 무릎을, 축복받은 예언자의 무릎에 맞대었다. 그는, 제브라일 천사였다. 그는 인간의 형태를 취한이로 왔었다. 제브라일 천사의 앉은 자세는 예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자세는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즉, 종교적 지식을 배우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스승에게는 교만과 오만은 주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브라일 알라이히셀람은 아스하브 크람에게, 종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게 교사들과 스승님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배우는 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알라의 권리를 지불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지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분은, 우리 예언자 라술리 에크람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의 축복받은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알라의 예언자에게

물었다. “오 라수룰라! 저한테 이슬람에 무슬림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슬람(İslâm)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행복한다는 의미한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은, 이슬람 이라는 단어가, 이슬람의 다섯 기둥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선언해셨다.

라술리 에크람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 이렇게 말해셨다:

1 - 이슬람의 계명드의 첫 번째는 **켈리메이 세하데트(Kelime-i Şehâdet: 나는 유일한 알라후 타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으며,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은 알라의 종이자 밋 예언자고 믿습니다)**를 말하는 것이다. 켈리메이 세하데트를 말하는 것은 **에스헤두 엔라 일라헤 일탈라흐 베 에스헤두 엔네 무함메덴 압두후 베 라수루후** 말하는 것이다. 즉, 이성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뮤켈레프 성년은, (땅에나 하늘에나 경배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알라후 타알라 밖에 누구도 아무도 없다 진정한 신은 오직 알라후 타알라 뿐이시다 그는 와집울 뷰주드입니다. 모든 우월이 그분에 있습니다. 그에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라’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굳게 잘 믿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는 장미 색깔로, 흰색 빨간색, 밝고빛은 아름다운 얼굴, 검은 눈썹과 검은 눈, 그의 복된 이마는 활짝 열려 있고, 성품이 선하며, 그의 그림자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은 다정하며,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랍이라고 불리는, 하시미 아들에서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 라는 그 축복 받은 사람은, 알라의 종이자, 메신저, 즉 예언자이시다.) 그는 와하브의 딸인 아미나 부인의 아들입니다. [서기 571년, 그는 4월 20일 월요일 새벽에 메카라는 도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선지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는 ‘비세트의 해’(Bi’set senesi: 제브라일 천사가 예언자에게 예언자임을 선포하는 것은, 비세트의 해. 예언력을 알려준 년)라고 한다. 그 이후로, 13년 동안 메카에서, 사람들을 이슬람에 초대하셨다.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에 따라, 메디나에 이주하셨다. 여기서 이슬람 종교를 모든 것에서 전파하셨다. 히즈렛(Hicret: 우리 예언자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살랄’의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 이후 10년, 즉 서기 632년 6월, 히즈리 달력 레비울아왈의 12번째 월요일에, 메디나에서 사망하셨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실 즈음 서기 622년 사페르

달의 27번째 날인 목요일 저녁 때, 세브르 산의 동굴로 들어가셨다. 월요일 밤에 동굴에서 나오시고, 서기 9월의 20번째 날, 그리고 루미 9월의 7번째 날, 그리고 레비올에벨의 8번째 월요일 메디나의 구바 마을에 도착해셨다. 이 행복한 날, 이슬람교의 ‘**히즈리 쉐시력**’(Hicrî şemsî: 태양 달력) 년이 첫 날이 되었다. 시이(şîî)들의 히즈리 태양력은 이보다 6개 월 전에 시작한다. 즉, 불을 숭배하는 이단자들의 내브루즈(Nevruz) 경축일이 3월 20일에 시작된다. 그 분은 밤과 낮이 길이가 같은 목요일에도 쿠바에서 머무시고, 금요일에 떠났셨다. 그 날 메디나에 도착하셨다. 그 날은 무하렘(Muharrem) 달의 첫날이고 또 **히즈리 카메리**(Hicrî kamerî: 히즈리 달 음력)의 새해 첫날이 되었다. 이 카메리 해의 시작은 7월 16일 금요일이었다. 그 어떤 서기력(그레고리 언 달력)의, 새해에 해당하는 히즈리 태양력의 새해는 이 서기력의 새해보다 622 덜하다. 그 어떤 히즈리 태양력의 해당하는 서기력의 새해는, 히즈리 태양력 보다 621 더 많다.]

2 - 이슬람의 5개 계명들 중에 두번째는, 조건들과 예의에 따라 하루 5번 намаз 시간에 맞춰 **나마즈를(Namaz: 살라트 예배하기) 하는 것이다**. 모든 무슬림들은, 매일, 때가 되면, 5번의 нама즈를 해야 하며, нама즈 마다 정해진 시간에 했는지를 꼭 잘 알아야 한다. 무지한 사람들과 종파 없는자들이 준비한 잘못된 달력에 따라서, нама즈 시간이 되기 전에 нама즈를 하는 것은 큰 죄악이며 이 нама즈는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그런 잘못된 달력 시간 따라 하기때문에, 정오 нама즈의 첫 순넛(Sünnet: 우리 예언자는 알라후 타알라에게 찬미하기 위해 한 нама즈들) 그리고 저녁 의무 нама즈의 파르즈(Farz: 꾸란에서 확실히 알려주는 꼭 해야 하는 의무들)는 케라हत 시간(Kerâhet: 금지된 시간: 해가 뜰 때, 해가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해가 질 때)에서 нама즈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언제 нама즈 시간이 되는지는, 뮈에진(Müezzin: 예잔을 읽을 공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가 예잔(Ezân: нама즈로의 초대)을 낭송하고 기도를 부르므로 알린다. 이단자들과 비다트(Bid'at: 우리 예언자의 사망 후에 덧붙여진 잘 못된 원칙들) 사람들이 읽는 것들, 그리고 스피커 같은 악기들의 소리들은, **예잔의 무함메디(Ezân-ı Muhammedî: 순네트를 따르면서 읊는 읊은 예잔) 아니다**.] нама즈들을; 파르즈와, 와집들과, 순네트들에 순종하며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알라후 타알라에게 바침으

로써, нама즈의 시간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꾸란알 케림에서 нама즈가 **살라트(Salât)**라고 하신다. 사전에서 살라트; 사람의 기도하고, 천사의 회개하고, 알라후 타알라의 불쌍함과 자비를 베푸시는 의미한다. 이슬람에서 **살라트**의 의미는, 일미할(ilmihâl: 이슬람에 대한 교리 문답)책들에서 알려준 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하며 어떤 것들을 읽는 것이다. нама즈는, **이프티타흐 테크비르(iftitâh tekbîri)**로 시작한다. 즉, 남자들이 손을 귀에 대고 손을 배꼽 아래에서 내릴때, 여자들이 손을 어깨 높이에서 들고 손을 가슴에 대고 내릴때 **“알라후 에크베르”(Allahü Ekber: 알라께서는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작된다. 마지막 앉음에서는, 머리를 오른쪽, 그 다음에는 왼쪽에 돌리고 셀람(selâm: нама즈에서 셀람의 의미는,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서 있는 천사들에게 인사)하면서 끝낸다.

3 - 이슬람의 다섯 계명들 중에 3 번째는, **재산의 제카트(Zekât)**를 주는 것이다. 제카트의 사전적 의미는, 청소와 칭찬,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될 것을 뜻이다. 이슬람에서 제카트는, 필요한 만큼 보다 더 많고 **니사브(Nisâb)**이라는 특정 한도 내에서, **제카트 재산이(Zekât malî)**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의 일정 금액을 나누고, 꾸란알 케림에서 명시된 무슬림들에게, 생색 내지 않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제카트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네 가지 종파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제카트 재산 있다. 그것들은: 금과 은의 제카트, 상업 재산 자카트, 반년 이상 초원에서 풀을 뜯는 네발 정육점 동물에 제카트, 그리고 토양 토지의 작물의 제카트다. 이 네 번째 제카트는 **우슈르(Uşr)**이라고 한다. 우슈르는 작물을 토양에서 수확하자마자 주어진다. 나머지 3개의 제카트는, 니사브 금액에 도달한 후 1년 후에 주어진다.

4 - 이슬람의 다섯 계명들 중에 네 번째는, **라마단알 케림 달에 매일 금식하는 것이다.** 금식을 (**Savm**)이라고 한다. 사전에서 savm은, 무언가를 무언가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다. 이슬람에서, 조건을 고려하고, 알라후 타알라가 명령했기 때문에, 라마단(Ramezân)달에 매일 세 가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남녀관계다. 라마단의 달은 하늘의 초승달(새로운 달)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달력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미리 시작되지 않다.

5 - 이슬람의 다섯 계명 중에 다섯 번째는, **재산이 충분한 사람**

들은 인생에 한번 하즈(Hâc) 즉, 순례를 가는 것이다. 안전한 여행과 건강한 몸으로, 메카이 무카라메에 가고 돌아올 때까지, 남겨둔 가족에게 필요한 충분한 생계비 외에, 남은 돈으로 순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한번 카바으 무아자마(Kâbe-i Muazzama)를 순례하고, 아라파트(Arafât) 광장에 들르는 것은 파르즈 즉 필수다.

그 분, (제브라일 알라이히셀람)은 우리 예언자에게 대답을 들었을 때, “오 라수룰라 **옳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셨다. 오마르 ‘라드알라후 안흐’는, 그곳에 있던 아스하브 크람 교우들은 그 분(제브라일 천사)의 이러한 언행에 놀라워했음을 알려줬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또한 그 대답을 옳게 라고 확인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묻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뜻이다. 옳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 언급된 이슬람의 다섯 계명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은, **켈리메이 세하데트**를 말하고, 그의 의미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нама즈(예배) 가장 우월한 것이다. 그 후에는, 오루츠(금식), 그 다음은 순례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카트 즉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켈리메이 세하데트가 가장 우월한 조건이라는 의견에, 이슬람 학자 모두가 동의를 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나머지 4 개 조건들의 우월함의 순위에 대하여 위에 명시된 것이라고 동의한다. 켈리메이 세하데트는, 이슬람교 초기에 첫번째로 파르즈(필수 의무)가 되었다. 매일 5 번의 нама즈는, 비세트 12 년에, 히즈렛(이주) 1년 몇 달 전, 미라츠(Miraç: 승천)의 밤에 필수 계명 즉 파르스가 되었다. 라마단으셰리프의 금식은 히즈렛 2 년의 셔반 달에 파르즈가 되었다. 금식이 의무적인 해인 라마단 달에 제카트를 주는 것이 파르스가 되었다. 하즈(Hâc)는, 히즈렛의 9번째 해에 파르즈가 되었다.

사람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계명들 중 하나를 부정한다면, 즉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롱하고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네우주빌라(ne’ûzübillah: 알라 우리를 보호하소서) 불신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할랄(Halâl: 알라후 타알라가 허락되는 것들)와 하람(Harâm: 알라후 타알라가 금지한 것들) 이라고 명확하고 만장일치로 선언된 것들 중에 딱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즉, 할랄을 하람이라고 하거나, 하람을 할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단자가 된다. 이슬람에서 필연적으로 알려진, 즉, 이

슬람 지역에 사는 무식한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종교적인 지식들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돼지 고기를 먹는 것,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 도박을 하는 것, 여성들과 성인 소녀들의 머리와 머리카락 그리고 팔과 다리를 가리지 않고, 남자들은 무릎과 배꼽 사이를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람이다. 즉, 알라후 타알라께서 이 것들을 금지하셨다.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들과 금지들을 알려주는 4개의 이슬람 의로운 종파는, 남자들의 사적인 부분을, 즉,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고, 또 보여주는 것이 금지된 몸의 부위들을 다르게 알려줬다. 모든 무슬림들은 자신이 소속한 종파가 알려준 아브렛(Avret: 가려야 하는 몸의 사적인 부위) 부분들 가리는 것은 파르즈다. 그렇게 아브렛 부분들 열려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하람이다. **킴야이 사아데트(Kimyâ-i se'âdet)**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과 성년 소녀들의 머리와 머리카락, 팔과 다리를 노출한 채로 외출하는 것은 하람이며, 얇고, 화려하고, 짝 끼고, 향기로운 옷으로 외출하는 것도 하람이다. 이렇게 외출을 허락하고, 괜찮다고 좋다고 하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남편, 오빠, 형제들도 그녀의 죄와 고통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지옥에서 함께 불타게 될 것이다. 만약에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것이며, 불타지 않을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성인이 된 소녀들과 여자들은, 낯선 남자들 앞에 보이지 말라는 것을 히즈렛의 3년에 명령되었다. 영국인 첩자들과 그들의 함정에 빠진 무지한 사람들의, 꾸란에 히잡의 구절 오기 전에, 히잡 않는 것을 내세워고 히잡을 나중에 종교인들이 발명했다 라는 말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이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알리 순넛(Ehl-i Sünnet) 학자들에 물어보거나, 이 학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배워야 한다. 행위가 이슬람교에 어긋나면, 죄나 이단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매일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죄와 모욕(신성 모독, 불신앙; 알라후 타알라의 존재와 유일함을 부정, 이슬람의 종교가 선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종교에서 탈퇴자가 되게 한 모욕과 말들)은,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지옥에서 고통 즉 형벌을 받

게 된다. 이 처벌들은, 우리 책의 여러 곳에서 작성되었다. 큰 죄를 지은 무슬림은, 자신의 죄만큼 불타는 다음에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 알라후 타알라를 믿지 않고, 이슬람의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단자들과 존득(Zındık: 어떤 종교에 믿지 않고 알라후 타알라를 믿지 않지만 무슬림은 척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바꾸는 이슬람의 적, 사이비, 맹렬한 불신자, 뮈나푼:Münâfik, 위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намаز 예배 할 때 그리고 항상 가려져야 하는 부위들에 **아브레트 마할리(Avret mahalli)**라고 한다. 몸에 이런 금지된 부위들을 열어주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런 아브레트 마할리 부분을 보는 것은 하람이다. 이슬람교에서 아브레트 마할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자가 된다. 이즈마(İcma) 즉 모든 4개의 이슬람 종파에서 아브레트 되는, 금지된 부위들을 열려는 것과 남의 이런 부위들을 보는 것은 할랄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즉,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자가 된다. 여자들이 아브레트 마할리 부위들을 열어주는 것과 남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메블리드(Mevlid: 예언자 라수룰라의 출생, 승천과 삶을 칭송하기)를 암송하는 것은 또 하람이다. 남자들의 무릎과 사타구니 사이는, 한벨리(Hanbelî) 종파에서 아브레트 마할리가 아니다.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과 이슬람의 계명들과, 이즈마 즉 4종파의 만장일치로 알려주는 파르즈와 하람을 배워야 하고, 중요시하여야 한다. 모르는 것을 변명이 아니다. 즉, 그것은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같다. 여자들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들이, 4개의 종파의 견일치로 모두 아브레트다. 이즈마가 아닌, 즉 다른 3개 종파의 중 하나에 따르면, 아브레트가 아닌 몸의 일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고 열어주는 사람은 불신자가 되지 않지만, 소속된 자신의 종파에서는 큰 죄가 된다. 남자들은 무릎과 사타구니 사이, 즉 허벅지 여는게도 그렇게 하람이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수 의무 파르즈다. 배우자마자 바로 회개해야 하고, 덮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 험담, 소문, 비방, 도둑질, 속임수, 배신, 배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 난동을 일으키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노동자와 운송인의 임금을 지불하

지 않는 것, 국가에 반항하는 것, 즉 정부의 법과 명령에 반대하는 것, 세금들을 지불하지 않는 것들도 죄다. 이런것들을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 도, 불신자의 나라에서 하는 것 도 하람이다. 무지한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모른다는 것은 무지한 사람의 불신앙이 아니다. 프스크(Fisk), 즉 죄가 된다.] 475.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믿음의 계명들

(제브라일 천사는 다시 “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셀렘’, 믿음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슬람의 의미를 묻고 대답하신 후에,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렘’은 우리의 예언자 라술리 에크렘(Resûl-i Ekrem) ‘살랄라후 알라이히베살람’에게, 믿음의 핵심과 질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다. 사전에서 믿음(îmân)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올바르다고 알고, 그에게 믿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믿음의 의미는, 라술리 에크렘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이 알라후 타알라의 예언자이며, 알라께서 선택하신 메신저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예언자가 알라후 타알라로부터, 우리에게 간략하게 알려준 것을 간략하게 믿어야 하고, 그가 자세히 말한 것을 넓게 믿어야 하며, 힘이 닿는 만큼 켈리메이 세하데트를 입으로도 말하는 것이다. 강단한 믿음은, 불이 태운고 뱀이 독으로 죽인다는 것들을 믿고 도망가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알라후 타알라와 그의 호칭들의 우월함을 알고 믿는 것이며, 그의 만족과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고 그의 진노와 고통을 피하고, 믿음을 대리석에 새겨 쓴 글 처럼 단단하게 마음속에 배치하는 것이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과 이슬람은 같은 것이다. 켈리메이 세하데트의 의미를 믿어야 하는게 두군데에(믿음과 이슬람의 계명들에)서도 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상 의미는 달라도, 이슬람에서는 차이들은 없다.

믿음은 단일 항목인가, 아니면 몇 부분의 조합인가? 조합이라면 몇 부분으로 구성 되냐? 행위와 예배들은 믿음에서 오는가, 아닌가? 나는 신앙이 있다 라고 말할때 ‘인샤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된가, 아닌가? 믿음에서 부족함과 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이 나중에 피조물되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무슬림들이 힘으로 믿음을 가졌을까? 만일 믿음에서 강요와 억지가 있다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즉 무슬림이 되라는 것이 명령될까?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각각에 대답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 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예샤리(Eş'arî)와 무테질레(Mu'tezile) 종파들에 따르면,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무테질레 종파에 따르면, 가능이라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예샤리 종파에 따르면, 이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지 않다. 사람에게 하늘에 날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믿음, 예배들 및 행위들에서,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넘는, 즉 할 수 없는 것들을 종들에게 원하시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무슬림인 동안에 제정신이 없게 되면, 생각과 의식이 없게 되면, 잠들때, 죽을때 이 상태들에서 자신이 무슬림인지 확인하지 못 하더라 도 그들의 이슬람 믿음은 계속된다.

이 하디스 세리프에서, 믿음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전적 의미는 확증과 믿음이기 때문에, 아랍의 무지한들 중에, 이 의미를 모르는 누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하브 키람 교우들'라드알라후 안훔 에즈마인'이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브릴 '알라히살람'은, 믿음의 의미를 아스하브 키람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이러한 이유로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히 베 살람'은 이슬람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믿음의 의미는**, 찾아서 발견하고 또한 양심과 발견하고, 또는 증거를 가지고 정신으로 이해하는 통해서, 그리고 선택되고 좋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이 분명한 여섯 가지를 전심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혀로 말하는 것이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히 베 셀렘' 도 믿음의 6가지 분명한 사항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

1 — 이 여섯 가지 중 첫 번째는, **알라후 타알라가 와집을 부쥬드 즉 존재에 필요한 존재이며 진정한 창조자이자 모든 존재의 창조자임을 믿는 것이다.** 세계에와 내세에서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물질 없이, 시간을 초월하고,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알라후 타알라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 [모든 물질, 원자들, 분자들, 원소들, 화합물들, 유기물들, 세포들, 삶을, 죽음을, 모든 사건, 모든 반응, 모든 힘의 종류, 에너지의 종류들, 움직임들, 법들, 영혼들, 천사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항상 존재하게 있게로 만들하신 오직 분이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세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을때 무에서 단 한 순간에 창조하신 것처럼, 항상 서로부터 창조하게 하신다. 심판의 날이 오실때, 모든 것을 단 한 순간에 또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존재의 신, 창조주자, 소유자, 통치자는 알라후 타알라 이시다. 알라후 타알라의 통치자, 상위자, 그에게 그는 보다도 우월한 존재는 없다고 믿어야 한다. 모든 우월성과, 모든 완벽한 호칭이 알라후 타알라의 것이다. 그에게는, 아무 흠도, 아무 부족한 호칭도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하는 것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보답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일에는, 지혜와 유익과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종들에게 좋은, 유익한 것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의무가 없다. 만약에, 그가 모든 반역자와 죄인을 낙원에 놓다면, 그것은 그의 위대함과 자비에 걸맞다. 만약에, 순종과 경배하는 자들을 다 지옥에 놓다면, 그것은 그의 공의에 걸맞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무슬림들과 예배자들을 천국에로 넣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이며, 이단자들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하실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셨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신다. 모든 피조물들이 알라후 타알라에 믿고, 무슬림이 되고, 순종하는 것은, 알라후 타알라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단자가 되면, 성내거나, 격노하거나 하면, 반대면, 그분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다. 종들이 뭔가 하고 싶을때, 알라후 타알라께서도 원하신다면, 그것은 창조하신다. 그분의 종들의 모든 움직임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알라후 타알라 이시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창조하지 않으시면,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다. 그분은 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단자가 될 수 없다. 누구도 반란할 수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모욕과(불신앙, 신성 모독) 죄들을 원하신도 라도, 그것들에 기뻐하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의 일을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아무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게 는데..”라고 말하고, 이유를 물을 힘이나 권리가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신다면, 다신교나 불신앙을 제외에 어떤 큰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가 원하신다면, 작은 죄 이유로 벌할 것이다. 불신자로, 배교자로 죽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 영원한 고통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무슬림이면서 아흘리 킵레(Ehl-i Kible: 이단 종파에 속한 자)되고 예배하는, 그러나 에흘리리 순나트(Ehl-i Sünnet: 진정한 무슬림) 신조의 맞지 말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처벌할 것이지만, 그런 비다트(Bid'at: 믿음과 예배를 잘못된 무슬림)은 지옥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머리의 눈으로, 알라후 타알라를 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알라후 타알라는, 심판의 날, 묵시록의 자리에서, 이단자들과 죄를 지은 무슬림들에게 분노로, 의로운 진정한 무슬림들에게는,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보일 것이다. 진정한 의로운 무슬림들은, 알라후 타알라를 천국에서 아름다움의 속성으로 볼 것이다. 천사들과 여자들도 그분을 볼 것이다. 이단자들 그 것으로 박탈당할 것이다. 진(Cin: 불의 화염 부분에서 창조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결혼하고, 번식하고, 생신을 할 수 있으며, 먹고 마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박탈당한다는 소식이 유력하다.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의로운 무슬림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마다, 수준이 낮은 자들은 매주 금요일에, 그리고 여자들은, 세계의 명절처럼, 일 년에 몇 번에 알라후 타알라를 보는 명예으로 누릴것이다.)

[Şeyh Abdülhak-ı Dehlevî(셰히 압둘hak이 델리위, 1052, 서기 1642년 델리에서 사망하셨다)성자는, 페르시아어로 텍밀 울리만(Tekmil-ülîmân)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디스 세리프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주인 알라후 타알라를, 열네 번째 달을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세상에서 알라후 타알라를 이해 못지 않아도 알려지는 것처럼, 내세에서도 이해 못하지 않게 볼 것이다. 아불 하산이 에스아리(Ebü'l Hasen-i Eş'arî), 이맘이 수유티(İmâm-ı Süyûtî)와 이맘이 베이헤키(İmâm-ı Beyhekî) 같은 위대한 학자들은, 천사들도 천국에서 알라후 타알라를 볼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이맘이 아잠 아부 하니파(İmâmı a'zam Ebû Hanîfe)와 다른 학

자들은, 진(cin)들이 어떤 보상장점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지만, 무슬림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알려 주신다. 여성들은, 세상에서 명절 처럼 일년에 몇 번 볼 것이다. 진정한 무슬림들은, 알라후 타알라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에 볼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 앞에서 무력하고 궁핍한 나의(이 책을 쓴 사람)의견으로, 무슬림 여자와와 천사들, 그리고 진들도 이 기쁨 소식에 포함된다. 파티마투즈제하라(Fâtmat-üz-Zehrâ), 하티제툴 쿠비라(Hadîcet-ül-Kübrâ), 아이세이스뜨카(Âişe-i Sıddîka) 그리고 다른 예즈와지 타히라트(Ezvâc-i tâhirât: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살람’의 순결하고, 매우 축복받은 아내들, 무슬림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말얌(Meryem)와 아시에(Âsiye)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훈네 예즈마인’ 같은 완벽하고 지식이 풍부한 높은 여성들은, 다른 여자들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적절할 것이다. 이맘이 수유티(îmâm-ı Süyûtî)도 이것을 지적하신다.]

알라후 타알라가 보일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라후 타알라의 일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들과 비슷하지 않다. [물리 및 화학 정보들과 측정할 수 없으시다.] 알라후 타알라는 방향을 없습여, 반대 방향에서 발견되지 않으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물질이 아니시고, 물체는 아니시다. [요소가 아니시다. 혼합물이나, 화합물이 아니시다.] 번호가 아니시다. 그분은 쥔 수 없으시다. 계산할 수 없으시다. 그는 변화가 없으시다. 공간적이지 않으시다. 그는 한 곳에서 있지 않으시다. 그는 시간과 시기적 않으시다. 그는 이전과 이후는, 앞과 뒤는, 아래와 위는, 오른쪽이와 왼쪽이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분의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떻게 보일지 도 이해할 수 없다. 손, 발, 방향, 장소 등과 그런 같이, 알라후 타알라에게 적당하지 않는 단어들이, 아옐 이 케리메(Âyet-i kerîme: 꾸란의 구절)와 하디스 셰리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사용되는 의미들이 아니다. 그러한 꾸란 구절과 하디스 셰리프를 뮤타샤비하트(Müteşâbihât)라고 한다.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된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것을 짧게거나 길게 설명 된다. 즉, 알라후 타알라에게 어

우리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 된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단어는, '힘, 에너지'를 의미한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승천에서 알라후 타알라를 보았시다. 이 보는 것은, 세상에서 머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이 "알라후 타알라를 세상에서 봤다"라고 하면, 그는 존드크(Zındık: 이교 불신자)가 된다. 이슬람 성자들이 '카떼살라후 타알라 에스라레흠 아즈마인'(kaddesallahü teâlâ esrârehüm ecma'în: 알라께서 그들의 비밀을 깨끗하고 거룩하며 축복받기를) 보는 것은, 세상과 내세를 보는 것과 다르다. 즉, 루엣(Rüyet: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 성자들에게 슈후드(Şühûd: 마음과 영혼으로 다양한 수준을 보는 것) 발생한다. [즉,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비슷하게 본다.] 위대한 성자 에윌리야 이 키람 중에서 "봤습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크르(sekr) 상태에서, 즉 의식이 아닌 상태에서, 슈후드를 루엣으로 착각했다. 또는, 적절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다.

질문: 알라후 타알라가 세상에서 머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허용된다고(가능하다고) 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허용되는 것을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불신자가 됩니까?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된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전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도, 없을 수 도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샤리^[1] 종파에서는, 루엣(즉 보기)가 허용되는 뜻이, 이 세상에서 가까이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창조하신 물리적 법칙으로 보는 것 외에, 알라후 타알라께서 사람에게 완전 다른 보는 힘이 창조하실 만큼 전능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다. 예를 들어서,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중국에 있는 어떤 맹인 사람에게 안달루시아에 있는 모기를 보여 주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과 별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전능한 분이시며, 이것은 허용되고 가능하다. 이러한 힘은, 오직 알라후 타알라에게만 유보되어 있다. 둘째는, (알라후 타알라를) 세상에서 봤다, 라고 말하는 것은, 꾸란의 아예티 케리메와 이슬람 학자들의 따르면,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그런 말

[1] Eş'arî(아불하산 알리 빈 이스마일 에스아리, 330 서기 941년 바그다드에서 사망하셨다.)

을 하는 사람은, 물히드(Mülhid: 구절과 하디스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모르게 이슬람교를 떠난 이단자, 불신자) 또는, 존드크(Zindik: 어떤 종교에 믿지 않고, 알라후 타알라를 믿지 않지만, 무슬림 척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바꾸는 이슬람의 적, 사이비, 맹렬한 불신자)가 입니다. 세 번째 대답으로, 세상에서 루예트(보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그분을 세상에서, 물리학 법칙이와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를 봤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처럼 그를 봤다 고 말한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보는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 교에서 탈퇴하게 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물히드 또는 존드크 이라고 한다. 메블라나 할리드(Mevlânâ Hâlid) '라드알라후 안흐'은 이 답변들 후에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대답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나다. [물히드와 존드크는, 그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말한다. 물히드의 이 말은 진심이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올바른 길에 있다고 믿는다. 근데 존드크는, 이슬람의 적이다. 그는 이슬람을 내부에서 파괴하고, 무슬림들을 속이기 위해 무슬림인 척 한다.]

알라후 타알라에게 낮과 밤과 시간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알라후 타알라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도 이렇게나, 그렇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알라후 타알라는 아무것도 관통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과 결합하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가 하드라트(Hazreti: 성자) 알리에 관통하다"고 말하는 누사이리(Nusayrî)라고 불리는 시이(Şî'î) 종파들은 불신자다.] 알라후 타알라의, 반대, 비슷한게, 파트너가, 도와주는 사람이나, 보호자 같은 것은 없다. 그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배우자가 없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둘러싸 계시고 보시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 정맥 보다 더 가깝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항상 준비하시고, 포위하시고, 함께 있고 가까이 계심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분의 가까이 하심은, 이슬람 학자들의 지식, 과학자들의 지성과, 이슬람 성자들 '카떼살라후 타알라 에스라레흠 에즈마인'의 케쉬(Keşf: 발견, 에월리야, 즉 이슬람 성자들은, 느낌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오는 영감을 통해 알아는 것)과 그리고 슈후드(Şühûd: 위대한 에월리야 의 마음과 영혼으로 보는 것)과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것들의 진실의 내면을, 사람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자티예, 수부티예)호칭과 속성에서 어직 하나이며, 그 중 어느 것에도 변경이나 달라지는 건 없다. 테펙케루 피 아라일라히 왜 라 테테펙케루 피 자틸라히 (Tefekkerû fî âlâillâhi ve lâ tetefekkerû fî zâtillâhi: 알라후 타알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온 생물과 피조물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숙고하십시오.) 메크투바트(Mektûbât)책의 1권, 46.편지를 읽어 주세요!

알라후 타알라의 이름들은 테브키피(Tevkîfî)이다. 즉, 이슬람에서 계시된 알라후 타알라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예를 들어, 알라후 타알라는 알림(Âlim: 성자)라고 불린다. 그러나, 알림(학자)를 의미하는 Fakîh(파키흐)라고 말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에는 알라후 타알라를 파키흐 라고 말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알라후 타알라” 이름은 대신에 “신”을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 숭배와 경배받는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들의 신은 소이다” 라고 말한다. “알라후 타알라는 오직 한 유일한 분이시고, 알라후 타알라 외에는 신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언어들에 Dieu, Gott 및 God 이라는 단어들도, 신, 하나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알라후 타알라의 이름을 대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알라후 타알라의 이름들은 영원하시다. 천일 명 이름이 있다는 것이 유명하다. 즉,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의 1001명 이름은 사람들에게 보고되셨다.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의 종교에서는, 그들 중 99명은 보고되셨다. 이것들은, 에스마이 후스나(Esmâ-i hüsnâ)라고 하신다.

알라후 타알라의 자티예 호칭들은 6개 있다. [위에서 알려줬습니다.] 그의 수부티 호칭들은, 마투리디이에(Mâtûrîdiyye)종파에서 8개다. 에샤리이에(Eş'ariyye) 종파에서 7개 가지다. 그의 이 호칭들도, 알라후 타알라와 마찬가지로, 태곳적부터 영원에서 영원합니다. 즉, 그의 호칭들은 영원히 존재이시다. 거룩하며 완벽하시다. 피조물의 호칭들과 같지 않다. 이성으로, 추측으로,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비슷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알라후 타알라는, 이러한 호칭들의 한 가지 예를, 사람들에게 증여하셨다. 이것을 보면, 알라후 타알라의 호칭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알라후 타알라

를 이해할 수 못다기때문에, 알라후 타알라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의 8가지 수부티에 호칭들은, 그분의 동일도, 다르지도 않다. 즉, 그의 호칭들은, 알라후 타알라 자신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지도 않다. 이 8 호칭들은:

하야트 Hayât(생명, 살아 있는), 일림 ilm(지식, 알고 있는), 쎄 Sem(듣고 있는), 바사르 Basar(보고 있는), 쿠드레트 Kudret(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강함이 있는), 켈람 Kelâm(말하고 있는), 이라데 irâde(의지, 소원하는), 텍빈 Tekvîn(창조하는)이다. 예샤리에 종파에서, 텍빈 호칭과 쿠드레트 호칭은 똑같은 의미다. 메시예트 (Meşîyyet)도, 의지를 의미한다.

알라후 타알라의 8가지 호칭들은 고정이다.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다. 이 호칭들 중에 어느 것에도 아무 변화는 없다. 그러나, 생물과의 연결 측면에서, 각각은 많다. 이 호칭은, 피조물들의 연결과 영향력에서 많다는 것이, 이걸 고정적이되는 것에 해를 끼치지 않다. 이와 같이, 알라후 타알라는 이렇게 다른 많은 다양한 생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모든 순간에도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는, 여전히 유일한 분이다. 그분에게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매 순간에, 모든 면에서 알라후 타알라를 필요로 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2 — 믿어야 할, 신앙하는 것이 필요한 여섯 가지 중 두 번째는: (알라후 타알라의 천사들에게 믿는 것이다.) 천사는, 메신저, 정보 제공자 또는 힘을 의미한다. 천사들은 몸이 있다. 그들은 라티프(Latîf: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기체 상태보다 더라티프, 즉 확연하지 않다. 그들은 누라니(Nûrânî: 밝은, 빛나는)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고, 영리한다. 사람들의 악들은, 천사들에게 없다. 그들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기체가, 액체와 고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체일 때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아름다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천사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몸을 떠나간 영혼들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천사들을 이런 영혼라고 생각한다. 천사들은 에너지와 힘처럼 물질이 없는 것들이 많다. 고대 철학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천사들에 멜라이케(Melâike)라고한다. 천사들은, 모든 생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이것 때문에, 책들을 믿기 전에 천사들을 믿어야 한다고 보

고되었다. 책들에 믿음도, 예언자들에 믿음 이전에 있다. 꾸란알 케림에서 믿어야 할 것들의 이름이, 이 순서대로 언급되어 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해야한다: 천사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하인들이다. 그들은 알라의 파트너가 아니다. 그들은 알라의 딸이 아니다. 불신자들과 다신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들에 복종한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다. 그들은 명령에 반항하지 않다. 그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다. 그들은 아이가 없다. 그들은 생명이 있고, 살아 있다. 성자 압둘라 입니 메수드 Abdüllah ibni Mesûd '라드알라후 안흐'의 소식에 따르면, 천사들 중에 자식이 있는자들도 있고, 그 중에 사탄과 진도 있다고 전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책들에서 길게 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사람들을 창조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어 주인님 알라후 타알라! 세상을 엉망 하고, 유혈이 만드는 피조물들 창조하실 거십니까?” 이와 같이 천사의 켈레(Zelle: 본의 아니게 실수하다, 잘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천사들의 순결함과, 죄가 없다는 것을 해치지 않다.

가장 많은 피조물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의 수는 알라후 타알라 외에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배하지 않는 단 한 빈틈이도 없다. 하늘의 모든 부분은 류큐(Rükû: нама즈에서 무릎에 손을 얹고 절하는 것)와 세지데(Secde: нама즈에서 부복 하는 것) 하는 천사들로 가득하다. 하늘에, 땅에, 풀에, 별에, 살아있는 것에, 무생물에, 빗방울에, 나무의 잎사귀에, 모든 분자, 모든 원자, 모든 반응, 모든 움직임, 모든 것에서 천사들이 임무를 있다. 모든 곳에서 천사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들을 수행한다. 천사들은, 알라후 타알라와 그의 피조물들 사이의서 중재자다. 어떤 천사들은, 다른 천사들의 상위다. 어떤 천사들은, 예언자들에게 소식을 가지고 온다. 어떤 천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함(ilhâm: 영감, 신성한 계시) 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가져다준다. 어떤 천사들은,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아름다움을 앞에서 황홀한다. 각자의 분명한 위치가 있다. 거기에서 떠날 수 없다. 어떤 천사들은 두 개, 어떤 천사들은 네 개, 또는 이상으로 날개를 가지고 있다. [모든 동물의 날개와 비행기의 날개들은, 각자의 구조고, 그 구조가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 처럼, 천사들의

날개도 그 종류가 있다. 사람은, 보지 않고, 알지 않는 뭔가의 이름을 들으면, 이건 아는 것들과 비슷한 줄 알고 속는 것이다.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교회와, 일부 잡지와, 영화에서, 천사라고 보여주는 날개가 있는 여성의 그림들은 조작이다. 무슬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이 잘못된 그림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적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천국 천사들은, 천국에서 있다. 그들 중 가장 높은의 이름은 르드완(Ridvân)이다. 지옥의 천사들을 제바니(Zebânî)라고 한다. 그들은 지옥에서 명령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지옥불은 그들에게 해치지 않다. 이것은, 바다가 물고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제바니(지옥의 천사)들 중에 지위가 높은 천사들은 열아홉이다. 가장 높은의 이름은 말리크(Mâlik)이다.

모든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모든 행동들을 기록하는, 2명은 밤에, 2명은 낮에 오는 4명 천사들에, 키라멘 카티빈(Kirâmen kâtibîn) 또는 하파자(Hafaza)천사들 라고 불린다. 하파자 천사들은, 이 천사들과 다르다는 말씀도 있다.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왼쪽에 있는 천사의 관리자고, 선행과 예배를 기록한다. 왼쪽에 있는 천사는, 악행들을 쓴다. 무덤들에, 이단자들과 반항적인 무슬림들을 고통히는 천사들과, 무덤에서 질문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 질문 하는 천사들은 문케르와 네키르(Münker, Nekîr)라고 불린다. 무슬림들에게 묻는 천사들은 뮈베시르와 베시르(Mübeşşir, Beşr)라고도 한다.

천사들은 서로에게 우월한 순위들이 있다. 가장 우월한은 4천사다. 이들 중에 첫 번째는, 지브릴(Cebrâîl) '알라이히셀람'이다. 그분의 직무는,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전하고, 명령과 금지들을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르(Sûr)라는 뿔나팔 파이프를 부는 천사 이스라필(İsrâfil) '알라이히셀람'이다. 그는 수르 파이프를 두 번 불 것이다. 첫번째에는, 알라후 타알라를 제외한 모든 사라 있는 것들이 죽을 것이다. 두 번째에는, 그들은 모두 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카일(Mikâil) '알라이히셀람'이다. 싸와 비싸다는, 결핍과 풍요다는, 경제질서는,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물질들을 움직이게 하는게 그분의 직무다. 네 번째는, 아즈라일(Azrâîl) '알라이히셀람'이다. 이 천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져간다. [영혼은, 페르시아어로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네 천사 후에는 가장 우월한 천사들, 네 부류 나눈다. 하멜레이 아르스(Hamele-i Arş)라고 불리는 천사들은, 네 개의 곡물이다. 심판의 날에 그들은 여덟 명이 될 것이다. 위대한 알라후 타알라 앞에서 있는 천사들을, 무카레빈(Mukarrebîn)이라고 한다. 형벌의 천사들의 제일 높은들에, 케루비얀(Kerûbiyan)이라고 불린다. 자비의 천사들은, 루하니얀(Rûhaniyân)이라고 한다. 이 천사들은, 모든 다른 천사들 보다 지위가 위대하며, 우월한다. 이 천사들은, 예언자들'알레이히류싸레바툼 왓테스리마트'(alehimüssalevâtü vetteslîmât: 기도와 존경의 표현) 제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더 우월한다. 무슬림들의 성자 에윌리야, 그리고 진정한 의로운들이, 평범한 천사들에, 즉 지위가 낮은 천사들에 보다, 더 유덕하고 더 우월한다. 평범한 천사들은, 평범한 무슬림들 보다, 즉 반항적인자와 죄인 무슬림들 보다, 더 유덕한다.

반면에 이단자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낮다. 수르 나팔을 처음 불 때는, 네 우월한 천사들과, 하멜레이 아르스 외에는, 모든 천사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 후에는, 하멜레이 아르스와 그 다음에는 우월한 4명의 천사는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에는, 먼저 모든 천사들 부활할 것이다. 하멜레이 아르스와 함께 이 네 천사는, 두 번째 수르 파이프를 불리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이 천사들이 모든 생물보다 먼저 창조된 것과 같이, 모든 생물 후에 멸망한다는 뜻이다.

3 — 꼭 믿어야 하는 여섯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보내신 책들에 믿는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 책들을 천사를 통해, 어떤 예언자들의 축복받은 귀에게 말하고, 어떤 예언자들에게 서면으로, 어떤 예언자들에게 천사가 없이 예언자에게 듣거셨고, 보내주셨다. 이 책들은 모두,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이시다. 이 책들은 태곳적부터 영원에서 영원하시다. 이것들을 피조물이 아니다. 이것은 천사들이나 예언자들 자신의 말들이 아니다.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은, 우리가 쓰고, 정신에 간직하고, 말하는 말씀과 같지 아니다. 글에, 말에, 정신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단어나 소리는 아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와, 그분의 호칭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못한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의 그 말씀은 사람들이 읽다. 마음에 외우고, 쓴다.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생물이자 하디스 된다. 즉,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중에 생성되었으며 존재하게 되었다.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원하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계시하신 모든 책들은 올바르고, 정확하다. 거짓말이나, 틀릴 수는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처벌과 형벌을 줄 것이다”고 하신 다음에, 용서하시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나, 또는 그분의 의지와 원함에 달려 있다. 또는, 종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용서하신다는 의미한다. 형벌과 고통을 보고하는 말은, 무언가의 기별이 아니므로, 용서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베푸지 않는 것은 있을수 없지만, 그가 벌들은 용서하신 것은 가능하다. 이성과 꾸란의 구절도, 모두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장애물이나 문제가 없으면, 꾸란 구절과 하디스 셰리프들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들에 비슷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꾸란알 케림와 하디스 셰리프들은, 꾸라이스(Kureys) 사전과 방언으로 되어 있다. 단어들에, 1400년 전에, 히자즈(Hicâz: 아라비아 서부에 있는 지역)에서 사용된 의미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간에 시대에 따라 변한, 오늘날에 사용되는 의미들을 주면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뮈테샤비하트(Müteşâbihât)라고 하는 아예티 케리메(꾸란의 구절)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숨은 의미들이 있다. 이것들의 의미들은, 오직 알라후 타알라에게서만 아시고, 그리고 일미 레둔니(ilm-i Ledünnî)라고 하는, 소수 선택된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들은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뮈테샤비하트 구절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며, 그 의미들을 조사하지 아나야 한다. 예샤리 종파의 학자들은, 그러한 구절을, 간략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테윌(Te'vîl: 해석)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윌은, 단어의 다양한 의미 중 유명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Feth(페트히) 구절에서, “알라의 손은, 그들의 손 위에 있다.” 라는 아예티 케리메는,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이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것으로 무엇을 전하고자 원하셨어도,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의 의미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같지 않다. 그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

와 비슷하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께의 손은, 종들의 손과 같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보내신 책들에서는, 일부 구절들만 혼자 읽거나, 또는 혼자 의미만, 또는 둘 다 네스히(Nesh: 폐지하다)를 하였고, 알라후 타알라께서 의해 변경되었다. 꾸란알 케림은, 모든 책들을 네스히 하면서, 그것들의 조항들을 폐지했다. 꾸란알 케림에서는, 심판의 날까지, 어떤 시대에, 어떤 실수, 망각, 과잉 또는 부족도 없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과학은, 꾸란알 케림에서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모든 신성한 책들보다 우월하고 가치가 있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꾸란알 케림이다. 모든 사람들과 진(Cin: 불의 화염 부분에서 만들어지며,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결혼하고, 번식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만약에 모여서, 꾸란알 케림의 가장 짧은 구절과 비슷한 한 단어를 하려고 노력 해도 여전히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라비아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시인들이 모였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짧은 꾸란 구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꾸란알 케림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악스럽고 놀랐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슬람의 적들을 꾸란알 케림 반대에서 무력화시키고 무찔렀다. 꾸란알 케림의 웅변은, 사람의 힘과 능가한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하다. 꾸란알 케림의 구절들은, 사람들의 구문과, 측정되지 않은 확장와, 운율이 있는 단어들에 유사하지 않다. 이것들과 함께, 아라비아에서 문학가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말했다.

신성한 책들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104명이다. 10명의 작은 책자는 아DEM(Âdem) 알라이히셀람에, 50명의 작은 책자는 시트(Şis-Şît) 알라이히셀람에게, 30명의 작은 책자는 이드리스(idris) 알라이히셀람에게, 10명의 작은 책자는 이브라힘(ibrâhîm)알라이히셀람에게 제시된 것은 유명한다. 토라(Tevrât) 책은 모세(Mûsâ) 알라이히셀람에게, 시편(Zebûr)책은 데이비드(Dâvud) 알라이히셀람에게, 성경(İncîl)책은 예수(İsâ) 알라이히셀람에게, (Kur'ân-ı kerîm) 책은 무함마드(Muhammed) 알라이히셀람에게 제시되었다.

어떤 사람이,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소식을 전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생각하고, 준비한다. 마음에 있는 이러한 의미를 켈람으 네프스(Kelâm-ı nefsi) 이라고 부

른다. 이러한 의미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또는 터키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들에 켈람의 라프지(Kelâm-ı lafzî) 라고 한다. 켈람의 라프지는, 다양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켈람의 라프지는, 다른 형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식, 의지, 보다...'와 같은 켈람(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의 소유자에게서 발견되는, 단순하고, 변경할 수 없는, 별도의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켈람의 라프지는, 켈람의 네프스를 설명하는, 사람의 귀에 와서 화자의 입에서 나오는 글자들의 모음이다. 여기에서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은, 연설은 침묵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지만 그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전 영원하고 영원한 연설이다. 자티예 호칭들에서 지식과 의지 같은, 수부티예 호칭들에 다르게 제외한, 그 자체로 형용사다.

형용사 칼람도 간단하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다. 모음으로도, 글자로도 아니다. 질서, 금지, 통지 같은 그리고 아랍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터키어 또는 시리아어와 같은 변형, 변경 또는 단편화가 없다. 그런 모양을 취하지 않다. 쓸 수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말씀은, 생각과, 귀와 혀 같은 도구와,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언어로 말하고 싶어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랍어로 말하면, 꾸란알 케림 이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이다. 시리아어라면, 성경적이다. [(Şerh-ul-mekâsid)^[1] 책에서, 그리스어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고, 시리아어로 말하면 시편이라고 합니다.]

켈람의 일라히(Kelâm-ı ilâhî: 신성한 말씀)은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 스토리, 즉 이벤트를 보고하면 (뉴스)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샤(inşâ) 된다. 꼭 해야 할 일들을 선언하면 (명령)이 된다. 그가 금지를 선언하면 그는 (금지)가 된다. 그러나, 신성한 말씀에는 변화나 증가가 없다. 계시된 모든 책과 페이지는 알라후 타알라의 칼람 호칭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들은 켈람의 속성, 즉 켈람의 네프스에서 나온다. 아랍어일 때, 꾸란알 카림이다. 단어 있고, 쓰고, 말하고

[1] 세르흐 메카시드(Şerh-ül-mekâsid) 책은, 사둔딘 테프트자니(Sa'düddîn Teftâzânî)가 작성하며, 792 [서기 1389년]에 사마르칸트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듣고, 마음에서 기억하고, 순서대로 나오는 계시들속에 ‘켈람의 라프지’ 그리고 ‘꾸란알 케림’ 이라고 한다. 이 켈람의 라프지는, 켈람의 네프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한 칼람(말씀)과 신성한 속성(호칭)이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들이 모두 꾸란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것의 부분들도 꾸란이라고 불린다.

켈람의 네프스는, 나중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카딤 이라는 것을, 올바른 길의 학자들은 만장일치로 말했다. 켈람의 라프지가, 하디스(나중에 창조된) 또는 카딤이(영원한) 되는 대해 만장일치는 없다. 하디스 이라고 부른 사람들 중 일부는, 켈람의 라프지는 하디스 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라고 했다. 만약에, 하디스라고 부른다면, 켈람의 네프스는 하디스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해냈다. 최고의 말씀도 이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언가를 지적하는 것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내용을 기억한다. 에흘리 순나트의 진정한 학자들한테, “꾸란알 케림은 하디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읽는 소리와 말들이 창조된다고 말한다. 에흘리 순나트의 진정한 학자들은 만장일치로, 켈람의 라프지도, 켈람의 네프스도, 모두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 이라고 말했다. 이 소위 은유적 길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칼람의 네프스는 알라의 말씀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알라후 탈라의 켈람 호칭이(말씀 속성이)입니다, 라는 뜻이다. 켈람의 라프지는 알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의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위의에서 글들을 보면, 알라후 타알라의 영원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내가 알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는 것은, “읽는 그 소리와 단어들을 들었습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암송한 음성과, 영원 이전의와 영원한 켈람의 네프스를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모든 예언자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들을 수 있다. 무사 ‘알레이히셀람’만을 켈리물라흐(Kelîmullah: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분에게 말하신’ 뜻이 있는 무사 알레이셀람의 별명)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변: 무사 알레이히셀람은, 알라후 타알라의 관습과 별개로, 단어가 없고 침묵한 것으로, 켈람의 에젤리(영원 말씀을) 들었다. 천국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로 알라후 타알라께서 보일 것처럼, 무사 알레이히셀람 알라후 타알라를 설명 할 수 없

는 것으로 들었다. 다른 누구도, 그런 식으로 들은 적이 없다. 또는, 알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 하지만, 귀로만 들은거 아니다. 그의 몸의 모든 입자는, 모든 사방에서 들었다. 아니면 오직 나무 의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는 아니었다. 그는 공기 진동이나 다른 사건들로 듣지 않았다. 그는 이 세 상태 중 하나에 들었때문에 켈리물라흐(Kelīmullah)라는 이름을 얻었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라투 왜셀람’은 승천의 밤에서 신성한 말씀을 들었을때, 그리고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은 계시를 받는 동안 들었을때 이것과 같다.

4 — 신앙하고 믿어야 할 여섯 가지 중 네 번째는, (알라후 타알라의 예언자들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을, 알라후 타알라께서 좋아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 파견되었다. 루술(Rūsūl)은 예언자들 의미한다. 사전적에서 보낸 분과 소식을 전하자를 의미한다. 이슬람에서 라술(Resûl)이라는, 성품, 지식, 지성으로, 그 시대에서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한, 귀한, 완벽한 분을 의미한다. 그는 아무 나쁜 습관도, 그를 좋아하지 만드게 하는 아무것도 없다. 예언자들에게 이스메트(ismet) 호칭이 있다. 즉, 그들은 예언자로 선포되기 전과 후에는, 아무 작거나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내부에서 파괴하려고 싶은 이단자들,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은, 아직 예언자가 되기 전에, 조각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그 말에 증거라고 종파가 없는자(이슬람의 올바른 종파들 중 어느 것도 믿지 않거, 받아들이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들을 문서로 보여준다. 이 추악한 비방이 거짓임이라는 것을, 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로 선포된 후에, 선지자임을 퍼지고 알기 전까지는, 눈멀고 귀머거리와 같은 것들을, 흠이나 잘못들을도 없다.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일곱 가지 호칭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Emânet(에마네트: 신뢰할 수 있는), sîdk(스드크: 솔직히 진실 말하는), teblîg(테블리그: 공고하는), adâlet(아달레트: 정당성), ismet(이스메트: 예언자들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알라의 보호를 받았는), fetânet(페타네트)와 (emnül-azl)에미눌 아즐르. 즉, 예언자들은 예언에서 제거되지 않다. 페타네트는, 매우 지능적인, 영리한, 이해심이 많다는 의미한다.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예언자에 라술(Resûl: 메신저)라고 한다. 새로운 종교를 가져오지 않고, 사람들을 이전 종교로 초대하는 예언

자에 네비(Nebî)라고 한다. 명령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알라후 타알라의 종교로 초대하는 것에, 라술와 네비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예언자들에 믿는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어무 차이를 보지 않고, 그들 모두가 정직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미한다. 예언자들 중에서 딱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언자들 모두 다 믿지 않는 것처럼 된다.

예언자 되는 것은; 일하고, 굶고, 고생하고, 많이 예배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알라후 타알라의 호의와 선택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 세상과 내세에게 사람들의 일들은 올바르게 유용하게 되기 위해, 그리고 해로운 일로부터 보호하고, 평화와, 행복으로, 편안하를 주기 위해, 예언자들을 통해 종교들을 보내셨다. 예언자들은 많은 적들이 있고, 그 적들이 놀리 하고, 슬프게 만들었지만, 예언자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믿음에 초대하고, 해야하는 명령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적들한테 두려워하지 않았고, 눈 깜박이지도 않았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예언자들이 정직하며, 진실을 말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강화해셨다. 아무도 이 기적들에 반대할 수 없었다. 예언자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 그 예언자의 움마(Ümmeti: 움메티)라고 한다. 심판의 날에, 움마 중에 많은 죄를 지은자들에게 예언자들이 중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그들의 중재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움마에서, 진실한 위대한 의로운 사람들도,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중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그들의 중재를 수락하실 것이다. 예언자들은 ‘알레이히류쌀레와트류 왓테스리마트’, 그들의 무덤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이란 살고 있다. 그들의 축복받은 몸을, 토양은 썩수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이유로, 하디스 셰리프에서, “예언자들은, 무덤에서 нама즈 하고, 순례를 수행한다” 라고 하신다.

[이제 아라비아에서 있는 와하비(Vehhâbî)라는 사람들은, 이 하디스 셰리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는 의로운 무슬림들에 이단자라고 부릅니다. 의미들이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나스(Nass: 아예티 케리메들과 하디스 셰리프)를 잘못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들 불신자가 아닌데도, 비다트(Bid'at) 소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무슬림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Vehhâbîlik(와하비즘)은,

Muhammed bin Abdülvehhab 라는, 네즈드(Necd: 아라비아 반도 중간에서 있는 위치한 지역)에서 출신, 멍청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국 스파이 Hempher은, İbni Teymiyye^[1]의 왜곡된 아이디어를 인용하여, 그를 속였습니다. 이집트인 Abduh^[2]의 책들과 함께, 터키인들에 그리고 모든 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은 다섯 번째 종파에서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이슬람 학자들은 수백 권의 책들에서 알려줍니다. Se'âdet-i ebediyye(영원한 행복) 책과 Kıyâmet ve Âhîret(심판의 날과 내세) 책에서, 이것들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젊은 성직자들을, 영국인이 만든 와하비즘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하디스 셰리프들에서 칭찬하는 진정한 이슬람 에흘리 순나트(Ehl-i Sünnet) 학자들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예언자들의 ‘알레이히류셀람’ 복된 눈은 잠들어슬때, 마음의 눈은 잠들지 않다. 모든 예언자들은, 예언의 예언자의 의무를 완수하고, 예언자의 우월성을 갖는 면에서 평등한다. 위에서 보고한 7가지 사항은, 모든 예언자들에 있다. 예언자들은, 예언에서 제거되지 않고 예언자직에서 해임되지 않다. 하지만, 에윌리야(성자)정도는 해임될 수 있다. 예언자들은 ‘알레이히류쌀레와튀 왓테스리마트’, 사람들에서 된다. 진도 천사도, 인간들에 예언자 될 수 없다. 진과 천사는 예언자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 예언자들은 서로에 사이에 명예들과 우월성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많은 움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 파견된 국가는 큰 되는 것, 그의 지식과 재능은 여러 곳으로 퍼졌고, 기적이 더욱 많아지고 계속되며, 특별한 가치와 축복을 받는 등 그들의 우월성 측면에서, 종말의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모든 예언자들보다 우월한다. 울룰아짐 예언자들은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 보다, 그리고 라술들은 라술(전령이)아닌 네비(새로운 종교를 가져오지 않는, 이전 종교에 초대하는 예언자)들 보다 우월한다.

예언자들 ‘알레이히류쌀레와튀 왓테스리마트’의 수는 확실하

[1] Ahmed ibni Teymiyye, 728 [서기 1328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사망 했다.

[2] Muhammed Abduh, 1323년 [서기 1905년]에 이집트에서 사망 했다.

지 않다. 예언자들은, 124.000 명이 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 중에 313 또는 315 명이 라술이다. 이 중에서도 6개가 더 높다. 그들에, “울룰아짐(Ülül’azm) 예언자들”라고 불린다. 울룰아짐 예언자들은, Âdem(아담), Nûh(노아), İbrâhîm(아브라함), Mûsâ(모세), Îsâ(예수) 그리고 Muhammed Mustafâ(무하마드 무스타파)입니다 ‘알라 이히무살라투 와살람’.

예언자들 중에서 33명은 유명하다. 이들의 이름들은: Âdem, Şit 또는 (Şîs), İdrîs, Nûh, Hûd, Sâlih, İbrâhîm, Lût, İsmâ’îl, İshak, Ya’kûb, Yûsûf, Eyyûb, Şu’ayb, Mûsâ, Hârûn, Hıdır, Yûşa’ bin Nûn, İlyâs, Elyesa’, Zülkifl, Şem’un, İsmoil, Yûnûs bin Metâ, Dâvûd, Süleymân, Lokmân, Zekerıyyâ, Yahyâ, Uzeyr, Îsâ bin Meryem, Zülkarneyn 그리고 Muhammed ‘알레이히베 알레이히무살레와투 왜셀람’ 입니다.

그들 중에 아직 28명의 이름만이 꾸란알 카림에 언급되었다. Şît, Hıdır, Yûşa’, Şem’un 그리고 İsmoil 언급되지 않다. 이 예언자들 28명 중에서 Zülkarneyn, Lokmân, Uzeyr와 Hıdır은, 예언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크투바트 마수미예(Mektûbât-ı Ma’sûmiyye)책에서, 2권 36번째 편지에는, 흐드르 ‘알레이히셀람’은, 예언자라는 소식들이 강하게 기록되었다. 182번째 편지에서, 흐드르 ‘알레이히셀람’은, 아직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는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흐드르 알레이히셀람와, 그와 같은 많은 예언자들 및 에윌리아 성자들의 영혼들이 인간의 형태로 보이도록 허용했다. 그들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다. Zülkifl 알레이히셀람의 두 번째 이름은 Harkıl이다. 이분은, İlyâs 또는 İdrîs, 또는 Zekerıyyâ 알레이히셀람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브라힘 알레이히셀람은, 할릴울라흐(Halîlullah)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알라후 타알라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의 사랑이도 없기 때문이다. 무사 알라이히살람은, 켈리물라흐(Kelîmullah)이다. 그는, 알라후 타알라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 사 알라이히살람은, 켈리마툴라흐(Kelimetullah)이다. 그분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켈리메이 일라히, 신성한 말씀(되)으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알라후 타알라의 현명함으로 가득한 말씀들을,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귀에게 전

달했다.

아담의 아들(첫 사람 아담 예언자의 후손; 모든 인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사람이며, 그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원인이 되는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하비불라흐(Habîbullah)입니다. 그는 하비불라흐이며, 그가 위대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패한다 같은 말들은 말할 수 없다. 심판의 날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심판의 장소로, 그는 제일 먼저 갈 것이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의 기적들은 셀 수 없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힘은 부족해라도, 승천 기적을 써서, 우리의 글을 장식합시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 침대에서 있을때 일어났고, 축복받은 몸이 메카의 도시에서, 예루살렘의 Mescid-i aksâ(성원 알 아크사 모스크) 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 까지, 그 후에는 일곱번째 하늘에, 그 다음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시는 모든 곳에서 데려갔다. 승천에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스마일리 이단 종파에서 있는, 그리고 이슬람 학자로 위장한 종교의 적들이, “승천은 황홀경 상태였고, 그것은 영혼으로만 일어난 있었고, 몸과 가지 않다” 라고 글을 써서, 젊은 이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한 부패한 책들을 사거나, 그것들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승천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귀중한 책들에, 예를 들면 (Şifâ-i şerîf)^[1]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Se’âdet-i ebediyye)책에서도 광범위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라이히셀람은, 메카이 무카라메에서 (Sidre-tül-müntehâ) 까지,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과 함께 갔다. 신레툴 문테하(Sidre-tül-müntehâ)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하늘에 있는 나무다. 모든 지식들과 모든 상승들이, 거기에서 앞으로 통과할 수 없다. 우리 예언자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은, 신레툴 문테하 나무에서,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을 600개의 날개와 자신(천사)의 형태로 보았었다.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은 신레툴 문테하에서 머물렀다. 우리 예언자는 메카에서 예루살렘 까지, 또는 일곱 번째 하늘에 까지 (Burak)의 위에서 옮겨졌다. 부라크

[1] Şifâ-i şerîf(치유)책을 저술한 Kâdî İyâd Mâlikî는, 544 [서기 1150년]에 메라쿠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Burak)는, 흰색 색깔이고, 노새보다 작고 당나귀보다 큰 천국의 동물이다. 세계의 동물 중 하나가 아니다. 그에게는 남성다움도 여성다움도 없다. 부라크는 매우 빨리 간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멀리까지 한발을 내디딘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은, 성원 알 아크사에서, 예언자들에 이맘(imam: 함께 하는 공동기도 즉 нама즈를 인도하는 사람) 되었고, 밤 또는 아침 нама즈를 인도했다. 예언자들의 영들은, 자신들의 사람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일곱째 하늘까지 (승천:Mi'râc)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사다리로 순식간에 올라갔다. 가는 길에 천사들이, 좌우로 줄지어 서서, 라수룰라를 찬양했다. 라수룰라는 모든 하늘에 올 때마다, 제브라일 알레이히셀람은, 라수룰라 왔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늘들에 각각에서, 그는 하나 예언자들 보시고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신레(Sidre) 나무에서 놀라운 많은 것들을 보았다. 그는 천국에서 있는 축복들과, 지옥에서 있는 고통들을 보았다. 전능하신 알라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기쁨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축복들 하나도 보지 않았다. 신레로부터 앞으로, 혼자만, 빛들 사이에서 나아갔다. 천사들의 펜 소리를 들었다. 칠만 개의 장막을 통과했다. 두 막 사이는, 오백 년의 여행과 같았다. 이 후에는, 태양보다 밝은 (Refref)라는 매트리스에서, 강단(Kürsi: 알라의 권세와 위엄. 가장 높은 9번째 하늘의 아래서, 하늘의 레이어)의 통과했다. 그는 아르스 일라히(가장 높은 9번째 하늘, 신성한 왕좌)에 도달했다. 그는, 하늘, 시간, 장소 및 물질 세계들 밖에 나갔다. 그는, 전능하신 알라후 타알라께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시간과 장소 없으며, 내세에서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보여질 것처럼,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상태에서 알라후 타알라를 보았다. 그는 소리와 단어 없이, 조용히 알라후 타알라에 말했다. 그는 알라후 타알라에게 감사하고, 칭찬과 찬미를 했다. 그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대접과 영예를 받았다. 그의 자신과, 그의 사람들(Ümmet: 움마, 움메티)에게는 50 번의 시간 예베 нама즈가 파르즈(의무적)이었지만, 모세 알레이히셀람의 표징으로, 점차 5번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전에는, 오전과 오후 또는 밤기 예베들만 했었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그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대접들과 축복들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이 후에는 자기 침대에 왔다. 그의 자리는 아직 좁지

않았었다. 우리가 전달한 것들 중에 일부는, 구절 아예티 케리메들로, 일부는 하디스 셰리프들로 보고되었다. 그것들을 모두 다 믿는 것은 와집(명령) 아니지만, 에흘리 순나트의 학자들이 보고되었때문에, 이 소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무슬림의 길 에흘리 순나트에서 분리될 것이다. 구절과 하디스를 믿지 않는자들은 도, 이단자가 된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세이둘 엔비야(Seyyid-ül-enbiyâ)라는 것은, 즉 모든 예언자들 ‘알레이히뮤살레와튀 왓테스리마트’ 보다 가장 우월한 것을 보여주는 무수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예언자들 ‘알레이히뮤살레와튀 왓테스리마트’은, 그의 우현 아래에 음영이 표시될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나의 창조물들 중에, 내가 선택하고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무함마드 알라히셀람은 예언자가 된 시기에 이르면, 그를 믿고, 그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명령하셨다. 모든 예언자들은, 자신의 움마에게 그러한 의지와 명령을 했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하템울 엔비야(Hâtem-ül-enbiyâ)이다. 즉, 그의 후에는 전혀 예언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축복받은 영은 모든 예언자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예언자의 권세는, 제일 먼저 그에게 주어졌다. 예언은, 그가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이사 알라이히살람은, 최후의 날을 향해, 다가옴에 따라, 하드라트 메흐디 성자 시대에, 하늘에서 다마스쿠스로 내려오더라도, 그는 세상에서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의 종교를 지상에 퍼뜨릴 것이다. 그의 움마에서 될것이다.

[히즈리 카메리(음력)1296년과, 서기 1880년에, 인도에서, 영국인들 만든 (Kâdiyânî)라는 변태들이, 이사 알레이히셀람에 대해 도거짓말과 추악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지만, 이슬람을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다. 이슬람 학자들은 그들이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그들에 (Ahmedî)라고도 한다.

인도에서 등장한 비다트족과 이단자들 중에 하나는, (Cemâ'atüt-tebliğiyye) 종파입니다. 이건 1345년 [서기 1926년]에서, İlyâs라는 무지한 사람이 설립했다. 그는 “무슬림들이 길을 잃었다

. 나는 그들을 구하라는 명령을 꿈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이교 교사인들, Nezîr Hüseyin, Reşîd Ahmed Kenkühî 및 Halîl Ahmed Sehârenpûrî의 책들에서 배웠다고 말했었다. 그들은 무슬림들을 속이기 위해, 항상 нама즈와 제마앗(Cemâat: 회중 기도. 예배와 нама즈를 하기 위해 함께오는 공동체)의 가치를 설명한다. 하지만 반면에, 비다트족, 즉 신성한 무슬림 에흘리 순나트 종파에서 아닌 사람들의 нама즈들과 아무 기도와 예배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다. 그들이, 제일 먼저 에흘리 순나트의 책들을 읽고, 비다트의 대한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무슬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꾸란알 케림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구절들에서 잘못된 의미를 추론하는 사람들에 (비다트의 사람들) 또는 (이교, 이단자)라고 한다. 그들의 배신적이고 이단적인 생각들에 따라, 아예티 케리메 구절들에 잘못 해석하는 이슬람의 원수들에 Zındık(زندک, 불신자)이라고 불린다. زندک들은, 꾸란알 케림과 이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들을 드러내고, 크게 만들고,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는 가장 큰 적은, 영국인들이다. 영국 이단자들의 함정에 빠진 무지하고 타락한 (Tebliğ-i cemâ'atçı)들, 스스로에게 (Ehl-i sünnet)라고 부르고 нама즈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슬림들을 속인다. 압둘라흐 입니 메수드(Abdüllah bin Mes'ûd)는, “종교가 없어도 예배와 нама즈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냈다. 그들은, 지옥의 바닥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그들 중에 일부는, 첩탐 꼭대기에 있는 황새 둥지 처럼 큰 터번, 수염과 옷을 입고, 구절들을 암송하고 잘못 해석하면서, 무슬림들을 속인다. 그러나 하디스 셰리프에서, (innallahe lâ yenzuru ilâ süveriküm ve siyâbiküm ve lâkin yenzuru ilâ kulûbiküm ve niyyâtiküm), (인날라헤 라 엔주루 일라 수베리쿰 베 시야비쿰 베 라킨 엔주루 일라 쿨루비쿰 왜 니여티쿰: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모양들과 옷들이 아니라, 마음들과 의도들을 보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화려한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Hakikat Kitâbevi-진실 서점 출판사)의 책들에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 출판사의 책들은 틀렸고, 부패다. 이 책들을 읽지 말거라”라고 말한다. 이슬람의 적인 이단자들의 가장 큰 징조는, 에흘리 순나트 학자들의 글들과 그것을 출판하는 참종교 서적들에 대해, “부패서 읽지 말거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

슬람에 끼친 피해들과, 그들에 에홀리 순나트 학자들의 답변들은 우리 (Fâideli Bilgiler)유익한 정보들 책에서 자세히 씁니다.]

무함마드 알라이히셀람은, 예언자들에 가장 우월한 분이시며, 세상의 축복이시다. 만 팔천의 세계가, 그분의 자비의 바다로부터 혜택을 받다. 만장일치로, 그는 모든 사람과 진의 예언자다. 그는, 천사들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만물에 대한 예언자라고 선언하는 분들이 많다. 다른 예언자들은, 특정 국가의 특정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우리 예언자 라술리 에크람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셀렘’은, 모든 세계들에,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예언자이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다른 예언자들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반면에,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에, “오 나의 메신저, 오 나의 예언자”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칭찬했다. 다른 예언자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기적과 하나씩 비슷해로, 그에게도 주어졌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주셨으니, 그는 다른 아무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었다. 그가 축복받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달이 둘로 갈라지는 것, 그의 축복받은 손에 쥔 돌들이 알라후 타알라께서 귀위한 이름들을 부르시는 것, 나무들이 “오 알라의 라수룰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인사하는 것, 라술룰라의 옆에서 떠나때무네 한나네(Hannâne)라는 마른 나무가 크게 운다는 것, 그의 축복받은 손가락 사이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 내세에서 그에게 (Makâm-ı Mahmûd), (Şefâ’at-i kübrâ), (Kevser havuzu), (Vesîle) 및 (Fadîle)라는 이름들의 우월한 학위들과 영예를 받는 환경들 주어진 것,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신성한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선량한 도덕들, 확실한 지식, 온유, 인내, 겸손, 감사, 죄줄에 피하기, 명예, 정의, 선을 행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인간성, 용감함, 겸손, 도덕, 품위, 관대함, 자비, 그리고 이들과 같은, 끝이 없는 미덕과 명예들로 모든 예언자들보다 우월함과 높임을 받아냈다. 우리 예언자 라수룰라에게 주어진 기적들의 수를, 알라후 타알라께서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의 종교는, 모든 종교들의 조항들을 폐지했다. 그의 종교는, 모든 종교의 최고이자, 위대하고 우월한다. 그의 사람들 즉 움마는 모든 움마들보다 우수한다. 라술룰라의 움마의 에윌리아 즉 성자

들은, 다른 움마들의 성자들 보다 더 존귀한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의 움마의 성자들 중에서, 라술룰라의 칼리프(Halife: 누군가를 대체하는, 그를 대표하는 사람)가 될 자격이 획득하는 그리고 칼리프가 될 자격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이맘들과 성자들의 귀중품 에부 베키르 스텍크(Ebû Bekr-i Sîddîk) 라드알라후 안흐는, 예언자들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 오신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모든 사람들 보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칼리프와 명예와 학위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사람은, 에부 베키르 스텍크 ‘라드알라후 안흐’다. 이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그는 알라후 타알라의 은총과 자비로,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는 불신앙과 타락의 잘못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그의 예언 이전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이것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에부 베키르 스텍크 ‘라드알라후 안흐’ 후에, 사람들의 가장 우월한 분은, 파루키 아잠(Fârûk-ı a’zam: 항상 진실을 말하는 정직 사람), 알라후 타알라께서 사랑하시는 예언자의 친구로 선택한 두 번째 칼리프, 오마르 빈 칼타브(Ömer bin Hattâb)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흐’다.

이 후에는, 사람들의 가장 우월한 분은, 라술룰라의 세 번째 칼리프, 선와 자비의 보물, 겸손, 믿음과 지혜의 원천, 진누레인 오스만 빈 아판(Zinnûreyn Osmân bin Affân)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흐’다.

이 후에는, 사람들의 가장 우월한 분은, 라술룰라의 네 번째 칼리프, 놀라운 이점들의 소유자, 알라후 타알라께서 사자는 알리 빈 에비 탈리브(Alî bin ebî Tâlib)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흐’다.

이 후에는, 성자 하산(Hazret-i Hasen) 칼리프가 되었다. 하디스 셰리프에 기록된 30년 칼리프는, 이것으로 완성되었다^[1]. 이 후에

[1] 하센 빈 알리는, 49 [서기 669년]에 메디나에서 중독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는, 사람들의 가장 우월한 분은, 라술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의 두 눈의 빛이 후세인 빈 알리(Hüseyin bin Ali)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훤’다.

이러한 우월성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이슬람을 위해 고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무슬림이 되고, 라술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을 아주 잘 따르고, 라술룰라의 순네트(Sünnet: 우리 예언자의 축복받은 말들과 행동들)에게 잘 따르면서, 굳건히 버티고, 그의 종교를 퍼뜨리려고, 시도하고, 부패와 불신과 이도를 방지한다는 의미한다.

알리 ‘라드알라후 안훤’는, 아무리 예부 베키르 ‘라드알라후 안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무슬림이 된다 해도, 그 때 그는 어렸고, 재산이 없었고, 라술룰라의 집과 봉사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 ‘라드알라후 안훤’는 먼저 무슬림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거나, 교훈을 얻거나, 불신자들을 패배시키에 이유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3명의 칼리프가 신앙을 갖게 된 사실은 이슬람을 강화시켰다. 이맘이 알리 성자와 그의 자녀들인 ‘라드알라후 안훤’은, 라술룰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와 라술룰라의 축복받은 혈통이기 때무네, 예부 베키르 스텍크와 오마르 빈 칼타브 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우월함은,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이장로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다. 그것은, 흐드르(Hızır) 알레이히셀람은, 모세(Mûsâ) 알레이히셀람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혈연이 가까웠던 자가 우월했다면, 성자 압바스가, 성자 알리 보다 우월했었다. 혈연이 매우 가까운 예부 탈리브와 예부 라합에서, 무슬림들의 가장 낮은 분들에 있는 명예와 우월함은 전혀 없다.] 혈연이 면에 대한 가까운 때문에, 성자 파티마(우리 예언자의 딸)는, 성자 하티제와 성자 아이세(우리 예언자의 부인들) ‘라드알라후 안훤네’ 보다 더 우월한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분이 우월한인지, 우리의 이슬람 학자들은 다르게 말해냈다. 하디스 셰리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셋도, 그리고 하드라트 메르옴(레이디 메리)와 파라오의 부인 하드라트 아시에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훤네 예즈마인’은, 모두 세계의 여성들보다, 가장

우월한 여성들이다. 하디스 셰리프에서, "파티마는 천국의 여인들보다 우월하다. 하센와 후세인은 천국의 청년들의 우월하다."라고 말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월함이다.

이것들 다음으로, 아스하브 키람(Eshâb-ı kirâm: 라수룰라흐를 무슬림으로 보고, 무슬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축복받은 사람들)의 가장 높은들이 아셰레이 무베세레(Aşere-i mübeşşere) 즉, 천국과 기쁜 소식을 받은 10명의 사람들이다. 이 뒤를 이어, 바드르(Bedr) 전투에 참가한 313명이 우월한다. 그 뒤를 이어, 우후두(Uhud) 전투에 참가한 700명의 사자 용감한 군인들 중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 후에는 비아트 울 르드완(Bî'at-ür-rıdvân) 즉 나무 아래에서 라수룰라에게 약속한 1,400명의 사람들이 우월한다.

우리 예언자 라술리 에크람 '살랄라후 알라이히 베 셀렘'의 길에서, 목숨들과 재산들을 희생한, 그분에게 도움이 있는 모든 아스하브 키람 '라드알라후 안흠 에스마인'의 이름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말하는 것이 와지브(Vâcib: 명확하게 앎의 명령들)이다. 그들의 위대함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들을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이단다. 라수룰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라수룰라의 모든 아스하브(종교 동료)들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하디스 셰리프에서, "나의 아스하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 해치는 사람은, 나를 해치게 한다. 나를 해치게 하는 사람은, 알라후 타알라께서를 해치게 한다. 알라후 타알라를 해치는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셨다. 또 다른 하디스 셰리프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나의 움마의 어떤 하인에게 선을 행하는 원하신다면, 그의 마음에, 내 아스하브의 사랑을 둘 것이다. 그는 모든 아스하브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아스하브 키람 간의 전투들을; 나쁜 생각으로, 그리고 칼리프를 장악하고나, 자신들의 영혼의 욕망을 성취한다고나 그런 이유들로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 장로들을 모욕하는 것은, 무나프크 즉 위선자이요 재앙에 빠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라술룰라의 옆에서 앉아서, 그의 축복받

은 말씀을 들음으로, 테아쑤부(te'assub 즉, 완고함, 시기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한과 증오와, 모든 나쁜 기질에서 해방되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위대한 우리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의 움마의 에윌리아들 중 하나와 함께 며칠을 보내는 사람은, 그 벨리(Velî: 에 윌리아, 이슬람 성자)의 좋은 습관과 우월함의 혜택을 받고, 깨끗해지고, 세상의 사랑 중독에서 벗어났다. 우리 소중한 아스하브 키람 장로들은, 라술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은 모든게보다 사랑하고, 재산들과 목숨들 다 우리 예언자 위해 바치고, 고국을 떠나고, 영혼들이 치유인 라수룰라의 대화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아직도, 어떻게 그들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고, 언젠가 지나갈 사라질 이 썩어가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우월한 아스하브 키람은, 물론 누구보다 깨끗하다. 그들의 이별과 전투를, 우리 같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이 세상을 위해 싸웠다, 영혼의 부패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스하브 키람에 대해 그런 추한 생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스하브 키람에게 적대적인 것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우리 예언자 라술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들을 폄하하는 것은, 라수룰라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 종교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셨다: “아스하브 키람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사람은,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에게 믿지 않을 것이다.” 낙타(Deve)와 시핀(Siffin)의 전투들은, 그들을 폄하할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이 전투들에서, 하드라트 알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에서 구원받고, 보상을 까지 받는 종교적 이유가 있다. 하디스 셰리프에서, “실패하는 무즈타히드(Müctehid: 자신의 당대의 모든 과학과 이슬람 정보들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학자. 이즈티하드의 계급으로, 즉 꾸란알 케림과 하디스 셰리프들 및 기타 모든 종교적 증거에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급에 있는 위대한 이슬람 종교 학자들)에게는 하나의 보상이 있고, 올바른 찾는 무지타히드에게는 두 개 또는 열 개의 보상이 있다. 두 보상 중 첫 번째는, 이즈티하드(ictihād: 꾸란알 카림과 하디스 셰리프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들의 법령을 명확하게 언급된 것과 비교하여 계시함) 하는 보상이다. 둘째는, 진리

를 찾는 보상이다.”라고 하셨다. 이 이슬람 종교 위대한 학자들 사이의 갈등과 싸움은, 완고함이나 적대감 때문에 아니었다. 그들의 이즈티하드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슬람의 명령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스하브 키람 각각은 무지타히드였다. [예를 들어서, Amr ibni Âs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흐’가, 무지타히드 되는 것은, 책 Hadîka의 298페이지에 있는 하디스 셰리프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무지타히드들은, 자신의 이즈티하드를 통해 발견하고, 획득한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파르즈(Farz)고 즉, 꼭 필수적이다. 자신의 이즈티하드는, 아무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지타히드의 이즈티하드와 일치지 않더라도, 그는 그의 자신의 이즈티하드를 일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즈티하드를 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mâm-ı a’zam Ebû Hanîfe^[1]의 학생들 Ebû Yûsûf와 Muhammed Şeybânî는, 그리고 Imâm-ı Muhammed Şâfi’^[2]의 학생들 Ebû Sevr와 İsmâ’il Müzenî는, 여러 곳에서 그들의 교사 선생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선생님들 “그것은 하람이다”라고 말했던 중 일부에, 그들(학생들)은 “할랄”라고 말했다. 그들의 선생님들 “할랄”이라고 말했던 일부 중에, 그들(학생들)은 “하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었다거나, 악해졌다고나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누구도 없다. 그들은 도, 그들의 선생님 처럼 무즈타히드 되는 때문이다.

당연히, 하드라트(성인)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 성자는, Mu’âviye와 Amr ibni Âs보다 더 우월하고, 더 지식이 풍부했다. 하드라트 알리는, 그들과 구별하는 많은 우월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드라트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의 이즈티하드는, Mu’âviye와 Amr ibni Âs의 이즈티하드를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했다. 그러나, 모든 에스하브 키람은 다 무즈타히드기 때문에, 둘다는; 이 위대한 성자의 이즈티하드를 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즈티하드들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다.

[1] Ebû Hanîfe Nu’mân bin Sâbit은, 150년[서기 767년]에 바그다드에서 사망하셨습니다.

[2] Muhammed bin İdrîs Şâfi’는, 204년 [서기 820년]에 이집트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질문: Cemal(제멜)와 Siffin(슈핀) 전투들에서, 무하지르들과 엔사르에서 많은 분들이, 하드라트 알리와 함께 있었다. (무하지르 Muhâcir: 이슬람에 초기에대는,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메카의 다신교도들에게 탄압과 고문을 받았고, 종교와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집과 소유물을 버리고, 우리 예언자 라술룰라의 허락을 받아 처음으로 아비시니아로, 그 후에 메디나로 이주한, 메카인 무슬림들. ‘무하지르’의 복수형은 ‘Muhâcirin:무하지린.) (엔사르 Ensâr: 도우미, 돕는 사람들.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후, 우리 예언자 라술룰라와 메카에서 오는 이슬람교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신체와 재산와,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 도와주는, 메디나 출신의 무슬림들.) 그들은 그에게 순종했다. 그들은 그를 따랐었다. 그들 모두가 무즈타히드인 동안, “우리 하드라트 알리를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으로부터, 이맘으 하드라트 알리를 따르는 것이, 무즈타히드인들에 꼭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이즈티하드들은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와 연합해야 필요다”라고 말하면:

답변: 하드라트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 성자를 따랐던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즈티하드를 따랐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의 이즈티하드들도 알리 성자의 이즈티하드들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즈티하드들은 알리 성자를 따르는 것을 필수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에스하브 키람의 위대한들의 대부분의 이즈티하드들은, 하드라트 알리의 이즈티하드를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위대한 알리 성자와 반대 전쟁하는 것이 와지브 즉 필요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에스하브 키람의 이즈티하드들은 3 종류가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드라트 알리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하드라트 알리에게 따르는 것은 필요가 됐다.

그들 중 다른들은, 그와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의 이즈티하드를 옳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와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과, 그와 함께 전쟁하는 것이 필요가 됐다. 세 번째 부분은, 양측을 준수하지 않다고, 싸우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즈티하드는, 전투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필요로 했다. 세 부분 모두다, 물론 옳았고, 그들은 보상을 얻었다.

질문: 위의 기사는, 하드라트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와 반대 전쟁하는 사람들도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에홀리 순네트

학자들은, 하드라트 알리가 옳고, 그의 반대자들이 그르며,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거나 보상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답변: İmâm-ı Şâfi'î와 Ömer bin Abdül'azîz 같은 이슬람 종교의 위대한 분들은, 에스하브 키람에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장로들(이슬람 종교 위대한 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셨다. 어린이들, 어른들에게 “그는 옳은 일을 했다, 그는 틀리게 했다, 우리는 그건 좋았다, 우리는 그건 좋아하지 않았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라후 타알라게서는, 그 전쟁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오른쪽, 불공정, 맞다, 틀리다” 같은 말들 하는 것에서 우리의 혀를 보호해야 한다.

깊은 학자들은, 증거를 이해하고 사건을 조사하여, 하드라트 알리가 옳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했지만, 이 말들과 “알라라드알라후 안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할 수가 있었다면, 그들에 그들도 자신 처럼 이즈티하드를 만드게 할 수 있었다”를 의미 했다. 사실, 하드라트 Zübeyr bin Avvâm은, 낙타 전투에서, 하드라트 알리와 반대했지만, 사건을 더 깊이 검토함으로써, 그의 이즈티하드를 바꾸워었다. 그는 전투를 포기했다. 이것은 바로, 아흘리 순나트의 학자들에서 오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드라트 알리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아이세이 스프카(Âişe-i Sıddıka)어머님께서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에스하브 키람은 잘못된 일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에스하브 키람의 이러한 전투들은, 아캄으 셰르예(Ahkâm-ı şer'ıyye: 이슬람 종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하는 규정들. 명령들과 금지들)의 하위 단위 분야들에 이즈티하드 차이들이었다. 그들은, 이슬람의 메인 기본과 주요 일들에서 차이가 전혀 없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Mu'âviye 및 Amr ibni Âs ‘라드알라후 안휴마’와 같은 이슬람 종교의 장로들을 모욕하고 무시한다. 그들은, 에스하브 키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라술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을 해치고 모욕하는 것이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다. imâm-ı Mâlik bin Enes 성자는, “Mu’âviye 또는 Amr ibni Âs’라드알라후 안후마^[1]를 모욕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말한 것에 자신 합당한다.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 하는, 말하는 밋글을 쓰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책 şifâ-i Şerîf에서 작성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우리 마음을 그분의 예언자의 에스하브 키람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기를! 옹고 의로운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 종교의 장로들을 사랑한다. 위선자와 이단자들은 (에스하브 키람 및 이슬람 종교의 장로들을) 사랑하지 않다.

[우리 예언자 라술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의 에스하브 키람 동료들의 가치와 우월함을 이해하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 모두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올바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에흘리 순나트(Ehl-i sünnet)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들의 일부 소수를 사랑하지만, 다른 분들은 사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대부분을 폄하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라피지(Râfızî) 및 시이(Şî‘î)라고 한다. 라피지들은, 이란, 인도 및 이라크에서 많다. 터키에서는 없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 나라의 무슬림 순수한 알레위를 속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알레위(Alevî)라고 불렀다. 그러나, 알레위는,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를 사랑하는 무슬림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걷던 길에서 가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게 필요하다. 이들은, 만약에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를 사랑했었다면, 그의 길에서 걷고, 그를 따랐서야한다.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는, 에스하브 키람의 모두를 사랑했다. 그는 두 번째 칼리프인 오마르 ‘라드알라후 안후마’의 조연자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하드라트 알리와 그의 소중한 부인 파티마(Fâtima) ‘라드알라후 안하’의 딸 움무 굴숨(Ümm-i Gülsüm)은, 칼리프 오마르 ‘라드알라후 안흐’와 결혼 했다. 설교에서, 하드라트 알리는 하드라트 무아위예 대해, “우리 형제들은 우리와 헤어졌다. 그들은 불신자도 죄인도 아니다. 그들의 이즈티하드들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셨다. 그에게 맞서 싸웠던 탈하(Talha) ‘라드알라후 안흐’가 순교했을 때, 그는 그의 얼굴에서 토양을 닦았다. 하드라트 알리는 그

[1] Mu’âviye bin Ebû Süfyan은, 60년 [서기 680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사망 하셨습니다. Amr ibni Âs은, 43년 [서기 663년]에 이집트에서 사망 하셨습니다.

의 장례기도 нама즈를, 직접 이끌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꾸란알 케림에서 “무슬림들은 형제들이다”라고 선언하셨다. 페트히(Feth)의 장의 마지막 구절은, “에스하브 키람 동료들은 서로 사랑했음을” 알려주신다. 에스하브 키람 동행자 중 한 명 이라도 싫어하는 것과 특히 적대적인 것은, 꾸란알 케림을 믿지 않는 뜻이다. 에흘리 순네트 학자들은, 에스하브 키람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흠 에즈마인’의 우수성을 잘 이해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무슬림들을 재난에서 구했다.

에흘리 베이트(Ehl-i beyt, 즉 알리 ‘라드알라후 안흐’와 그의 모든 자녀와 후손)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그리고 에흘리 순네트의 소중한 장로들에게 적대적인 자들에, 하리지(Hâricî)라고 한다. 오늘날 하리지들은 예지디(Yezîdî)라고 불린다. 예지디족들의 종교와 신념을 매우 부패한다.

“우리는 모든 에스하브 키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부패한 생각들에 “에스하브 키람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와하비(Vehhâbî)라고 한다. 와하비즘은, 종파가 없는 Ahmed ibni Teymiyye라는 거짓 학자의 책들에 있는 왜곡된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Hempher라는 영국 스파이의 거짓말들이 혼합된 것이다. 와하비들은; 에흘리 순네트 학자들도, 타사우프(Tasavvuf: 알라후 타알라께서 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그리고 진정한 이슬람 즉 에흘리 순네트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서 강화하는)학자들도, 시이(Şî‘î)들도 다 좋아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나쁜 말들 말한다. 그냥 자신들만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신론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이 와하비족들에게 할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바히(ibâhî)가 된다. 나스(Nâss)들, 즉 꾸란알 케림과 하디스 세리프에서, 그릇되고 부패한 의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들은 무슬림과 이슬람이 이러한 의미를 의미한다고 착각한다. 그들은, 에들레이 세리예(Edille-i şer’iyye: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한 근거가 되는 증거들. 에들레이 세리예는 4개다: 1- 책; 꾸란알 케림. 2- 순네트; 우리 예언자의 말씀과 행동들. 그리고, 라수룰라 알레이히셀람은, 누군가를 무언가 할때 보고, 그것을 막지 않는 것들. 3- 이즈마; 종교 문제의 결정에 대한 무즈타히드 학자들의 만장일치. 4- 비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와 하디스 세리프들 중 대부분을 거절한다. 네 개의 총파의 학자들은, 에흘리 순네트를 떠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이슬람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문서를 통해 많은 책에서 증거를 함께 증명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터키어 심판의 날와 내세(Kıyâmet ve Âhiret)와 영원한 행복(Se'âdet-i Ebediyye) 책들, 그리고 아랍어 (Minha-tül-vehbiyye), (Et-Tevessül-ü bin-Nebî ve bis-Sâlihîn), (Sebîl-ün-necât) 및 페르시아어 (Seyf-ül-ebrâr) 책들을 읽어주시요! 이 책들과 비다트 사람들에게 대한, 거부로 쓰여진 많은 귀중한 책들은 이스탄불에서 진실 서점 출판사(Hakikat Kitâbevi)에 의해 출판되었다. İbni Âbidîn^[1]의 책의 세번째 권에서, 부당하게 반항한 자들 설명할때와 터키어 Ni'met-i islâm 책에서 결혼에 관한 설명하면서, 와하비들이 이바히(ibâhî: 하람들을 적절로 간주하는 이단적이고 부패한 이바히에 총파의 구성원)되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술탄 Abdülhamîd hân 2세의, 해군 대장 중 한 명인 Eyyûb Sabrî pâşa^[2] (Mir'ât-ül-haremeyn) 및 (Târîh-i vehhâbiyyân) 책들에서, 그리고 Ahmed Cevdet pâşa 그의 역사 7권에서, 와하비들을 터키어로 길게 썼다. Yûsûf Nebhânî의 이집트에서 출판된 아랍어 (Şevâhid-ül-hak) 책도, 와하비들과 İbni Teymiyye에 대한 긴 답변을 제공한다. 이 책의 50페이지는, 1972년에 이스탄불에서 아랍어로 우리가 출판한 (이슬람 학자들과 와하비들) 책에서 볼 수 있다.

Eyyûb Sabrî pâşa ‘라히메 홀라휴 테알라’가 말하였다: “와하비즘은 1205년 [서기 1791]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 나타났다.” 와하비즘과 마즈하브 없는 즉 비종파주의를, 그의 책을 통해 세계에 퍼뜨리려 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이집트의 Muhammed Abduh다. 프리메이슨 롯지의 의장 Cemâleddîn-i Efgânî^[3]에, 감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압두Abduh은, 위대한 이슬람 학자이자, 진보적인 사상가라이자, 가치 있는 개혁가라는 척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려 했다. 올바른 길 에흘리 순네트를 파괴하고, 이슬람을 패배시키기 위해 매복한 이슬람의 적들은, 교활하게 이슬람 학자로 위장하고, 금박을 입힌 말로 이슬람을

[1] Muhammed Emîn ibni Âbidîn, 1252 [서기 1836]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2] Eyyûb Sabrî pâşa, 1308 [서기 1890]년에 사망하셨습니다.

[3] Cemâlüddîn Efgânî, 1314년 [서기 1897]년에 사망했다.

찬양함으로써, 교활하게 이 선동을 부추겼고 퍼뜨렸다. 압두는, 불공정하게 과장되고 칭찬 받았다. 에홀리 순네트의 위대한 학자들과 마즈하브 즉 종파 학자들께서 무지하다고 불렸다. 그들의 축복 받은 이름들은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에 대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의 순수하고 고귀한 아들은, 이런 선전들과 수백만 돈으로 만든 광고들에 속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부당하게 칭찬 받은 종교 영웅들을 듣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다. 전능하신 알라후 타알라께서, 순교한의 자손을, 이러한 사악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오늘날도, Mevdûdî^[1], Seyyid Kutb^[2] 및 Hamîdullah 및 (Tebîğ-i cemâ’atçı)와 같은 종파 없는 자들의 책들이 번역되어 젊은이들에게 제공된다. 거대한 광고로 과장되고 찬사를 받는 이 번역들에서, 이슬람 학자들이 보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릇되고 부패한 사상이 있음을 본다. 군인은 잠들고 적은 잠들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너무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 위해, 부주의의 잠에서 무슬림을 깨우길. 적들의 거짓말들과 중상모략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길 빕니다! 아민. 그냥 기도한다만로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아대티 일라히예(Âdet-i ilâhiyye)를 즉 알라후 타알라께서 법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유를 따르지 않고 즉 해야 하는 것들을 앎고, 일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만 것으로, 알라후 타알라에게 기적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에서는, 일도 하고, 기도도 모두 해야 한다. 먼저 이유를 따르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 불신앙을 없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슬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사실, 올바른 에홀리 순네트 길을, 그리고 파르즈(명령)들과 하람(금지)들을 배우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파르즈다. 첫 번째 의무다. 오늘날, 이것들은 배우는 것은 매우 쉽다. 왜냐하면, 진정한 종교 서적을 쓰고 출판하는 것은 자유롭기때문이다. 무슬림들에게 이 자유를 준 국가에, 모든 무슬림은 도와야 한다. 에홀리 순네트의 신조와 교리서(모든 무슬림이 믿음, 예배 및 도

[1] Mevdûdî, 인도에서 있는 (Cemâ’at-ül-islâmiyye) 커뮤니티의 설립자이다. 1399년 [서기 1979]년에 사망했다.

[2] Seyyid Kutb, 1386년 [서기 1966]년에 이집트에서 처형되었다.

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책)를 배우지 않고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떠나 불신의 재앙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신성모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우리 예언자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 셀렘’은 말씀하셨다: “지식이 있는 곳에서 이슬람은 있다. 지식이 없는 곳에서 이슬람은 없다.” 죽지 않으려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 처럼, 불신자들에게 속지 않고, 종교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 배워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모여서, 교리서의 책을 읽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슬람의 즐거움을 취했다. 그들은 이 행복의 빛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도 계속 무슬림으로 남아길 위해, 우리 아이들을 안팎의 불신자들에게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에흘리 순네트의 학자들이 준비한 교리서 책들을 읽고 배우는 것이다. 자녀가 무슬림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꾸란을 가르쳐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 읽고 배우면서 자녀들에게 및 자신의 말씀을 듣는자들에게 가르치자! 그들이 학교에 다녀온 후에는 배우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불가능 것이다. 재난이 왔을때는, 한숨은 소용이 없다. 이슬람의 적들과 이단자들의 달콤하고 화려한 책,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 İbni Âbidîn ‘라히메 훌라후 테알라’의 책에 3권에서 이렇게 말하신다: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만 무슬림인 척하고, 불신앙을 일으키는 것들을, 마치 이슬람교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슬람교에서 개종시키려는 교활한 불신자들은, 존드크(Zındık)라고 한다.”

질문: 종파가 없는 자들의 잘못된 책의 번역된 쓰를 읽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꾸란알 케림의 해설을 읽어야 한다. 우리의 종교와 꾸란알 케림에 대한 이해를, 종교 학자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끔찍한 생각이다. 꾸란 알 케림에서는 (오 종교 학자들이여) 말하지 않다. 꾸란은, (오 신자들), (오 사람들) 등의 같은 것을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은, 꾸란 알 케림이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석과 하디스만 읽기를 원한다

. 이슬람 학자들과 에흘리 순네트의 장로들이 쓴 켈람(Kelâm: 믿음의 지식들을 증거와 함께 보여주는 과학) 및 프크흐(Fıkıh: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기. 종교에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과학) 및 교리 문답 정보들의 책들을 추천하지 않다. 터키의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하고 이집트의 Reşid Rıza^[1]가 쓴 1394 [서기 1974]년 날짜의 제157호, 책(이슬람의 통일와 프크흐의 종파들)은 독자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 6번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이슬람의 무즈타히드 학자들을, 예언자들 ‘살레와톨라히 타알라 알레이힘 예즈마인’ 만큼 높이 올렸다. 사실, 그들은 예언자들 ‘살랄라후 타알라 알레이히 베 셀렘’의 하디스를 따르지 않는 어떤 무즈타히드의 말을 선호했고, 하디스를 떠났다. 그들은 이 하디스가 폐지되었거나 우리 무즈타히드의 감독하에 다른 하디스가 찾을 수 있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모방자들은, 결정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일을 하면서, 아무 흠을 없는 예언자들의 하디스를 버리고, 무즈테히드를 모방 따르는 것과도 헤어지게 된다. 그들은 심지어 꾸란알 케림로 부터도 분리된다. 그들은, 무즈타히드 외에는 누구도 꾸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종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하는 프크흐자들과 다른 모방자들의 그러한 말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꾸란과 하디스를 이해하는 것이, 종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하는 프크흐자들이 쓴 책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다. 아랍어 단어와 스타일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꾸란과 하디스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까? 라수룰라께서, 알라후 타알라의 원함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의 설명들은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예언자의 가르치는 의무를 잘 다할 수 못했다는 말이랑 같은 뜻이다.

[1] Reşid Rızâ, Muhammed Abduh의 학생이다. 1354 [서기 1935년]에 사망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꾸란알 케림과 순네트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전능하신 알라께서, 그 책과 순네트의 규칙에 대한 책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의 증거를 알아야 한다.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모방을 비난했다. 그는, 아버지과 할아버지를 모방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 구절들은, 모방이 알라 보시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종교의 하위 부분들을 증거들과 이해하는 것이, 신앙 부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려운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렵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앓을 수 있을까? 일부 드문 일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들을 알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종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하는 프크흐자(Fıkıhçı)들은, 자발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발명했다. 그들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조항들을 생각해 냈다. 프크흐자들은, 이것들에게 re'yi(명확한 나스, 즉 꾸란 구절과 하디스 셰리프 없는 프크흐 주제에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달성 무즈타히드의 개인적인 의견)와, kıyâs-ı celî(명확하고 구체적인 비교)와, kıyâs-ı hafî(비밀 비교) 같은 것들을 증거로 가져오려고 했다. 이것들은,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예배들의 영역으로도 옮겨졌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종교를 확장함으로써 증가했다. 그들은 무슬림들을 힘들게 했다. 나는 이 비교를 부정하지 않다. 나는, 예배의 분야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믿음과 예배들은, 예언자 시대에서 완성되었다. 누구도, 이것들에게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다. 무즈타히드 이맘들, 사람들에게 모방을 금지하며, 모방을 하람 즉 금지라고 했다.” 라고 말한다.

종파가 없는 Reşîd Rızâ의 책(이슬람의 통일와 프크흐의 종파들)에서, 위에서 우리가 요약한 글은, 이슬람의 올바른 4대 종파들 중 어느 것도 믿지 않고 종파가 없는자들의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이 네가지 종파의 학자들을 모방 하는 것을 금지라고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해설과 하디스를 배우라고 명령한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종파가 없는자들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들이 썩은 논리와 화려한 단어로 그들의 왜곡된 생각과 분열적인 견해를 미화함으로써 무슬림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이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 글을 논리, 이성,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지식과 예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 덫에 빠지지 않다.

무슬림들을 영원한 재앙으로 몰아넣는 종파가 없는자들의 위험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슬람 학자¹⁾라히메후물 라후 테알라²⁾들은 14세기 동안 수천 권의 귀중한 책을 저술했다. 위의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Yûsuf Nebhânî³⁾의 (Hucceṭullahi alelâlemîn)책의 771페이지부터 저금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꾸란알 케림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지타히드 이맘(학자)조차도, 꾸란알 케림의 모든 법령을 추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은 그의 하디스 세리프로 꾸란알 케림의 법령을 설명했다. 꾸란알 케림을 오직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가 설명했듯이, 아스하브 키람과 무지타히드 이맘들만 하디스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무지타히드 이맘들에게 지적 및 전달된 과학, 이해력, 날카로운 마음, 더 많은 지성 및 기타 많은 우월성을 부여하셨다. 이러한 우월함의 최전선에는 타크와(takvâ: 알라후 타알라께서를 두려워하여 금지와 죄로부터 피하기)가 있다. 그 후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신성한 빛은 온다. 이러한 우월함의 도움으로 우리의 무즈타히드 이맘은 알라후 타알라께서와 라수룰라의 말에서 그들의 소원을 이해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교를 통해 전달했다. 4명의 종파의 이맘은 각각 자신이 자신의 판단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디스를 만나면 내 말을 남겨주고, 우리 예언자 라수룰라의 하디스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했다. 우리 종파의 이맘들은 그들과 같은 무즈타히드인 깊은 학자들에게 말했다. 이 학자들은 4개의 종파의 증거를 알고 선호하는 자들이다. 무지타히드인 이 학자들은, 종파의 학자들의 이즈티하드의 증거와 새로 배운 하디스의 증거들을, 보고된 것을 그리고 다른 많은 조건을 조사하여 어떤 조건이 선호되는지 이해한다. 또는 무지타히드 학자는, 어떤 문제를 증명할 하디스 세리프가 자신에게 도달하기 않았기때문에 비교를 통해 판단했다.

[1] Yûsuf Nebhânî, 1350 [서기 1932년]에 베이루트에서 사망하셨다.

그의 학생들은 이 문제의 증거가 될 하디스 셰리프를 배웠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즈티하드를 하는 동안 종파의 학생들은 종파의 학자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다. 나중에 온 무즈타히드 무프티(Müctehid Müftî: 알라후 타알라께서의 명령과 금지, 즉 이슬람을 알리는 학자. 종교적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오른 학자)들도 그런 판단을 내렸다. 이 기록된 모든 것으로부터 이해된다. 4명의 종파의 학자와 그들의 종파에서 훈련된 학자들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알라후 타알라와 그의 예언자의 규칙을 따른다. 이 무즈타히드들은 꾸란알 케림과 하디스 셰리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이해했고, 이해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언했다. 무슬림들도, 이 무즈타히드들의 책과 순나에서 이해하고 전달한 내용을 모방했다. 왜냐하면, Nahl 장의 43절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하셨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꾸란과 순네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종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꾸란 알 케림과 하디스 셰리프를 이해하려고 아니시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라고 명령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꾸란 알 케림과 하디스 셰리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 72개의 잘못된 종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종파들을 이끌어 낸 사람들은 모두 심오한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나스Nass, 즉 꾸란과 하디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해하여, 그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또한 수백만 명의 무슬림을 재앙으로 몰아넣었다. 나스에서 잘못된 의미를 추론하면서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사치스러워, 올바른 길을 가는 무슬림을 이교도와 다신교도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터키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로 남몰래 가져온 와하비 책(Keşf-üş-şübühât)에는 순네트의 올바른 길 신앙을 신앙을 따르는 무슬림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종파의 학자들이 이즈티하드 하고, 종파를 세우고, 모든 무슬림들은 이 종파에 모이는 것을, 오직 그의 사랑하는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의 사람들에게만 수여하셨다. 신앙의 이مام을 즉 믿음의 학자들 창조하심으로써 전지전능하신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무히드(mülhid: 신앙 체계가 부패했기 때

문에 구절과 하디스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여 종교를 떠나는 사람) 및 즈드크 및 이단자 및 변태들 및 인간의 악마들이 신앙의 지식을 부패시키는 것을 막으셨다. 또한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마즈하브 이맘 즉 종파주의적인 학자들은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부패로부터 보호하셨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이 축복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타락하고 장난감이 되었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가 사망하신 400년 후에 , 이즈티하드를 할 수 있는 심오한 학자가 없다고 이슬람 학자들은 만장일치로 선언했다. 이제 이티하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종교에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해된다. 위대한 학자 Celâleddîn-i Süyûtî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1]는 그가 이즈티하드의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은 말하셨다. 당대의 학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한지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 그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원하는 것은 판단에서 이즈티하드를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 근데 이것은, 이즈티하드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Celâleddîn-i Süyûtî(젤랄렌딘이 수유티)와 같은 위대한 학자가 판단에서 이즈티하드를 피할 때도, 무슬림들에게 이즈티하드를 하도록 강요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나 종교적 무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îmâm-ı Gazâlî(이맘으 가잘리)성자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2]는 그의 시대에서 무지타히드가 없었다는 것은, 그의 (ihyâ-ul-ulûm)책에서 말하셨다.

무즈타히드가 아닌 어떤 무슬림이, 진정한 하디스를 배우는 다 음에, 본 하디스와 자신의 종파의 학자의 판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은 자신에 어렵다면, 이 무슬림은 4개의 종파 중 에서 이 하디스에 따라서 이즈티하드를 하는 무즈타히드를 찾아야 , 그리고 이 일을 그의 종파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위대한 학자 îmâm-ı Nevevî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3]는 그의 책(Ravdat-üt-

[1] Süyûtî Abdürrahmân, 911 [서기 1505년]에서 이집트에서 사망하셨다.

[2] îmâm-ı Muhammed Gazâlî, 505 [서기 1111년]에서 투스 도시에서 사망 하셨습니다.

[3] Yahyâ Nevevî, 676 [서기 1277년]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하셨다.

tâlibîn)에서 이것을 길게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즈티하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꾸란과 하디스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절대 이즈티하드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나쓰(Nass)네서 즉 꾸란과 하디스에서 판단 추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4개의 종파 중 하나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수년 동안 모방해 온 종파 버리고 있다. 그들은 왜곡된 생각으로 종파를 논박하려고 한다. “우리 같은 종교학자의 판단을 따를 수 없다”라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 그들은 사탄의 미혹과 영혼의 유혹으로 우월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말로, 그들의 우월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과 비천함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 우리는 누구나 해설을 읽고, 해설와 하디스 학자 부하리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 하고 쓰는 무지하고 변태적인 사람들도 본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무슬림 형제여! 그런 무지하들과 친구가 되지 말고, 종교인으로 오인하지 말고, 그들의 날조한 책을 읽지 마십시오! 이슬람의 4개의 진정한 종파 학자의 종파를 꼭 붙잡으십시오!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이 네 가지 종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종파들의 쉬움들을 조사하는 것은, 즉 종파를 (Telfik)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Telfik)은 종파의 편의를 결합하여 수행한 었던 일들을, 이 종파들 중 어느 것과도 일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었던 일을 하면서 4개의 종파 중 하나를 따른 후에, 즉 이 종파에 따라 행위가 유효하고 후에, 또한 다른 3개의 종파에서도 그것이 유효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면, 이것은 타크와(Takvâ)되고, 이것은 큰 보상이다.]

하디스 셰리프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무슬림은, 제일 먼저 자신의 종파의 증거인 하디스를 배우고, 다음에 이 하디스가 칭찬하는 일을 하고, 그가 금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이슬람 종교의 위대함과 가치, 알라후 타알라와 그의 예언자 무함메드 알레이히셀람”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의 이름과 호칭들의 위대함, 예언자의 삶과 우월함과 기적들, 세계와 내세, 낙원과 지옥, 천사들과 진들, 예언자의 과거의 민족들, 선지자와 그들의 책, 및 꾸란 알케림과 우리 예언자의 우월성들, 그리고 그의 알리와 아스하브 키람 “르드와놀라히 타알라 알레이힘 에즈마인”동료들의 상태, 그리

고 최후의 날의 징조, 그리고 더 많은 세속적 지식과 내세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예언자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의 하디스 셰리프들에, 이세계와 내세의 모든 정보들은 수집되었다. 우리가 쓴 내용을 이해하면, “무즈타히드가 하디스이 셰리프에서 추론한 종교 판단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다. 하디스이 셰리프가 보고한 수많은 과학 중에서, 예배와 행동(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쇼핑, 임대, 회사, 이자, 상속 등 사람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주는 하디스 셰리프들은 매우 적다. 일부 학자에 따르면, 약 500개다. [반복이 포함된 경우 3,000개를 초과하지 않다.] 이정도로 소수의 하디스 셰리프 사이에서 진정한 었던 하디스를, 4명의 종파의 학자 중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명의 종파 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진정한 하디스를 증거로 삼았다. 자신의 종파에서 한 일이 진정한 하디스 셰리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무슬림은, 이 하디스 셰리프에 따라 이즈티하드를 하는 다른 종파를 따라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종파의 학자는 아마도 이 하디스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더 진정한다고 이해한 다른 하디스를 또는 나중에 첫 번째 것을 폐지한 하디스를 따르거나, 무즈타히드의 이해하는 다른 이유로, 이 하디스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었던 하디스는 진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무슬림은, 자신의 종파의 이 하디스를 준수하지 않는 판결을 떠나고 이 하디스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람 위해, 이 하디스에서 판단을 내리한 또 다른 종파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 종파의 학자는, 규칙의 증거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디스에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과 함께, 그 일을 자신의 종파를 따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의 종파의 학자의 이즈티하드는,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무칼리드 (Mukallid: 행위에 관한 문제에서 무즈타히드라는 깊은 학자를 따르고 복종하는 사람)가 이 증거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핑계로 여기다. 왜냐하면, 네 명의 종파의 학자 중 누구도, 이즈티하드를 하는 동안, 책과 순네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종파들은, 책과 순네트에 대한 설명들이다. 무슬림들에게 꾸란과 우리 예언자의 순네트의 의미와 규정을 설명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책들에 기록했다. 종파 학자들 “라히메후물라후 테알

라”의 이 작업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엄청난 봉사로,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기에는 사람 힘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종파들은,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이 진정한 예언자이고, 이슬람의 종교가 진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문서 중 하나다. 우리 이슬람 종교의 학자들의 이즈티하드에서 서로 헤어진 것은, 오직 종교의 부분들이(Fürû-i din), 즉 종교에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과학 문제들에 있다. 종교의 기초(Usûl-i din), 즉 믿음과 신조와 신념에 대한 지식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종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증거가 널리 퍼진 소문으로 보고되는 하디스 셰리프들에서 가져온 종교의 부분들의 정보에는도 그들의 차이가 없다. 그들은 종교의 부분들 지식에서 일부 분리되어 있다. 그들의 증거의 강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들이 이를 야기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들도 무슬림들에 대한 자비다. 무슬림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쉽게 오는 종파를 따르는 것은 허용된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은 이 분리를 좋은 소식으로 선언했으며, 선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꾸란알 케림과 하디스 셰리프에 명확하게 명시된 신조 지식들에, 즉 (Usûl-i din)믿어야 할 것들 및 프크흐 즉, 해야 할 것들과 피해야 할 것들에서 이즈티하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그것은 오도와 왜곡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신조 지식에 올바른 유일한 길이 있다. 이것은, 아흘리 순나트 왈 자마아트(Ehl-i sünnet vel-cemâ'at: 예언자의 순네트의 올바른 길)의 종파다. 하디스 셰리프에서, 자비라고 선언된 분리는 종교의 부분들에서, 즉 (Fürû-i din)판단에 있는 분리다.

네 개의 종파의 행동에 판단들의 분리는 문제에서는, 네 개의 중에 딱 한가지만에 판단이 맞다. 이 맞는 판단을 본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 상이 있고, 거짓 판단을 본받는 자에게는 한 가지 상이 있다. 종파들이 자비라는 사실은, 어떤 종파를 포기하고, 다른 종파의 행동에 판단을 본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네 개의 종파 이외의, 에흘리 순나트의 있는 다른 종파들을 그리고 조차 아스하브 키람을 모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파들은 책들에 기록되지 않고, 잊혀졌기 때문이다. 알려진 4명의 종파 외에 다른 것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 된다. 아스하브

키람을 모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슬람 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보고되는 것은, Ebû Bekr-i Râzî 성자 “라히메홀라후 타알라”^[1]도 알려준다. 종파들과 무즈타히드, 특히 4명의 종파 학자들의 우월성과, 그들의 종파가 책과 순나트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즈마와 비교로 보고한 판단들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책과 순네트에서 따온 것임을 잘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 우리는 Abdülvehhâb-ı Şa'rânî 성자 “라히메홀라후 타알라”의 책들 (Mîzân-ül-kübrâ) 및 (Mîzân-ül-hidriyye)를 읽을 것을 권장한다. 책 (Hucetullahi alel'âlemîn)의 번역이 여기에서 끝났다. 위의 모든 텍스트는(책 Hucetullahi al'âlemîn) 아랍어 원본에서 번역되었다. 우리의 모든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다른 책에서 추가한 내용은 대괄호로 묶어서, 추가 내용이 책의 텍스트와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책(Hucetullahi al'âlemîn)에서 위 텍스트의 아랍어 원본은, 1394 [서기 1974]년에, 오프셋 방식으로 이스탄불에서 인쇄되었다.

“꾸란 알 케림에서 종교 학자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다양한 구절들이, 학자와 과학을 찬양한다. 성자 Abdülganî Nablûsî는, 그의 책(Hadîka)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Enbiyâ 장의 일곱 번째 구절에서 “모르는 것들을, 지크르 소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하셨다. 지크르(Zikr)은 지식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학자를 찾아 묻고 그에 배우라고 명령하신다. Âi-i imrân 장의 일곱 번째 구절에서는; “무타샤비흐(Müteşâbih: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 아예티 케리메들의 의미를 지식 소유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 및 십팔 번째 구절에서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알라후 타알라께서 존재하고 유일한 하나임을 이해하고 선언한다.” 그리고 Kasas의 81번째 구절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이 세상의 축복보다 낫다.” 및 Rum장의 56번째 구절에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들, 세상에 있을 때 부인한 심판의 날은 바로 이 날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및 isrâ장의 180

[1] Ebû Bekr Ahmed Râzî는, 370 [서기 980]년에 사망하셨다.

번째 구절에서: “지식의 소유자들이, 꾸란알 케림을 들을 때 옆하리고, 우리 소유자에 아무 흠이 없으며 그는 약속을 꼭 지키시다, 라고 말한다.” 및 Hac장의 54번째 구절에서: “지식을 가진 자들은, 꾸란 알 케림이 알라후 타알라의 말씀임을 이해한다.” 및 Ankebût장의 50번째 구절에서: “꾸란 알 케림은 지식의 소유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및 Sebe’장의 6번째 구절에서: “지식의 소유자는, 꾸란알 케림이 알라의 말씀이며, 그들은 꾸란알 케림이 알라의 동의를 얻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 및 Mücadele장의 11번째 구절에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높은 등급을 주어질 것이다.” 및 Fâtr장의 27번째 구절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두려워한다.” 및 Hucurât장의 13번째 구절에는: “당신들 중 가장 소중한은, 알라후 타알라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 Hadîka의 365페이지에 있는 하디스 세리프들에서;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리고 천사와 모든 생물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기도한다.” 및 “심판의 날에는 먼저 예언자들이, 그 다음에는 학자들이, 그 다음에는 순교자들이 중재할 (즉세파아트-şefâ’at: 심판의 날, 알라후 타알라의 허락을 받아, 우선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알레이히셀람, 다른 예언자, 학자, 순교자, 의로운 즉 선한 사람, 어린 나이에 죽은 무슬림 어린이와 하나님 알라후 타알라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죄인인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구하고, 천국에 갈 운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천국에서의 등급을 높여달라고 구한다는 것을,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수단이 되는 것을 중재 즉 중보기도 라고 한다) 것이다.” 및 “오 사람들이여, 이것은 아십시오, 지식은 학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배운다.”, “지식을 배우세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예배다.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에게 지하드(Cihâd: 종교를 위해 싸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듣고, 무슬림이 되어 명예를 얻기 위해, 또는 무슬림의 종교와 조국과 명예를 공격하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전투입니다. 또는 재산, 생명, 말, 출판물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이슬람을 설명하고 방어) 같은 보상을 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같다. 학자에게 지식을 배우는 것은, 타하주드(teheccüd: 밤에 잠에서 깨어나고 하는 기도) нама즈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신다. 책 Hülâsa의 소유

자인 Tâhir Buhârî “라히메홀라후 타알라”^[1]는 말했다: “종교에 대한 지식의 책을 읽는 것은, 타하주드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 파르즈 즉 명령과, 하람 즉 금지들을, [학자나 그들이 저술한] 책들로 부터 배우라는 것을 명령 때문이다.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종교의 책을 읽는 것이, 테스비흐(tesbîh namâz: 용서를 받기 위해 수행하도록 하디스 셰리프에서 권장하는 기도 중 하나) нама즈를 바치는 것보다 더 보람이 있다. 하디스 셰리프들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모든 나필레(Nâfile: 파르즈와 와집이 아닌 다른 예배)들 보다 더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과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있다.” 및 “남들에 가르치길 위해서, 배우는 사람은, 의인(Siddîklar)들의 보람을 받는다”고 하셨다. 이슬람 지식은, 오직 학자와 책에서만 배울 수 있다. 이슬람 책과 가이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자들이다. 그것은 무슬림을 속이고, 그들을 재앙으로 이끌다. 종교 책들에 정보는, 꾸란알 케림 및 하디스 셰리프에서 추출되었다. 책 Hadîka^[2]에서 번역이 여기에서 완료되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예언자를, 꾸란알 케림을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보내셨다. 아스하브 키람은, 꾸란알 케림에 있는 정보를 예언자 라수룰라에서 배웠다. 종교 학자들도 아스하브 키람에서 배웠다. 모든 무슬림은, 종교 학자와 그들의 책들에서 배웠다. 하디스 셰리프들에서; “지식은 보물이다. 핵심은, 묻고 배우는 것이다.” 및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다!” 및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다. 경건의 근원은, 이슬람 성자의 마음이다.” 및 “지식 가르치는 것은 죄에 대한 속죄다.” İmâm-ı Rabbânî³라흐메툴라히 알레이히⁴ Mektûbât라는 책의, 첫 번째 권에서 193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셨다:

뮈켈레프(Mükellef)는, 즉 의식이 있고 성인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즉, 아흘리 순나트의 학자들이 기록한 신조 지식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믿는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 위대한 학자들의 업적에 대해 풍부들에 보상하기를 바

[1] Tâhir Buhârî, 542 [서기 1147]년에 사망하셨다.

[2] Hadîka의 저자, Abdülğanî Nablûsî는, 1143 [서기 1731]년에 사망하셨다.

란다! 아민. 심판의 날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것은,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믿는 것에 달려 있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오직 그들의 길을 가는 자들 뿐이다. [그 길을 따르는 자를 순니(Sünnî) 및 에홀리 순네트 왈 자마아트 라고 한다.] 책 즉 꾸란 알 케림에서 그리고 순네트 즉 하디스 세리프에 추출한 정보 중에서 가치 있고 정확한 것은, 오직 이 위대한 학자들이 책과 순네트들에서 이해하고 전달한 지식들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혁신가, 즉 모든 개혁가와 모든 (변태) 비종파적인 사람은, 잘못 생각들을 짚은 마음으로 책과 순나에서 추론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슬람의 진정한 아홀리 순나트의 학자들을 가리고 얹잡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책과 순네트에서 가져오려고 보고된 모든 말씀과 글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기만적인 화려한 선전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아홀리 순나트 왈 자마아트의 학자들이 보고하는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위대한 학자 Türpüşti성자의 페르시아(EI-mu'temed) 책은 매우 가치 있고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이 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실 출판사(Hakikat Kitâbevi), 1410 [서기 1989]년에 인쇄되었다. Fadlullah bin Hasen Türpüşti는, 하네피 프크흐 이슬람 학자다. 661 [서기 1263]년에 사망하셨다.]

신념, 즉 믿어야 할 정보를 수정한 후, 할랄(Halâl), 하람(Harâm), 파르즈(Farz), 와집(Vâcib), 순네트(Sünnet), 멘둠(Mendûb), 메크루흐(Mekrûh)라는 것들을, 이슬람의 진정한 학자들의 쓰여진 책들과 그것들은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이 학자들의 우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출판한 변질된 책들을 읽지 말아야 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보호하기를! 믿어야 하는 것들에 아홀리 순나트의 종파를 따르지 않는 신념 즉 믿음을 가진 무슬림들은, 내세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앙이 옳은 사람들은 숭배하는게 게으름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형벌을 받은 다음에 지옥에서 구원받을 거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Hâce Ubeydullah-i Ahrâr “칼데살라후 타알라 시레홀 아지즈”^[1]는 이렇게 말하셨다: “만약에, 나에게 모든 발견과 기적을 주어졌

[1] Ubeydüllâh-i Ahrâr은, 895 [서기 1490]년에 사마르칸트에서 사망하셨다.

다면, 그러나 아흘리 순나트 왈자마트의 신조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황폐화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발견도 기적도 없고 내 허물도 많았스면, 하지만 나에게 아흘리 순나트 왈자마트의 신조를 수여했다면, 나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인도에서 무슬림들은 너무 외롭다. 종교의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 오늘날 이슬람을 섬기기 위해 1리라(통화 단위)를 주는 것은 다른 시대에 수천 리라를 주는 것보다 더 보람이 있다. 이슬람에 대한 가장 큰 봉사는 아흘리 순나트의 책들 및 믿음과 이슬람의 책들을 사서, 마을의, 젊은 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하는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은 매우 행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슬람을 섬기는 것은 항상 보상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약하고,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이슬람이 멸망하려 하는 이 시기에 아흘리 순나트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보람이 있다. 라수룰라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은, 그의 동료들 아스하브 키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런 시대에서 왔다,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과 금지의 10분의 9를 따르고, 그 중 10분의 1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처벌을 볼 것이다! 당신 뒤에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명령과 금지들의 10분의 하나만을 따라하는 자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Mişkât-ül-mesâbih) 1권 179페이지에 그리고 Tirmizî와 Kitâb-ül-fiten 79페이지에 있다.] 이 하디스 셰리프에 명시된 시간은 이 시간이다. 불신자들에 대항하는 지하드 하고, 무슬림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행해지는 지하드 전쟁은 정부가 한다. 국가의 군대가 한다. 무슬림들 그러한 지하드를 하는 것은, 정부가 군인으로서 부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하드-이-카울리(Cihâd-ı kavli)는 지하드-이-카틀리(cihâd-ı katlî)보다, 즉 말과 글과의 전쟁이 무력과의 전쟁보다 이롭다는 것은, 65번째 편지에서 쓰여 있다.] 아흘리 순나트의 학자들의 책과 말을 퍼뜨리기 위해 반드시 기적적 사람이나 학자가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무슬림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심판의 날에 그들은 모든 무슬림에게 이것에 대해 물을 것이고, 그들은 왜 당신이 이슬람을 섬기지 않았는지 물을 것이다. 교리서 책을 퍼뜨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그리고 종교 지식을 퍼뜨리는 기관과 개인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과, 변명 수락되지 않을 것이다. 예

언자들 알레이히뮤셀람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지 않았다. 그들은, 알라후 타알라의 종교와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들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창조하신다. 나의 의무는, 알라후 타알라의 종교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동안, 알라후 타알라는, 그들을 돕고 기적을 창조하셨다. 우리도, 아흘리 순나트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의 학자들의 책과 말을 널리 퍼뜨리려야 한다. 불신자, 적, 무슬림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사악하고 낮고 거짓말쟁임을, 젊은이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보고하는 것은 험담이 아니다. 에므리 마루프 (Emr-i ma'rûf: 잘 알려진 영장. 종교에서 명령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가 된다.] 이 길에서, 재산과 힘과 직업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 길에서 일하는 동안, 고통을 큰 행복과 큰 이익으로 알아야 한다. 예언자들 “알레이히뮤살라와트”은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을 전하는 동안 그들은 무지하고 타락한 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장로들 중 가장 우월하고 선택된 사람이자 알라후 타알라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레이히셀람은 “나만큼 고문을 받은 예언자가 없었다.”라고 말했었다. Mektûbât 책의 번역이 완료되었다.

[모든 무슬림은 아흘리 순나트의 신조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흘리 순나트의 학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책과 신문을 찾아서 사고, 그가 아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의 적들의 내면을 설명하는 책들도 퍼뜨려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무함메드 ‘알라이히살람’의 종교를 바꾸거나 고장나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에흘리 순네트의 학자들은, 이즈티하드의 경지에 오른 4종파의 학자들이다. 이들 중 가장 위대한은 4명이며, 첫 번째는 İmâm-ı a'zam Ebû Hanîfe Nu'mân bin Sâbit(이맘 야잠 에부 하니페 누만 빈 사비트) ‘라히메후물라후 타알라’다. 그는 이슬람 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중에 하나다. 그는 에흘리 순네트의 지도자다. 그에 대한 정보의 번역은, (Se'âdet-i Ebediyye)과 (Fâideli Bilgiler)책들에 길게 기록되어 있다. 히즈렛 이주의 80년에

쿠파에서 태어났으며, 150년 [서기 767]년에 바그다드에서 순교 하셨다.

둘째는, imâm-ı Mâlik bin Enes ‘라히메홀라후 타알라’는 너무 위대한 학자다. 그는 히즈렛 이주의 90년에 메디나에서 태어났고, 179년 [서기 795년]에 그곳에서 사망 하셨고, 그가 89년을 살았고 책 ibni Âbidîn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Mâlik bin Ebî Âmir이다.

셋째는, imâm-ı Muhammed bin İdrîs Şâfi‘î ‘라히메홀라후 타알라’는 이슬람 학자들의 눈의 사과다. 150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태어났고, 204 [서기 820년]에 이집트에서 사망하셨다.

네 번째는, imâm-ı Ahmed bin Hanbel ‘라히메홀라후 타알라’이며 164년에 바그다드에서는 태어났고, 241 [서기 855년]에 그곳에서 사망하셨다. 그는 이슬람 건물의 기둥다 ‘라히메툴라히 알레이힘 에즈마인’.

오늘날, 이 네 명의 학자 이맘 중 한 명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들 외에도, 에흘리 순네트의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올바른 종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종파들은 잊혀졌다. 책들에 기록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푸카하이 세바 (Fukahâ-i seb’a)라고 불리는 메디나에서 7명의 위대한 학자들 그리고 Ömer bin Abdül’azîz, Süfyân bin Uyeyne^[1], İshak bin Râheveyh, Dâvûd-i Tâî, Âmir bin Şerâhil-i Şa‘bî, Leys bin Sa’d, A’mes, Muhammed bin Cerîr Taberî, Süfyân-ı Sevrî^[2] 및 Abdürrahmân Evzâî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가 그 중 하나들이다.

모든 아스하브 키람 ‘라드알라후 타알라 알레이힘 에즈마인’은 올바른 길의 별들이었다. 그 중 하나면, 온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무즈타히드(Müctehid: 자신의 당대의 모든 과학과 이슬람 정보들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학자. 이즈티하드의 계급으로, 즉 꾸란알 케림 케림와 하디스 셰리프들 및 기타 모든 종교적 증거에서 결론을 이끌 수 있는 계급에 있는 위대한 이슬

[1] Süfyân bin Uyeyne, 198 [서기 813년]에 메카에서 사망하셨다.

[2] Süfyân-ı Sevrî, 161 [서기 778년]에 바스라에서 사망하셨다.

람 종교 학자) 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종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종파 대부분은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그들의 종파가 모여져 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를 수는 없다. 4명의 학자 이맘의 종파들이, 즉 믿고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한 것을, 그들 자신과 학생들은 모았고 설명했다. 책들에 기록되었다.

오늘날 모든 무슬림은, 이 네 명의 이맘 중 한 사람의 종파에 있어야 하며, 이 종파에 따라 생활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종파에 중 하나를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에흘리 순네트 아니다. 시작 부분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네 명의 이맘 중 두 명의 제자는, 믿음의 지식을 전파하는 데 탁월했다. 따라서, 신조와 믿음에서 종파는 두개 되었다. 꾸란알 게림과 하디스 셰리프에 따른 진정한 믿음은, 오직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믿음이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종파는 에흘리 순네트의 길의 신앙 지식을 전파하는 이 두 사람이다. 그들 중 하나는 Ebül-Hasen Eş'arî '라히메홀라후 타알라'이며, 그분은 히즈렛 즉 이주의 [266]년에 바스라에서 태어났고, 333 [서기 941]년에 바그다드에서 사망하셨다. 두 번째는 Ebû Mensûr-i Mâtürîdî '라히메홀라후 타알라'이며, 333 [서기 944]년 사마르칸트에서 사망하셨다. 모든 무슬림들은 이 두 위대한 이맘 중 한 사람의 신조를 따라야 한다.

에윌리아 즉 성자들의 길은 옳다. 그들은 이슬람과 조금 이라도 분리되지 않다. [종교를 세속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부와 지위를 얻기 위해 수호자, 멘토, 성직자로 등장한 거짓말쟁이와 변태들이 매 세기마다 있었다. 오늘날 도 모든 직업, 모든 예술, 모든 의무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이득과 즐거움을 타인의 손상물 속에서 찾는 자들 보며, 그들이 관련된 모든 공무원과 직업을 더럽히는 것은 불공평하고 무지할 것이다. 그건 부패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변태적인 종교인, 무지하고 거짓된 이교도를 보니깐, 이슬람 학자들, 신비주의자들, 역사의 명예로운 페이지들을 자신의 봉사료 채우는 위대한 사람들을 무례 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무례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성자들에게는 케라메트(Kerâmet: 우월함. 그가 어느 선지자의 움마 출신인지에 관계 없이 성자들은 관습 밖에서, 즉 물리, 화학, 생리 법칙 밖에서 일어나는 사물과 사건. 케라메트는 성자들에게만 일어나고, 기적은 예언자들에게만 이룬다)가 있다. 모두 정품이

고 맞다. 성자 imâm-ı Yâfi'î^[1]는 이렇게 말했다: “Gavs-üs-sekaleyn(가브스의 경지에 도달하여 사람과 진 및 정령을 도운 위대한 성자) mevlânâ Abdülkâdir-i Geylânî ‘카떼살라후 타알라 시레홀 아지즈’^[2]의 케라메트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의심하는 것과 믿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처에 번지는 것은 증거[Tevâtür], 처럼 된다.”

나마즈(namâz)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신성모독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제 없이 말하는 것으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그의 불신자임을 확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불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그가 불신자로 죽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 그에게 저주를 하면 안된다. 심지어 이단자들에 저주도 허용되지 않다. 이를 위해 Yezîd에 저주를 안 하는게 낫다.]

5 — 믿음 하는 것이 필요한 여섯 가지 중 다섯번째는,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이다. 이 시간의 시작은 사람이 죽는 날이다. 종말이 끝날 때까지다. 마지막 날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밤이 오지 않거나, 세상의 뒤에 오기 때문이다. 하디스 세리프에 나와 있는 이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을 의미하지 않다. 시간을 의미한다. 심판의 날이 언제 닥칠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은 그의 많은 징후와 시작을 발표하셨다: 하드라트 Mehdî(메흐디)가 올 것이고, îsâ(예수)알레이히셀람이 하늘에서 다마스쿠스로 내려올 것이며,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다. 곡과 마곡 라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해는 서쪽에서 떠오를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 지식들은 잊혀질 것이다. 죄와 악이 증가할 것이다. 비종교적이고 부도덕하며 부정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며,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람은 모든 곳에서 저지를 것이고, 예멘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하늘과 산들이 무너질 것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바다들은 섞일 것이며 끓고 말라 버릴 것이다.

죄를 짓는 무슬림들은 죄인들(Fâsîk)라고 한다. 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무덤에서 고통이 있다. 물론, 이것들을 다 믿어야 한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 놓일 때, 알 수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1] Abdüllah Yâfi'î는, 768 [서기 1367]년에 메카에서 사망하셨다.

[2] Abdülkâdir Geylânî는, 561 [서기 1166]년에 바그다드에서 사망하셨다.

거기서 편하거나 고통을 것이다. 문케르(Münker)와 네키르(Nekîr)라는 두 천사가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사람들의 형태로 무덤에 와서 질문할 것이라고, 하디스 셰리프는 분명히 말하신다. 무덤 질문은,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일부 신조를 나을 것이고, 어떤 학자에 따르면 모든 신조를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야? 당신의 종교는 뭐야? 당신은 어느 예언자의 움마 및 사람 출신이야? 당신의 책은 뭐야? 키블라(Kible: 무슬림이 어디에 있든 기도를 시작할 때 방향을 돌려야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의 방향)는 어디야? 신조에서 행동에서 당신의 종파는 뭐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야 한다! 예홀리 순네트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올바르게 답할 수 없다고 책(Tezkire-i Kurtubî)^[1]에 기록되어 있다.] 대답을 잘하는 자의 무덤은 넓어지고, 이곳에는 낙원의 창이 열릴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그들은 낙원에 있는 자기들의 장소를 볼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잘 대답하지 못하면 철 망치로 맞아, 인간과 진들 밖에, 모든 생물이 그의 외침을 듣게 될 것이다. 그의 무덤은 그의 뼈들이 맞물리듯 쥐짜질 정도로 좁을 것이다. 지옥의 창이 열릴 것이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옥에서 보고, 종말이 올 때까지 무덤에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 것이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어야 하다. 뼈와 살이 썩어 흙과 가스가 된 후에 몸이 다시 창조되고, 영이 그 몸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를 (심판의 날)이라 부른다.

[식물은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 가스를, 토양으로부터 물과 염분, 즉 토양 물질을 흡수하여 결합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유기체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 수년 동안 지속되는 화학 반응은 (촉매)를 사용하여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즉시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날 알려져 있다. 이걸처럼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무덤에서 물, 이산화탄소, 토양 물질을 결합하여 유기물과 생체를 순식간에 창조하실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Muhbir-i sâdik (진실한 정

[1] Tezkire의 저자, Muhammed Kurtubî Maliki는, 671 [서기 1272]년이 사망하셨다. 이 책(Muhtasar-ı Tezkire-i Kurtubî)은 Hakikat Kitabevi 의해 1421년 (서기 2000년)에 다시 재인쇄되었다.]

보 제공자)는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과학은 이것이 이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심판의 자리에 모일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위의 책은 소유자에게 날아갈 것이다. 이 일은 땅, 하늘, 입자, 별의 창조자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알라후 타알라께서 행하실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의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분의 말한 것은 물론 사실이다. 물론 다 그럴 것이다.

(Sâlih)의인과 선인의 행위의 책은 오른쪽에서, (Fâsik)죄인과 악인의 뒤나 왼쪽에서 주어질 것이다. 좋은, 나쁜, 큰, 작은, 비밀로 또한 공개적으로 모든 일이 행위의 책에서 기록될 것이다. 심지어 키라멘 카티빈(Kirâmen kâtibîn)의 천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몸을 통해 그들에게 알리거나, 알라후 타알라의 의해 드러날 것이며 모든 것이 질문되고 설명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바라시는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천사들에게 “땅과 하늘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예언자와 선지자들 살레와툴라히 타알라 베 테슬리마튜후 알레이힘 에즈마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법령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하였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예언자들을 따랐느냐?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떻게 수행했느냐? 서로 간의 권리는 어떻게 준수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마흐셰르(Mahşer: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믿음과 선한 행실과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상과 축복이 있을 것이며, 나쁜 매너와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그의 원하시는 무슬림들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원하시면 다신교와 불신앙을 제외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하시면 작은 죄도 공의로 징벌하실 것이다. 그는 다신론자나 불신자로 죽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셨다. 책이 있든 없든 모든 불신자, 즉 무함마드 알라이히살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예언자임을 믿지 않고, 그가 선언한 법령, 즉 명령과 금지 사항 중 하나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그들은 물론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못하는 척도, 저울(Mizân)미잔이 있어 행위를 측량한다. 이 규모의 한 접시에 땅과 하늘이 들어맞다. 이 척도의 보상

쪽은 밝고, 하늘의 오른쪽에, 낙원의 편에서 있다. 죄 쪽은 어둡고, 하늘의 왼쪽에 지옥 편있어서 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말, 생각, 외모가 거기에서 구체화되고, 선한 행위는 밝게 나타나고, 악한 행위는 어둡고 역겨워서 이 저울에 달아질 것이다. 이 척도는 세상의 척도와 다르다. 무거운 쪽이 올라간다. 가볍 쪽이 내려간다고 한다. 일부 학자(라히메휴물라후 테알라)에 따르면 다양한 척도가 있을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저울의 개수와 크기가 종교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라트(Sirât)다리가 있다. 시라트 다리는 알라후 타알라의 명령에 따라 지옥 위에 건설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 다리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날에는 모든 예언자들이 (오 하나님! 평화를 주소서!)라고 간구할 것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쉽게 다리를 건너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번개처럼 지나가고, 일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일부는 달리는 말처럼 지나갈 것이다. 스라트 다리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롭다. 세상에서 이슬람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슬람을 완전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라트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신으로 고군분투하는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스라트를 쉽고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라트 다리를 건너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슬람이 보여준 직선 경로를 Sirâtu müstakîm(스라트 뮤스타킴은, “옳은 확실한 길”을 의미하는 “Sirât”와 “균형 있고 곧은”을 의미하는 “müstakîm”으로 구성되고 “명확하고 곧고 참된 길”을 의미한다)이라고 명명하셨다. 이름의 이러한 유사성은 이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시라트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옥 사람들은 시라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단지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 무스타파(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의 위한 Kevser 수영장이 있다. 그 크기는 한 달 여행과 같다. 그 물은 우유보다 더 하얗고, 향이 사향보다 더 좋다. 그 주위의 유리잔 별보다 더 많다. 그건 한 번 마시는 사람은, 심지어 지옥에 떨어져도 다시 목마르지 않다.

중보기도가 즉 세파아트(Şefâ'at)가 진짜 있다. 회개하지 않고 죽은 무슬림들의 크고 작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언자, 성자, 의인, 천사, 그리고 알라후 타알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들이 중재하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의 예언자 살랄라후 타알라 알레이히 베셀렘]이 말하였다: “나의 움마에서 큰 죄를 범한자들에 중재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다섯 가지 유형의 중보기도가 있다:

첫째는, 심판의 날, 군중에 지쳐 너무 오래 기다리던 죄인들은 울부짖으며 가능한 빨리 판결이 내려지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질문과 계산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죄를 지은 무슬림들이 스라트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다.

넷째는, 죄가 많은 무슬림들을 지옥에서 추방하기 위해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천국에서 무수한 축복과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8도가 있다. 모든 사람의 학위, 지위는 그의 신념과 행위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중보기도가 있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존재한다. 천국은, 일곱 하늘 위에 있다. 지옥은, 모든 것 아래에 있다. 여덟 개의 천국과, 일곱 개의 지옥이 있다. 천국은 땅과 해와 하늘보다 크다. 지옥은 태양보다 크다.

6 — 믿음 하는 것이 필요한 여섯 가지 중 여섯째는; (운명을 믿는 것, 즉 선과 악은 알라후 타알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득(hayr)과 손실(şer)은 알라후 타알라의 재량에 달려 있다. (카다르)운명은 사전에서 다양성을 측정하고, 지배하고, 명령한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다양성과 위대함을 의미한다. 알라후 타알라의, 무언가의 존재에 대한 영원에서 소망을 카다르(Kader: 운명)라고 한다. 카다르(운명) 존재는 것은, 즉 원하는 것의 존재 되면 카다(Kazâ)라고 한다. 카다와 카다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될수도 있다. 따라서 카다는 알라후 타알라

께서 영원전에서 영원까지 창조될 모든 것들을, 이미 영원에서 뜻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의 카다(Kazâ)에 따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창조를 운명이라고 부른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 전들에 알고 계셨다. 이 지식을 카다와 카다르(Kazâ ve kader)이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이나에티 에젤리에(inâyet-i ezeliyye: 존재가 영원하신 알라후 타알라의 은혜와 도움)라고 불렀다. 모든 존재는 그 카다(Kazâ)로부터 생겨났다. 알라후 타알라의 영원전에 지식에 따라, 만물의 존재도 (카다와 카다르)라고 불린다. 카다르를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알고 믿어야 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영원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원하는 대로 존재해야 한다. 그가 원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동물, 식물, 무생물, [고체, 액체, 기체, 별, 분자, 원자, 전자, 전자기파, 간단히 말해서 모든 존재의 움직임, 물리적 사건, 화학 반응, 핵반응, 에너지 교환, 생명체의 생리적 활동] 모든 것의 존재와 부재, 종들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의 형벌을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영원하신 알라후 타알라께서 지식 속에 존재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원전 부터 알고 있던 것에 따라 영원전 부터 영원 까지 존재할 모든 만물, 속성, 움직임 및 사건을 창조신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선과 악행, 이슬람으로의 개종, 종교를 버리게 만드는 불신, 그리고 사람들의 원하거나 원치 않는 모든 행동을 창조하신다. 그분(알라후 타알라께서)만이 만드신 창조자이신다. 원인으로서는 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는 이유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예를 들어, 불은 가연성이다. 그러나 그것을 불태우시는 분은 알라이시다. 불은 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불이 무언가에 닿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다. [불은 점화 온도까지 가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유기체의 구조에 있는 탄소,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전자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이 아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불은, 타게 만들다고 생각한다. 연소 반응을 촉발하는 것은 불이 타는 것이 아니다. 산소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다. 전자 교환도 아니다. 불타오르게 만드는 분

은 오직 알라후 타알라이시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불타게 만드는 원인으로 창조하셨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이가 피운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불이 피우고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다. 그들은 “공기가 불타고 있다”라고 말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그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기 중의 산소가 태운다”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연소는 산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전자를 끌어당기는 요소가 가연성이다”라고 말한다. 대학생이라면 물질과 함께 에너지도 고려한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제의 내면에 더 잘 접근한다고 보고,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에 뒤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식과 과학의 최고 수준에 있고 진리를 완벽하게 보는 예언자들 “알레이히무살람”과, 그 위대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지식의 바다의 물방울을 만난 이슬람 학자들 “라히메후물라후 테알라”는, 오늘날 가성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기력하고 비참한 수단이자 생물이며, 진정한 창조자는 원인이 아니라 알라후 타알라이시다 라고 말한다.] 불이 타오게 만드신 분은 알라후 타알라께서다. 그분은, 불 없이도 타오게 만드시다. 그러나 불로 타오는 것이 그의 품습이다. 그는, 타오게 만들게 싶지 않았다면, 불에서도 타지 않다. 그는, 이브라힘’알레이히살람’을 불에서 태우지 않았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예언자 이브라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통을 깨뜨렸다. [실제로 그는 불이 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들도 창조하셨다. 이 물질들은 화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뜻을 가지셨다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불 없이 타버릴 것이고, 먹지 않아도 배를 채우고, 비행기 없이 날고, 라디오 없이도 멀리서 들었다는 이런 세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은혜로 선을 행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원인을 두셨다. 그는 특정한 어떤 이유로 특정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원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숨겼었다. 그는 이유 아래 자신의 권력을 숨겼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가 무언가를 창조해 주기를 원하는 종은, 자신이 원하는 것의 이유를 찾고 원하는 것을 얻다. [등불을 켜려는 사람은 성냥을 사용한다. 올리브 오일을 추출하려는 사람들은 프레스 도구를 사용한다. 두통이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약)을

먹는다. 천국에 가서 끝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따른다. 총으로 자신을 쏘는 사람은 죽는다. 독을 마시는 자는 죽는다. 땀을 흘리면서 물을 마시면 병이 된다. 죄를 짓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모든 사람이 어떤 원인을 사용하든, 그 사람은 그 원인에 의해 중재되는 것을 달성한다. 무슬림 책을 읽는 사람은 이슬람에 대해 배우고 사랑하며 무슬림이 된다. 신앙심 없는자와, 종파 없는자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종교에 대해 무지한 된다. 종교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단자가 된다. 사람이 어느 차량을 타면, 그곳으로 간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드신다.
모든 원인을 창조하시고, 한 순간에 부여하신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어떤 이유로 일들을 창조하지 않았서다면, 누구도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알라후 타알라께서 모든 것을 원했으며, 누구도 직접 열심히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윗사람, 관리, 노동자, 장인, 학생, 교사,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세상과 내세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조화로운 것과 반항하는 것, 충성하는 것과 반항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전통을 다르게 행하셨을 것이다. 그는 그의 관습에 따라 모든 것을 창조했다. 예를 들어, 그가 만약 원했다면, 불신자들, 세상에서 쾌락과 독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는 사람들을 낙원에 들여보내셨을 것이다. 신앙을 갖고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예티 케리메와 하디스 셰리프는 하나님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원하는, 원하지 않는 모든 행위와 일들을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자발적인 행동과 행위를 할 의지력을 창조하셨고, 이러한 종들의 선택과 소망이, 일을 창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어떤 종이 무엇인가를 하기로 선택하고 원할 때, 알라후 타알라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창조하신다. 종이 원하지 않고, 알라후 타알라께서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지 않으실 것이

다. 그것은 종의 뜻이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시면 창조하신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의지적인 행위로 창조하시는 것이, 불이 무엇인가에 닿으면 그 물건이 타는 일이 생기고, 불이 닿지 않으면 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칼날이 어느 닿으면, 절단이 생성 된다. 칼이 자르는 거 아니다. 그는, 칼에 자르는 이유를 창조하셨다. 즉,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종들의 의지, 행동에 대한 선호 때문에 종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창조한다. 그러나, 자연의 움직임은 하인의 뜻에 좌우되지 않다. 이것들은 알라후 타알라가 원할 때만 다른 이유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태양, 입자, 물방울, 세포, 미생물, 원자 등 모든 것의 물질, 속성 및 움직임을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분(알라후 타알라께서) 외에는 창조자가 없다. 그러나, 무생물의 움직임과, 인간과 동물의 자발적인 움직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즉, 하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때 알라후 타알라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인에 행동을 주시고, 그 일을 창조하신다. 하인의 움직임은 하인의 능력에 있지 않다. 하인은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조차도 모른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수많은 물리적, 화학적 사건에 의해 형성된다.] 무생물의 움직임에는 (원하는) 것이 없다. 불이 닿았을 때 불이 생성되는 것은, 불이가 타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종들의 선하고 유익한 소망을 그분도 원하시고 창조하신다. 그는, 그들의 나쁘고 해로운 소망을 원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다. 이 종들에게는 언제나 선하고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종들은 그들의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 일들이 해로워서 때문에 창조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했었다면 그들은 전혀 슬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행복할 것이고 알라후 타알라에게 감사할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뜻에 따라 그들의 고의적인 행위를,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뜻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의 뜻 있는 행동들도 우리의 뜻 없이, 강제로 창조하실냈을 것이다. 우리가 구한 후에 그분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

라후 타알라의 의지가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인의 자발적인 행동은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첫째, 그것은 종의 마음 속에 의지와 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유로 하인의 행동을 (Kesb: 행하다, 행동하다, 획득하다, 승리하다)이라고 부른다. Kesb는 인간의 형용사이다. 둘째, 알라후 타알라의 창조는, 존재하시는 만들어 이루어진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명령하시고, 금지하시고, 보상하시고, 처벌하신다는 사실은 인간 안에 (Kesb)가 있기 때문이다. Saffât(사파트)장의 96번째 구절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셨다. 이 구절은 사람들의 (Kesb), 즉 그들의 행동들에 (irâde-i cüz’iyye)마음의 욕망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요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 불리는 이유다. 예를 들어 “알리가 총에 맞아, 부러졌다”라고 한다. 또한 모든 것이 알라후 타알라께서 카다와 카다르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드러낸다.

하인의 일을 하고 알라후 타알라 그것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먼저 하인의 마음이 그것을 원해야 한다. 하인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원한다. 이 원함, 요청과 소원을 케스브(Kesb)라고 한다. Âmidî merhûm은, 이 케스브가 만물 창조의 원인이라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이 케스브(원함)가 원하는 일들 창출에 영향을 과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된다. 창조될 일은, 하인이 원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다. 종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모두 갖지 않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신성을 감히하는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종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힘과 활력을 주시고 명령과 금지 사항에 순종하도록 하셨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순례를 갈 수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라마단 초승달[달]을 보면 매년 한 달 동안 단식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5가지 필수 нама즈를 수행할 수 있다. 부와 돈의 니삽(Nisâb: 필요한 만큼 보다 더 많은)을 가진 사람은 히즈리 1년이 지나면 40분의 1의 금과 은을 분리하여 무슬림에게 자카트 재산을 줄 수 있다. 보시다시피, 사람은 원하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위대함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카다와

카다르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에홀리 순네트 학자들의 말을 믿지 않다. 그들은 하인들의 힘과 욕망을 의심한다. 그들은 인간은 자신의 원하는 활동을, 무력하고 강요당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일들에서 하인의 욕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Ehl-i sünnet이를 모욕한다. 이러한 부패한 말들은, 그들에게 의지와 욕망이 있음을 나타낸다.

뭔가를 하기와 안하기를 그리고 능력을 갖는 것을 Kudret(쿠드레트:힘)이라고 부른다. 하기를 선호하거나 하지 않기를 선호하는 것, 선택, (ihtiyâr: 원함) 원한다고 부른다. 선택적인 일을 하는 것을, (irâde: 의지) 소망이라고 부른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Rizâ: 동의하다) 좋아함이라고 부른다. 일 수행에 효과적인 의지와 힘의 결합을 (Halk)창조라고 한다. 효과 없이 함께 모이는 것을 케브(Kesb)라고 한다. 욕망하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창조자가 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모든 것에 만족할 필요는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Hâlik)과 (Muhtar)라고 불린다. 하인들은 (Kasib)와 (Muhtar)라고 불린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종들에 순종과 죄를 원하시고 창조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으로 만족하신다. 그분은 죄를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과 창조로 존재한다. 에남(En'âm)장 102절에는 “그분(알라후 타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그는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되어 있다.

무타질라(Mu'tezile) 종파의 사람들은, 의지와 동의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한다”고 말했었다. 그들은 카다와 카다르를 부정했다. 자브리야(Cebriyye) 종파도 완전 놀랐다. 그들은 창조 없이도 원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돌과 나무에 비유했다. Hâşâ(회개,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모든 악행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 자브리야 종파의 구성원들이 말했듯이, 인간에게 의지와 욕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악과 죄를 행하셨다면, 손발이 묶인 채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과,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 내려가는 사람의 움직임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강제로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의지와 재량에 따라 내려간다. 서로의 차이를 볼 수 없는 사람

들의 의견은 짧다. 더욱이 그들은 구절을 믿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를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무타질라(Mu'tezile) 또는 카다리야(Kaderiyye) 종파에서 말했듯이,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구절(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알라후 타알라이시다)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창조에 있어서 알라후 타알라의 파트너가 된다.

무타질라(Mu'tazila)와 같은 시아파(Şī'ī)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한다고 말한다. 당나귀가 막대기를 먹어도 물 속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견 증거다 라고 보여준다. 그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데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타질라 종파의 말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다. 그것들 말했듯이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면, 알라후 타알라께서 무능할 수밖에 없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약점으로부터 멀리다. 오직 그분이 뜻하시는 일은 일어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사람들이, “그가 이것을 창조했다, 우리가 이것을 창조했다, 그들이 이것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쓰는 것은 매우 추악한다. 그것은 알라후 타알라께서에게 무례한 것이다. 욕설의 원인이 된다.

[하인들의 자발적인 행동들도 이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물리적, 화학적, 생리학적 사건과 함께 발생한다. 이 미묘함을 이해하는 성실한 과학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가 창조했다” 말하기는커녕, “내가 그랬어”라고 말하는 것조차 지루해한다. 그는 알라후 타알라에게 부끄러워하고 주저한다. 지식, 이해, 문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지루하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분께서, 하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보낸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해로운 욕망, 나쁜 친구, 해로운 책과 라디오에 속아 불신과 오도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에 인도하신다. 그것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그는 호색하고 잔인한 자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지 않으시다. 알라후 타알라는,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빠지는 부정의 늪에 버려두신다.]

여기에서, (î'tikâdnâme)이티카드나매 책은, 페르시아어에서 터키어로 번역하는 것이 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번역을 단순화하여 1966년에 (믿음과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이 번역을 만든 하지 페이줄라 에펜디(hacı Feyzullah Efendi)는 에르진잔(Erzincan)의 케마(Kemâh) 마을 출신이다. 그는 오랜 동안 Söke에서 교수로 일했고, 1323 [서기 1905]년에 사망했다. 이 책의 저자인 Mevlânâ Hâlid-i Bağdâdî Osmânî '쿤디세 실로'는, 1192년 바그다드 북쪽의 Şehrezûr 시에서 태어났고, 1242 [서기 1826]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했다. 성자 Osmân-ı Zinnûreyn '라드알라후 안흐'의 후손이므로, Osmânî 라고 불린다. 그의 형제인 Mevlânâ Mahmûd Sâhibî, imâm-ı Nevevî의 책 하디스 에르바인(Hadîs-i erba'în)에서 두 번째 하디스와 유명한 하디스 셰리프를 읽고, Mevlânâ Mahmûd-i Sâhib은 그의 큰 형에게 이 하디스 셰리프를 적어달라 설명하라고 요청했었다. Mevlânâ Hâlid '라히메툴라히 알레이히'는, 그의 남동생의 빛나는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소원을 받아들이고 이 하디스를 페르시아어로 설명했다.

- 5 -

ŞEREFÜDDÎN MÜNÎRÎ 세레푸딘 무니리 '라히마홀라후 타알라'의 편지: (이유들을 준수해야한다)

인도에서 자란 위대한 이슬람 학자 중 한 명이 Şerefüddîn Ahmed bin Yahyâ Münîrî '라히메툴라히 알레이히'는, 페르시아어 (Mektûbât)책의 열여덟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심과 상상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잘못된다. 이렇게 잘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우리의 예배를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께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위대함에 맞서, 사람들이 숭배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동일한다. 예배자들은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이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들은, 예배가 알라후 타알라께서에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각 사람의 예배의 유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파티르(Fâtr) 장의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하지 않는 환자와 같다. 의사는 이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권유한다. 반면 이 환자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해가 되지 않다”며 다이어트 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자해를 하고 있다. 의사가 다이어트를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니라, 환자에게 질병을 없애기 위해 다이어트하라고 조언한다. 환자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면 치유될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의사가 이것으로 인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람을 피하지도 않으며, 즉, 이슬람을 따르지 않다. 그들은 “은혜후 타알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다. 그분은 누구도 처벌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한다. 네, 그의 첫 말들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그 마지막 말은 틀렸다. 여기서 마귀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것은 반란으로 이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Rahîm와 Kerîm(자궁과 은혜, 자비로우심)이 있는 것처럼, 그의 고통도 혹독하시고, 가연성이시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본다. 그의 많은 하인들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고통 속에 살게 만든다. 그는 매우 관대하며 사람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사람은 라자크(Rezzâk)임에도 불구하고 농사 문제와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빵 한 입도 주지 않으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은 살리지 않으시다. 약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 치료되지 않으시다. 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세상의 모든 축복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주셨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 이유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

며, 그에게서 세상의 축복을 박탈하신다. 의약품은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치료법은 자선을 베풀고 기도이다. 하디스 “자선을 베풀어 환자를 치료하세요!”와 “많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다!”가 유명하다. 많은 물리치료제가 있다. 경험을 통해 이해된다. 영적인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질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내세의 축복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신앙은,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게으름은 영혼을도 병들게 한다. 약을 주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된다. 이단과 무지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지식과 독창성이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방법은 намаز(namâz)를 수행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독을 먹고 “알라는 자비로우시니 독의 해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설사병이 있는 사람이 인디언 오일을 마시면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과자와 패스트리를 먹으면 질병이 증가할 것이다. 사람의 몸은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음식, 의복, 주거)이 풍부하다. 그것들 찾고, 이슬람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일이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들에 nefs(영혼)이라는 별도의 힘이 만들어졌다. 이 힘이 동물에게 생성될 이유가 없다. 영혼은, 몸에 필요한 일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에게 달콤하게 된다. 영혼의 욕망을 정욕, 생욕이라고 한다. 색욕을, 마음 생각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마음과 몸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죄가 된다. (Se’âdet-i Ebediyye)책의 페이지 32를 보세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금욕주, 굶어서 수행 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슬람이 좋아하지 않는 정욕, 분노, 오락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슬람이, 이런 것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도 이러한 나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했다고 생각한다. “이 이슬람의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물에 내재된 습관을 제거할 수 없다.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 잘못된 일을 한다. 특히 “이슬람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무지이고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이슬람은 분노, 정욕, 인간 속성의 파괴를 명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슬람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슬람이 이렇게 명령했다면, 그 종교의 주인인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서는 이런 속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는 인간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를 낸다”고 말하셨다. 그는 때때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항상, 알라후 타알라 위해서 분노였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꾸란 알카림에 알리 임란(Âl-i imrân)장에 134절에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겨낸) 사람을 칭찬하신다. 잘못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수룰라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렘’은, 9명의 아내 ‘라드알라후 타알라 안훈네’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이 진술이 잘못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의 정욕이 사라지면 약을 만들어서 다시 정욕을 가져야 한다. 분노도 그렇다. 남자는 분노라 형용사로 아내와 자식을 보호한다. 그는 이 속성의 도움으로 이슬람의 적들에 맞서 싸운다. 자식을 낳고 죽은 뒤에 영광으로 기억되는 것은 정욕 덕분이다. 이것은 이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들이다.

이슬람은 정욕과 분노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둘 다 종교에 따라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그들이 전사의 말과 사냥꾼의 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욕과 분노는 사냥꾼의 개와 말 탄 자의 말과 같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내세의 축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하여, 종교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징계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며,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들을 재앙에 이르게 할 것이다. 금욕주의는 이 두 가지(욕망과 분노) 속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종교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문명은, 원자력을 사용하거나 제트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명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을 따름으로써 달성된다.

왜곡된 사상가의 네 번째 부분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다. 아

이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그가 Saïd(사이드: 낙원의 일을 행하고 낙원에 들어갈 자)인지 Şakî(샤키: 지옥같은 짓을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인지 분명하다. 이것은 나중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배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 라수룰라흐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람’이, 카다와 카다르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영원 이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을 때, 아스하브 키람도 똑같이 말했었다. 그들은 “영원전에 예정을 믿읍시다. 예배하지 말자”고 했다. 알라후 타알라의 예언저 ‘살랄라후 알레이히 베셀람’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다: “예배를 하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정된 일을 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즉, 영원 전에서 알라후 타알라께서, Saïd이라고 아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이드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 부터, 영원 전에서 사이드 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샤키 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영원 전에 강하게 삶을 예정된 사람들 음식과 약을 먹고 병에 안걸리는 것과, 영원 전에서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기로, 영원 전에 부터 예정된 사람이, 음식이나 약을 받을 몫이 없다. 부자가 되도록 영원 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길이 열려 있다. 동쪽에서 죽도록 영원 전에 예정된 정해진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 닫힌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저승 사자 아즈라일(Azrâîl) ‘알레이히 살람’은, 솔로몬(Süleymân) ‘알레이히살람’에게 왔을 때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천사의 엄숙한 모습을 두려워했다. 아즈라일 ‘알레이히살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은 솔로몬 ‘알레이히셀람’에게 간청했다, “나를 아즈라일 ‘알레이히셀람’에서 구해세요, 바람이 나를 서쪽 나라 중 하나로 데려가도록 바람에게 명령을 내리세요”는 요청했었다. 아즈라일 ‘알레이히셀람’이 다시 왔을 때 솔로몬 ‘알레이히셀람’은 그에게, 왜 그 남자의 얼굴을 그렇게 가혹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다. 아즈라일 ‘알레이히셀람’이 말했다. “한 시간 뒤 서쪽에 있는 한 도시에서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명령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를 보고, 그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 [이 이야기는 Celâlüddîn-i Rûmî¹⁾라히마룰라후 타알라]의^[1] 책(Mesnevî)에 길게 기록되어 있

[1] Celâlüddîn-i Rûmî는, 672 [서기 1273]년에 콘야에서 세상을 떠났시다.

다.] 보고다시피, 영원 이전의 감상은 질서가 아니라 과학이다. 81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이루어질까바 아즈라일 ‘알라이히살람’을 두려워했다. 솔로몬 ‘알레이히셀람’은 그에게 순종했다. 영원 이전 예정은 원인의 사슬에 의해 성취되었다. 마찬가지로, 영원 전에서 사이드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믿음을 갖고 금욕주의하며,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암(En’âm) 장의 125절에는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자신이 인도하고자 하는 종의 마음에 이슬람을 두신다”고 말하셨다. 영원 전에서 샤키라고 알려진 사람, 즉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예배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사이드 또는 샤키르라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가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하지 않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영원 전에서 샤키였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무지할 것인 영원 전에서 예정된 사람은 “만물이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으니, 무지할 것인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이 읽고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작동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므로 여전히 무지 될까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을 예정되면, 그에게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이 몫이 있을 것이다. 영원 전에 사이드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믿고 예배하였고, 샤키이라 일컬은 자들은 불신자가 되고 반항하는 것은 그렇다. 바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믿음과 숭배는 영원 전에서 사이드이라고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불신과 반역은 샤키 이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따?”라고 말한다. 그는 짧은 마음으로 이러한 관심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제한된다.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것이 뻔현한다. 이사(예수) ‘알레이히살람’이 말하셨다, “타고난 시각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나에게서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옳은 말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 그의 종들 중 일부를 천사의 수준으로 높이신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이시게 하시다. 그는, 일부를 개나 돼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다. 18번

째 편지의 번역이 여기에서 완료되었다. 성자 Şerefüddîn Ahmed bin Yahyâ Münîrî의 책(Mektûbât)에는 100개의 편지가 있다. 741 [서기 1339]년에 쓰여졌고, 1329 [서기 1911]년에 인도에서 인쇄되었다. 이스탄불의 Süleymâniyye 도서관에 원고가 있다. 76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아다트(se’âdet)는 천국의 사람 되는 것을 뜻이다. 샤카와트(Şekâvet)는 지옥의 사람 되는 것을 뜻이니 다. 사아다트와 샤카와트는 알라후 타알라께서의 두 보물과 같다. 첫 번째 보물의 열쇠는 순종과 예배이다. 두 번째 보물의 열쇠는 불순종하기, 즉 죄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이드나 샤키가 될 것임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 지식을 카다르(운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영원전에서, 사이드로 알려진 사람들은 알라후 타알라에게 복종한다. 영원전에서, 샤키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의 행위를 통해로 그가 사이드(Sa’îd) 또는 샤키(Şakî)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내세를 생각하는 종교 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사이드(Sa’îd) 또는 샤키(Şakî)라는 것을 이해한다. 세상에 빠져 있는 종교인은 이것을 모른다. 모든 영예와 모든 축복은 성실하게 알라후 타알라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모든 악과 환란은 죄를 짓는 데서 온다. 문제와 고난은 죄의 길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다. 위로와 평안은 순종의 길에서도 온다. [이것은 알라후 타알라께서의 관습이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이기적인 영혼에게 쉽고 달콤하게 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기적인 영혼에게 어렵고 괴롭게 오는 것을, 고난과 재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의 알마스지드 알악사(Mescid-i Aksâda)에서, 수년 동안 예배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이, 예배의 조건과 성실함을 배우지 안했다는 이유로 부복을 안했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멸망당했다. Eshâb-ı Kehfin의 개는 더럽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뒤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서 너무 높이 솟아올라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 인간의 마음은 이것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아담 ‘알레이히셀람’에게 밀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담 ‘알레이히셀람’가 밀을 먹을 것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밀을 먹기를 바라셨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사탄에게 아담 ‘알레이히셀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담 ‘알레이히셀람’가 엎드리지

않기를 바라셨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그의 종들에게, 어디든 나를 찾아보라고 하셨고, 하지만 진심(ihlâs)이 없는 사람은 만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다. 알라후 타알라는, 사람들이 그를 믿거나 숭배할 그런 필요가 없다. 그의 창조물이 불신자이며 죄를 범하는 것은 그분께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지식을 억압에서 저장하시고, 무지를 죄에 초래하게 이유로 만드셨다. 믿음과 순종은 지식에서 생기고, 불신과 죄는 무지에서 생긴다. 비록 적은 수라도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죄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된다! 이슬람 학자들은, 세 가지가 세 가지에 원인을 가져온다고 말하셨다: “예배는, 알라후 타알라께서 동의를 얻는 이유다. 죄를 짓는 것은, 알라후 타알라께서 진노의 원인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작은 죄도 짓지 말아야, 작은 이라도 죄를 아주 조심해야 한다. 알라후 타알라의 진노가 이 죄에 있을 수도 있다. 모든 무슬림들을 “나 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무슬림은, 알라후 타알라의 사랑하는 종이 될 수도 모른다. 영원 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정해진 예정은 결코 바뀔 수 없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원하신다면, 항상 죄를 짓고 한번도 순종하지 않은 무슬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바카라(Bekara) 장 30절에서 천사들이 “오 하나님! 어찌하여 땅에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릴 사람들 창조하십니까?” 했을때,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들은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셨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고 말하셨다. 그분은 “나는, 합당치 않은 자를 합당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오게 하며, 억압 받는 자를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그들의 일을 본다. 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본다. 당신은, 당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내 자비로 피신한다. 나는, 당신(천사)이 죄가 없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무슬림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좋아한다. “당신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른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나의 영원한 은총으로 인도하고, 나의 영원한 은총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76번째 편지의 번역은 여기서 완성되었다.

Şerefüddîn Ahmed bin Yahyâ Münîrî ‘라히메툴라히 알레이히’는, 782 [서기 1380]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인도 비하르 시에 살았다. 그의 무덤도 거기에 있다. Münir은 비하르 시의 마을 중 하나의 이름이다. Şâh Abdülhak Dehlevî ‘라히메툴라히 타알라 알레이히’의 책(Ahbâr-ül-ahyâr)에서는 상황 번역은 길게 기록되었다. 이 책은 페르시아어, 1332[서기 1914]년에, 인도의 디오벤드 시에서 인쇄되었고, 나중에는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도 인쇄되었다. (İrşâd-üs-sâlikîn), (Ma’din-ül-me’ânî) 그리고 (Mektûbât)책들은 매우 가치가 있다.

[İmâm-ı Rabbânî ‘라히메툴라히 알레이히’는, 그의 다양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명령하는 행위들에 파르즈(Farz)라고 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 금지하신 것들에 하람(Harâm)라고 한다. 파르즈나 하람이 아니고, 방출된 것들에 무바흐(Mubâh)라고 한다. 파르즈를 하고, 하람을 피하고, 무바흐를 알라후 타알라께서 위해 행하는 것은 예배(숭배하다)라고 한다. 예배 행위가 옳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참되고 알라후 타알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ilm: 과학), 즉 옳은 일을 행하는 조건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아멜(Amel)조건에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고 (ihlâs: 즉, 오직 알라후 타알라를 위해서, 알라후 타알라의 동의를 얻으려면) 진심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성실(ihlâs)은, 돈, 지위, 명예 등 세상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과학은, 스승과 함께 fıkıh(이슬람 율법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적용 [fetvâ]파트와 자세히 연구에 붙여진 이름)의 책을 읽음으로써, 성실함은 성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타사우프(Tasavvuf: 도덕성과 마음의 과학.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마음을 좋은 습관으로 채우는 것은. 그것은 마음 속의 에홀리 순네트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알라후 타알라와 함께 있고, 좋은 도덕성을 갖고, 종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의 책을 읽음으로써 얻어진다. 이슬람 과학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종교정보와 과학정보. 이것들을 필요한 만큼 배우는 것은 명령과 파르즈다. 예를 들어, 약물이 사용되는 방식, 양, 전기 램프 기계 사용자는 전기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배우는 것이 의무다. 배우지 않으면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파르즈와 하람을 믿지만 게으르게 예배하지 않는 그리고 나쁜

친구를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무슬림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죄가 끝날 때까지, 지옥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의무적 파르즈를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고 알면서도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슬퍼고나 후회하지 않고, 알라후 타알라께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르즈를 떠나는 사람은 이슬람을 떠나 불신자가 된다.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오른다. 하람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배의 과학을 배우지 않고 예배의 조건도 모르는 사람, 설령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배를 결코 얹었던 것처럼, 지옥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예배의 조건을 알고 준수하는 사람의 예배가 유효한다. 그는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성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와 그 어떤 선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보상을 얻못한다할 것이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런 예배 선의 및 선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지식과 진실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불신과 죄와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지 않다. 평생 이렇게 예배하다가 살고, 불신앙 속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지식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세상의 불신앙과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한다. 내세에서도 그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마이다(Mâide)장의 9절 그리고 왈아스르(Vel'asr)장에서 약속하신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신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신다.”]

- 6 -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존재하며 유일한 하나이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존재를 없었고,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변의 존재를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하다. 우리의 감정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존재)를 [mevcûd]라고 한다. 우리의 다섯 가지 감정 기관에 대한 존재의 효과를 (속성) 또는 (형용사)라고 한다. 자산은 속성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빛, 소리, 물, 공기, 유리는 모두 존재, 즉 (Mevcûd)이다. 운율, 즉 무게와 부피를 지닌 실체, 즉 공허 속의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를 (Cevher:물질의 본질) 또는 (물

질)라고 부른다. 사물들은, 속성과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공기, 물, 돌, 유리는 별개의 물질이다. 빛과 소리는 물질이 아니다. 빛과 소리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무게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에너지), 즉 (힘)을 운반한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고체에는 모양이 있다. 액체와 기체 물질은 그 자체로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담긴 용기의 모양을 취한다. 물질의 형태를 (객체)라고 한다. 물질은 항상 사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열쇠, 바늘, 집게, 삽, 못 및 기타 물건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모두 철재로 만들어져 있다. 개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단순 객체, 복합체 객체.

(Âlem mütegayyirdir) 즉, 온 세상과 모든 것이 가변적이다. 예를 들어, 이동하면 장소를 변경한다. 커지다가 작아진다. 색상이 변경된다. 살아 있으면 병들고 죽는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벤트) 또는 (해프닝)라고 한다. 외부 영향 없이는 물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물질의 구조가 쇠퇴하지 않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물리적 사건)이라 한다. 종이가 찢어지는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이다. 어떤 물질에서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 물질에 힘이 작용해야 한다. 물질의 구조를 파괴하고 본질을 바꾸는 사건을 (화학 사건)이라고 한다. 종이를 재로 태우는 것은 화학 사건이다. 어떤 물체에서 화학적 사건이 일어나려면, 다른 물질이 그 물체에 작용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작용하는 작용과 각 물질에서 일어나는 화학 사건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즉 서로 상호 작용하는 물질은 가장 작은 부분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가장 작은 물질 조각을 (물질의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부분) 또는 (원자) 이라고 한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원자 더미이다. 원자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105가지 종류의 원자를 알고 있다. 가장 큰 원자라도, 가장 강력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도록 작다. 비슷한 원자의 결합으로 (단순 본체) 또는 (요소)가 발생한다. 원자의 종류가 105가지이므로, 단순체도 105가지 종류가 있다. 철, 황, 수은, 산소 가스, 석탄은 원소이다. 다른 원자 조합으로 인해 (화합물체) 또는 (잉크 개체)의 발생한다. 수십만 개

의 복합개체가 있다. 물, 알코올, 소금, 석회, 잉크는 객체이다. 잉크 개체는, 두 개와 두 개 이상의 간단한 개체가 서로 결합되어 형성된다. 단순한 물체의 결합은, 원자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모든 개체들은, 예를 들어, 산, 바다, 모든 종류의 식물과 동물은 다 105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모든 생명체나 무생물의 구성 요소는 이 15가지 요소다. 모든 물체는, 이 105개 원소 중 하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생성된다. 공기, 토양, 물, 열, 빛, 전기 및 미생물은 복합 물체를 분해하거나 결합시킨다. (이유없는 변경은 없다.) 이러한 변화에서 요소, 즉 이러한 존재의 구성 요소는 물체에서 물체로 옮겨지거나, 뭉체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물체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며 속고 있다. 왜냐하면, 사라지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는 이 모습은 물질의 변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었던 객체,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사라지는 것은, 새로운 객체, 예를 들어 물, 가스, 토양 물질의 존재 형태로 발생한다. 변화 속에서 기존의 새로운 물질이 우리의 감정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변경된 첫 번째 항목을 사라졌다고 부른다.

우리는, 105개 원소 각각의 모양이 바뀌었고 또한 모든 원소에는 물리, 화학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소가 화합물의 구조에 결합하면 이온이 된다. 즉, 그들의 원자는 전자를 주고 받는다. 따라서, 이 원소의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한다. 각 원소의 원자는 핵과 함께 (전자)라고 불리는 다양한 양의 작은 조각으로 구성된다. 핵은 원자의 중앙에 있다.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의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 중성자는, 전하를 운반하지 않다. 전자는, 음의 전기 입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코어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전자는 궤도를 따라 회전하는 것처럼, 매 순간 궤도를 바꾼다.

원자핵에도 변화와 분열이 일어난 것은, (방사성)이라는 원소에서 이해된다. 핵이 분해되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고, 물질이 사라지고 에너지(Kudret)로 변한다는 것도 이해되어 왔던 이 변화는 (아인슈타인)^[1]에 의해 계산되기도 했다. 즉, 복합체에서와

[1] Einstein 유대인 물리 학자는, 1375 [서기 1955]년에 세상을 떠났다.

같이 요소들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된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변화한다. 즉, 오래된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존재한다.) 오늘날 모든 생물(모든 식물, 모든 동물)이 예전에 먼저 없었다. 다른 생물들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날 있는 현재의 생명체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른 생명체 존재할 것이다.

모든 무생물도 마찬가지다. 철 원소와 같은 모든 생물 및 무생물, 또는 여러 몸체가 혼합된 돌, 뼈, 모든 물질, 모든 입자는 항상 변한다. 즉, 오래된 것은 사라지고 다른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물질과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성질이 유사하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화관에서, 움직이는 필름 스트립에서, 다른 사진들이 어느 순간 렌즈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마치 청중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일한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커튼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이가 타서 재가 될 때 이러한 변화를 알기 때문에, 종이가 사라졌고, 재가 존재했다고 말한다.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사라지고 물이 생겼다고 한다. 물질에 대한 현대 지식은, 영원한 행복(Se'âdet-i ebediyye)책의 546, 971, 1041페이지들에도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거기도 읽어주십시오!

책(Şerh-i akâid)의 시작 부분에서: “모든 존재는 알라후 타알라께서의 존재의 표시이고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을 알렘(Âlem: 우주, 세계)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한 종류의 존재를 영역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인간계, 천사계, 동물계, 무생물계 등이 있다. 또는 모든 객체는 세계다.

(Şerh-i mevâkıf)^[1]책에, 44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역, 즉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즉 창조물이다. 하디스 즉,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그들은 항상 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물질과 신체의 속성 모두 일시적이다. 여기서는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책(Şerh-i me vâkıf)의 저자 Seyyid Şerîf Alî Cürçânî는, 816 [서기 1413]년에 쉬라즈에서 사망했다.

1 — 무슬림, 유대인, 나사라, 마기안에 따르면 신체의 물질과 속성은 모두 일시적이다.

2 —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를 따르는 철학자들에 따르면, 물체의 물질과 속성은 모두 영원이다. 즉, 그들은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현대 화학 지식은, 이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닐 것이며 불신자가 된다. İbni Sînâ^[1] ile Fârâbî^[2]도 이렇게 영원하다고 말한다.

3 —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본질은 영원하고, 그들의 속성은 일시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방식이다.

4 — 물질은 일시적이고, 형용사는 영원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 칼리노스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무슬림들은, 물질과 그 속성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한다. 첫 번째 방법은, 물질과 그 모든 입자가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일시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이 그 물질의 이전부터 형성되는 사건은, 영원 전부터 시작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작이 있어야, 즉, 최초의 물질은 무(∅)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무에서 창조된 최초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즉, 이전 물질로부터 형성될 다음 물질의 사건이 영원전 부토 진행되었다면, 서로 물질이 형성되는 데에는 시작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필요할 것이다. 물질의 존재와 그것들이 서로서로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는 무(∅)에서 창조된 최초의 재료로부터 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은 무한에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한이란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무한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로부터 오는 것이다. 무한대에서 온다고 생각되

[1] İbni Sînâ Hüseyin, 428 [서기 1037]년에 세상을 떠났다.

[2] Muhammed Fârâbî, 339 [서기 950]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는 것은 오지 말아야 한다. 영원으로 부터 온 것을 말한다면, 이성과 과학에 부합하지 않는 무식한 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서로에서 창조되는 것도 무한대에서 나올 수 없다. 그들은 무에서 창조된 최초의 인간부터 시작하여 번식을 해야 한다. 멸종에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서로서로 사람들이 형성되는 것은 만약 영원으로 부터 왔다고 한다면, 인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다. 물질과 물체가 서로에서 형성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간다. 무에서 창조된 최초의 물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과학에 부합하지 않는 무식한 진술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된다는 것, 즉 Vâcib-ül vücûd(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는 영원 전에 도, 영원 후에 도 않은. 즉,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들)보다는, Mümkin-ül-vücûd(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알라후 타알라뿐이다. 그분의 존재는 그 자체이시에서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이고, 무한이시다)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이 세상의 창조주와 그의 속성은 영원이다. 그럼 이 우주도 영원 전부터야 하지 않나?

대답: 카딤(Kadîm) 즉, 시작이 없는 창조주가, 물질, 입자 다양한 이유로 변화된, 즉, 파괴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 창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본다. 시작이 없는 창조자는, 원할 때마다, 물질을 서로에서 창조하신다.

그분께서 우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입자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은 원하실 때 원인 없이, 매체 없이, 무에서 창조하시다.

온 새상들이 일시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즉 다시 멸망할 것을 믿는다. 먼저 없을 때, 나중에 창조된 존재들은, 다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많은 존재가 사라진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본다.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사물, 모든 존재는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사물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생겨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즉 물체의 모양과 특징이 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 사물이 사라지면 그 물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질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래 전에 알라후 타알라께서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과 알라후 타알라께서 심판의 날에 그들 모두를 다시 파괴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말했다. 우리 시대의 과학은, 이것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다.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을 비방하고 이슬람의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과학을 거부하지 않다. 이슬람은, 종교적 지식을 배우지 않고, 예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과학도, 이슬람을 부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우주가 일시적일 때문에, 그것을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도 저절로 일어날 수 없다고 위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천 개의 의약품, 가정용품, 산업용 및 상업용 자재, 전자 기기, 전쟁 차량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대부분은 세밀한 계산과 수백 번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다. 그중 하나라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할까? 그들은, 고의로 그리고 고의로 행해졌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들 모두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생물과 무생물에서 볼 수 있는, 매 세기마다 더 새롭고 더 세련된, 발견된, 대부분 아직 이해되지 않은 수백만 가지의 물질과 사건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한다. 이 위선은, 어두운 완고함이나 노골적인 어리석음 외에 무엇이겠는가? 보시다시피, 모든 물질과 모든 움직임을 창조하는 창조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 창조자는 (Vâcib-ül-vücûd)이시다. 즉, “존재하지 않았고 나중에 존재한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항상 존재해야 한다. 존재하실 위해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만약 그분은 항상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은 (Mümkin-ül-vücûd)이 될 것이다. 온 세상과 마찬가지로 일시적(하디스)이고, 즉 피조물일 것이다. 생물은, 다른 생물의 변화나 무에서 창조된다. 그분에게도 창조자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한 창조자가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조물의 변화는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창조자는 무한할 수 없으며, 창조는 첫 번째 창조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창조자들의 서로의 창조가 끝 없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무 창조자가 없어야 한다. 즉, 창조 되지 않은 최초의 창조자는 피조물의 유일한 창조자이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

른 창조자는 없다. 창조자가 창조될수는 없다. 그는 항상 있다. 창조자가 한 순간이 사라지면, 모든 것도 사라진다. Vâcib-ül-vücûd은 어떤 식으로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땅과, 하늘과, 원자와, 생물을 질서있고 계산된 방법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그는 학자여야 하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무엇이든 알고 있어야 하고, 그분에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의 힘이 무한하지 않고 학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렇게 질서 있고 계산되므로 생물들을 창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창조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창작하려는 욕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의지가 없는 창조자는 창조자가 될 수 없었고, 만들어진 것들은 혼란스러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Alî Üşî^[1]의 작성한 (Emâlî Kasîdesi)의 아랍어 및 터키어 주석을 읽어주십시오!

창조주에게는 변화가 없다. 지금과 같이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도 그러하였느니라. 그분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항상 지금도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신다. 변화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것을, 무에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그분이 항상 존재하셨고 사라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변화가 없다. 피조물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분이 필요했던 것처럼 매 순간 그분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변화를 이루는 분은 오직 그분(알라후 타알라)뿐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살고, 질서 있고, 문명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이유를 창조하신다. 그분이 원인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또한 원인의 결과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창조하신다. 인간은 원인이 물질에 작용하도록 하는 도구다.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약을 먹고, 성냥을 켜서 촛불을 켜고, 아연에 산을 부어 수소를 얻는 과정, 석회석과 점토를 혼합하고 가열하여 시멘트를 만드는 단계, 젖소에게 먹이를 주어 우유를 얻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온갖 공장을 짓고,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즉 이러한 원인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알라후 타알라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수단이 된다. 인간의 의지

[1] Alî Üşî는, 575 [서기 1180]년에 사망했다.

와 힘 역시 알라후 타알라께서 창조하신 원인이시다. 인간은, 알라후 타알라의 창조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이런 창조를 원하신다. 이처럼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성과 종교에 부합하지 않는 무식한 진술이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내시는 이 창조주를 사랑해야 하며, 그분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즉, 피조물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것은, 책(Mektûbât)에 세 번째 권 열일곱 번째 글자 부분에 길게 기록되어 있다. Vâcib-ül-vücûd, 유일한 이 신은 자신의 이름이 “알라”(알라후 타알라)라고 스스로 선언하셨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바꿀 권리가 없다. 부당한 일은 잔인하고 매우 추악한다.

기독교인 및 성직자는 세 명의 창조자가 있다고 믿는다. 위의 우리 글들은 창조주가 하나라는 것과 기독교와 성직자들의 말이 잘못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 인간의 이름을 지닌 존재야,
정신 차려라, 방심함에서 깨어나라!
행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 무지한다.
알라후 타알라께서는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왜 주었을까?

왜 임시세계에 이렇게 왔는가!
그냥 마시고 먹는건 다야?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다.
심리학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을까?
미래를 보는 것은 물론 인류다.
기독교가 그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항상 이슬람을 비방한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가?
이슬람을 모른다고 한다
지혜를 어떻게 주장한까?

달콤한 꿈처럼 청춘이 지나갔다.
모든 인생은 한 시간과 같다.
당신은 오늘 이슬람을 모욕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판단을 했을까?

꾸란 알케림은 알라의 말씀이시다.
그 구절은 세상에 대한 자비이시다.
지식, 과학, 선행의 원천이다.
성공과 편안해지고 싶다면 꾸란을 따라야 한다.

논리가 있다면 꾸란을 폄하할 수 없다.
그들은 비겁한 비열한 거짓말을 한다.
참된 종교 서적을 읽는 사람이,
진실을 이해하면서 무슬리만 될 것이다!

Bu kitâb, Korece İmân ve İslâm kitâbidır.